현대불교

제 80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10월 20일 수요일 (음력 9월 13일 · 불기 2554년 · 주간)





창간 16주년 특별기획-세대공감, 다름이 에너지다

세대주기 짧아지고 다양화

90년대 X세대… 최근 V · Na세대 등장

'X세대' 1990년대 당시 신세대를 일컫던 용어다. 2000년대 들어서는 Y세대, 2010년대에는 V세대가 등장했다.

Y세대는 2차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2세들을 일컫는다.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들로 다른 나라 문화 · 인종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TV에 익숙한 이들은 모방심리, 호기심, 패션에 관한 관심도 매우 크다. V세대는 용감하고(valiant), 다양하고(various), 생기발랄(vivid)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들은 개성 있고 자신감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세대는 또래 집단의 성향, 집단지성을 의미한다. 대개 한 세대는 10~30년 단위로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터넷과 핸드폰 등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로 발전되면서 세대간 주기는 좁혀지고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급기야 1년을 주기로 새로운 세대론이 나오기도 한다.

장년층 이상에서는 386세대와 4 · 19세대를 빼놓을 수 없다. 4 · 19세대는 4 · 19혁명을 겪은 세대이다. 386세대란 숫자의 조합으로 1990년대 당시 30대 나이이고 1980년대 대학 학번을 갖고 있는 19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1980년대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전념해온 그 또래 집단의 정신이나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세대 구분은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광고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N세대가 그 예이다. N세대는 네트워크를 자기 감각 · 운동 기관으로써 쓸 줄 아는 세대이다.

월드컵을 계기로 공동의 문화와 즐거움을 위해 뭉치고 노력했던 W세대,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P세대 등을 지나, 최근에는 디지털 노마드 세대와 Na세대가 떠오르고 있다.

이동과 스피드를 특징으로 한 디지털 노마드(Nomad) 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뜻을 갖는다. 이들은 첨단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이다.

Na세대는 내가 주인공인 이들로 '호모 루덴스 (homo ludens: 노는 인간)'를 뜻한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들은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대변되기도 한다.

하늘에서 구름이 피어나듯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 개개인의 본성은 무리지어 공업(共業)을 이루며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자타불이(自他不二)라 했다.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이 '참나'를 찾는 또 다른 길이 아닐까?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세대공감을 위한 제언

공통 경험의 폭을 넓혀라

10월 4일 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지하철 난투극'이란 제목의 동영상은 우리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벌어진 뜨거운 논쟁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10대 여학생보다 할머니를 비난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아 세대 간 갈등이 우리사회의 또 다른 복마전임이 드러내 주었다. 세대간 갈등은 문화영역 전반에서 첨예하게 표출된다.

세대 간에는 정치적 이념갈등도 발생하지만 동시에 세대교체와 같은 실제적인 권력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이른바 '88만원세대'로 상징된 바 있듯이 세대 간에는 일자리 혹은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제적 이해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계층갈등이나 지역갈등 만큼 흔하게 세대갈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세대갈등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3대 사회갈등현상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사회에서는 세대 간 갈등현상이 현저하게 등장하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세대갈등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일상적 풍경임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세대 간 공감대를 확대함으로써 세대차로 인한 사회갈등을 좁히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도 긴요함을 의미한다.

어쩌면 갑과 을 사이의 '공정한 사회'라는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를 통한 사회통합 이전에 혹은 그것의 제도화를 위해서라도, 가정, 직장, 지하철, 공원과 같은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체적 인간관계 속에서 세대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유대는 우리사회의 정치적 보수층과 진보층 사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 그 자체의 점진적인 변화와 연속성을 보장해 준다.

그렇다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세대 간 공감대를 확장해 나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대 간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세대 간 격차가 큰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 공통경험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세대 간 공통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는 삶의 경험이 풍부한 늙은 세대들로부터 전통을 배워야 하는 반면에 나이 많은 구세대는 신세대들이 보다 풍부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회를 대폭 위임해 주어야 한다.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존경과 기회가 교환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력이 쇠약하여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늙은 노모의 젖은 바지를 빨고 있는 50대의 실직 아들이 왜 뜨거운 눈물을 쏟아 내는지를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제2의 지하철 난투극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힘모아 마음모아 영차 영차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는 10월 10일 제2회 2010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를 선화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했다. 네팔, 방글라데시,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등 8개국 이주민 노동자 500여 명을 초청해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이주민들이 줄다리기 결승에서 있는 힘을 다해 줄을 당기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사진=박재완 기자



18 19 선지식 지묵 스님

순행이 오면 오는 대로 역행이 오면 오는 대로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오만하지 말고 잘못 나가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붕해 스님 입적

일붕선교종 4대 종정… 호불사서 종단장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화엄) 제4대 종정 붕해 스님이 10월 11일 입적했다. 세수 80세. 법납 54세.

붕해 스님은 인천 용운사에서 용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일생을 대중포교와 후학양성에 매진해 왔다. 1975년 세계법왕 일붕존자로부터 건당 받은 스님은 1997년 종정으로 추대됐으며 2005년 제4세 종정으로 재추대됐다. 스님의 장례는 인천 호불사에서 일붕선교종 종단장으로 봉행된다. (032)833-4488 노덕현 기자

창간 16주년 기획_세대공감, 다름이 에너지다 …… 12~17면

12 10대 13 20대 14 30대 15 40대 16 50대 17 60대





財團法人 大韓佛教 一鵬禪教宗

第4世 宗正 慧松堂 鵬海 大宗師 宗團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0월 11일 열반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4세 종정 혜송당 붕해 대종사의 종단장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정부인사 및 사회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 · 조전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불기 2554 년 10월 15일

□ 慧松堂 鵬海 大宗師 追慕祭 日程

구분	일 시	구분	일 시	장 소
초 재	불기 2554년 10월 17일 (음 9. 10)	5 재	불기 2554년 11월 14일 (음 10. 9)	호 불 사
2 재	불기 2554년 10월 24일 (음 9. 17)	6 재	불기 2554년 11월 21일 (음 10. 16)	
3 재	불기 2554년 10월 31일 (음 9. 24)			
4 재	불기 2554년 11월 7일 (음 10. 2)	회 향	불기 2554년 11월 28일 (음 10. 23)	

□ 문의 : 총무원 ☎ 02)998-8161~2 / 호불사 ☎ 032)833-8175

(財)大韓佛教 一鵬禪教宗 宗正 慧松堂 鵬海 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의연 · 무공 모두 떠나라”

고불총림의 총림지정 해제 건과 관련해 고불총림 백양사가 10월 10일 임회를 열고 주지 시몽 스님의 사퇴와 의연 · 무공 스님의 참정권 박탈과 이들의 산문출송을 결의했다.

임회 시작에서 방장 수산 스님은 유시를 내렸다.

수산 스님은 유시에서 △고불총림 해제에 관한 분쟁 취하 · 종식 △고불총림 해제 발의자의 참회와 중앙종회의 원직 사퇴 △지선 스님의 유나직 사임과 노석산방 방사 정리 △주지 시몽 스님의 주지직 사퇴를 명했다.

이에 대해 백양사 임회는 수산 스님의 유시를 받들어 투표를 통해 주지 시몽 스님의 사퇴, 의연 · 무공 스님에 대해 참정권 박탈 등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주지 시몽 스님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덮어씌어져 주지 사퇴만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의 화쟁 원리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동섭 기자

‘봉은사 주지 추천위서 추천해야’

화쟁위, 봉은사 보고서 채택…총무원 · 봉은사 전달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봉은사 사태의 해법으로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을 인정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주지 임명할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해 총무원과 봉은사에 전달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은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은사 소위원회(위원장 지홍)이 제출한 ‘직영사찰제도 종합적 개선 및 봉은사 운영과 문제해결방안’(이하 방안)을 11일 전체회의에서 전원 합의로 가결 · 채택했다. 총무원 집행부와 봉은사에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봉은사는 원로회의, 총무원, 중앙종회 등 종단 입장을 존중해 이미 진행된 직영사찰 지정을 수용하고, 총무원은 봉은사 입장을 존중해 운영 및 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 차기 주지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 · 임명할 것이다.

또, 방안은 △포용과 화쟁의 종단 운영과 포용과 덧셈의 인사를 할 것 △후임 봉은사 주지 인사는 봉은사가 종단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종단은 징계 문제 등에 봉은사 입장을 배려해 합리적으로 정리할 것 △총무원과 봉은사는 상호 예의와 격식을 갖춰 그동안의 부족한 점을 참회하고 화합할 것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봉은사소위원회 위원장 지홍 스님과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화쟁위 부위원장 원택 스님.(왼쪽부터)

봉은사 소위원회 위원장 지홍 스님은 “방안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총무원과 봉은사 입장이라는 양극단을 버리고 넘어서서 한국불교의 실상에 근거한 종도의 간절한 바램인 1994년 개혁정신의 계승, 한국불교와 지역불교의 균형발전이라는 중도 또는 화쟁의 관점으로 문제해결이 이뤄지길 바라는 전제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화쟁위는 방안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계기로 직영사찰 관리인(주지)에 대해 △4년 임기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 △2년 주기 인사고과 평가 △종회의원 겸직 불가 등 직영사찰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화쟁위 대변인 법안 스님은 “종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직영사찰 운영을 건전화 ·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지난 4월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총무원과 봉은사 주장에 ‘종단발전과 개혁실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양 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화쟁위보고서에 관해 “총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봉은사 황찬익 문화사업단 단장은 “명진 주지스님은 화쟁위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직능대표 선출 관행 바뀌어야

직능 전문가 명문화 및 직능별 대표기구 추천 존중 필요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대원 · 현산, 이하 수좌회)는 10월 8일 성명서를 통해 “수좌회가 추천한 인물을 선원 직능대표로 선출해 달라”고 공개요구한 바 있다. 수좌회의 이번 공개요구를 두고 교계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능대표는 율원 · 선원 · 강원 · 교육 · 포교 · 사회 · 복지 · 문화 · 법제 · 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중 각 분야별 2명씩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다. 하지만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40조 5항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직능대표의 입후보 조건은 일반적인 중앙종회의원 자격과 같다.

또, 직능대표를 선출하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종회의원이 아닌 스님 6인과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어 직능대표를 두고 계파간 나눠먹기는 예정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직능대표 20인과 10인의 비구니의원을 심의 · 선출한다. 하지만 비구니 의원의 경우 전국비구니회 추천을 거친 스님들을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심의만 할 뿐이다.

수좌회가 성명서에서 “종법상 직능대표로 분야별 2인이 명시돼 있지만 전국선원수좌회를 비롯해 율원 · 강원의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스님은 아무도 없다”고 밝힌 부분은 이미 종단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명시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 이후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직능직 선출에 기준을 세우고자 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왔다.

2008년 3월 임시종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개정안은 이후 종회 차원에서는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수좌회 금봉 스님은 “수좌회 추천 인사가 직능대표로 선출되는 것은 종단과 수좌회의 소통의 기회와 폭을 넓히게 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직능대표가 선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납골사업 본산 된 해인사 바로 잡겠다”

해인사 출신 300여 승려 ‘정상화추진위’ 구성 움직임

해인사 출신 스님 300여 명이 “납골 사업 본산이 된 해인사를 바로 잡겠다”며 ‘해인사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나섰다.

‘해인사 정상화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원학 · 여연 · 수완)’는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학 스님(해인강원동문회장), 여연 스님(강진 백련사 주지), 종월 스님(서울 경국사 주지), 적광 스님(중앙선거관리위원) 등 해인사 중진스님이 참석해 “주지 선각 스님에 의해 수행 · 교육 중심 도량이던 해인사가 납골 사업에 전념하는 수익사업체가 됐다”고 성토했다.

스님들은 “해인사와 해인사 주지 스님 이름으로 노골적이고 낯 뜨거운 납골분양 사업과 장의용품 판매 사업이 자행돼 전국의 스님과 불자들의 실망이 극에 달했다”며 “해인사 각 문중 구성원 · 승가대학 동문을 비롯해 해인사를 거쳐가며 수학 · 정진했던 스님들이 나서 해인사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스님들은 주지 선각 스님에게 △해인사와 고불암 명의의 납골 · 장의용품 사업 중단 △해인사 토지 매각 및 대금 사용처 등 각종 의혹 해명 △해인사 대중이 참여하는 감사반 구성 △개신교 관련 재단이 추진 중인 가야산 골프장 사업 동의 의혹 해명 △선각 스님 개인소유 재산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 스님은 스님은 제32 · 33대 집행부의 해인사 실사내역을 배포하며 “모든 감사 결과가 총무원 재무부에 보관돼 있다. 해인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인사 방장스님에게는 “해인사 주지가 추진 중인 납골 사업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스님들은 총무원과 중앙종회에도 “해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연 스님은 “일부 언론이 종회의원이 되기 위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고, 적광 스님은 “그런 의혹이 있다면 나도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장을 찾았던 해인사 총무국장 “모든 감사 결과가 총무원 재무부에 보관돼 있다. 해인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종회의원 후보 자격심사 강화

조계종 총무원 공명선거 당부 담화문 발표

10월 28일 제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이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강화와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엄정 처벌 등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0월 12일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가 청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는데 종단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총무원은 “이번 선거는 그동안 쌓아온 종단안정과 화합의 기조 위에 한국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중공의와 원융화합의 전통을 되살리고, 수행과 승풍을 진작하며, 특히 종단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종책과 비전 중심의 여법한 선거가 되도록 제33대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휴) 등 승가단체들은 13일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종단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논평했다.

승가단체들은 논평에서 “총무원은 성명 발표를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단행해 구태한 선거문화를 일소하고, 청정선거 풍토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비구니 종회의원 대부분 교체키로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10월 14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5대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종회의원 후보에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교육), 서울 아산병원법당 지홍 스님(사회), 운문사 일진 스님(강원), 청암사 상덕 스님(율원), 석남사 구과 스님(법제). 일산 법계사 지성 스님(포교), 前 문화부장 탁연 스님(문화), 대전 금강사회복지관 정운 스님(복지), 전국비구니회 재무부장 성관 스님(행정)이 선출됐다. 현 중앙종회의원 스님 중에는 불영사 일운 스님만이 재추천됐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慧草

僧正院院長 南坡
副院長 寶峰
副院長 法藏

元老會議議長 一宇
副議長 慧宗
副議長 德化

總務院長 印空
副院長 華鏡

中央宗會議長 靈祐
副院長 常虛

中央司正院長 芸谷
副議長 一雲

종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 TEL 02)739-3450 FAX 02)739-3470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무부장 김무원
교무부장 김유정
재무부장 김용암
교육부장 김세운
사회부장 김경천
규정부장 김영제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산
종의회부의장 정명구
최인규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조용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부이사장 전운덕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

중앙신도회장 김학송
참의원장 권영철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 총본산 구인사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1-1번지 전화 043)423-7100 팩스 043)420-7399 www.chentae.org

“남북문제 불교계 앞장 서주길”

손학규 민주당대표, 조계종 자승 스님 예방… “불교문화 세계화 관심” 주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4일 대표 취임 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국가브랜드 제고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과 같은 한국불교문화의 세계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종단 숙원 사업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답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사회가 발전하며 불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갈등 치유 또 남북화해나 평화 정착 등의 문제에서 정치계가 못하는 부분에 불교계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관악산 연주암 주지와 경기도지사로 인연이 있었던 자승 스님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덕담으로 인사를 건넸다.

자승 스님은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 것은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일”이라며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고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존중해 서로 화합하는데



당대표 취임 후 조계종 총무원을 첫 예방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자승 스님이 반갑게 맞고 있다. 박재완 기자

한국불교가 앞장서겠다. 민주당도 세계종교지도자포럼, 사찰음식 세계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손 대표와는 8년 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인연이 있다. 당시 약속했던 불교 관련 공약도 곰곰이 살피고 새로이 필요한 것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함께 자리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종교 재산에 보존과 활용의 문제, 자연 ·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역사 · 문화 활용 측면에서 일부 성과가 있지만 자연 환경 보호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담 스님도 “정부 주도로 정해진 입장료 문제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지난 43년간 불교계가 정부로부터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은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절 신세를 많이 졌다”며 “2006년 100일 민심대장정 당시 현응 스님이 허락해 주셔서 해인사를 찾아 중간 정리를 한 적이 있다. 또 한나라당 탈당 할 때도 낙산사 찾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불교문화가 사회에 퍼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일상화 하고 그로인해 우리 문화가 한 단계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조기룡의 사찰경제학 ③

사찰도 마케팅이 필요하다

마케팅은 흔히 저질의 판매 수단이나 광고 수단으로 일반인들에게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의 종사자는 마케팅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반응을 보이고는 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사찰도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하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나 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사찰 같은 종교 조직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견 ‘사찰 마케팅’이란 용어가 모순되는 단어의 조합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마케팅의 개념을 기업에만 적용되는 영리 추구 행위의 일종으로 오인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마케팅의 개념을 정확히 분석해보면 마케팅이 영리 조직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 마케팅 컨설턴트인 코틀러(P. Kotler)는 “마케팅(marketing)이란 선택된 고객층의 욕구[want]와 필요[need]를 이용하여 조직이 고객에 투입할 자원 · 정책 등 모든 활동을 분석 · 계획 · 조직 ·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면, ‘양측의 당사자가 교환 과정을 통하여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인간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와 필요에서 나타나는 교환 활동은 영리, 비영리를 막론하고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만 활용되는 개념으로 여겨져 왔던 마케팅이 오늘날에는 비영리 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 비영리 조직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비영리 마케팅이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집단, 조직들이 상호 간에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교환 관계를 수립해주는 마케팅을 말한다. 비영리 마케팅은 프로모션(promotion, 판매 촉진)이나 광고와 같은 의미를 갖는 말이 아니다. 비영리 마케팅이란 말은, 비영리 조직이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공중(公衆)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그 원하는 것을 공중에게 최선을 다해 제공해주고, 그 후 그 일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비영리 조직과 공중의 양자가 상호 만족할 때까지 프로그램들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비영리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 조직에는 자선 및 봉사단체, 노동조합, 교육단체, 정치단체, 사회단체, 사찰 · 교회 등의 종교단체 등이 있다.

모든 마케팅은 인간의 욕구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사찰도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종교단체, 교육단체, 자선단체, 사회단체, 문화단체의 비영리 조직들이 과거에는 마케팅의 개념을 세속적인 것 혹은 저속적인 것으로 배타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나, 이제는 신도 또는 고객의 감소 및 정체를 타개하고 단체에 필요한 자원조달과 공중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조직의 마케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제 비영리 조직들도 마케팅으로 자신들의 조직을 이용하는 공중의 수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찰의 소임자들 가운데는 영리 조직인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비영리 조직인 사찰에서도 마케팅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데나 이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성스러운 종교조직에 적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사찰이 수행과 포교를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사찰경영의 측면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의 운영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사찰 나아가 불교를 모독하는 듯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교교단과 사찰도 실제로는 사찰경영에 은연 중 마케팅을 적용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찰 창건, 신도 확보, 종교적 욕구 충족의 제공, 포교 활동 및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자원의 조달, 종무행정 등은 사실상 마케팅에 해당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처한 불자 수의 감소와 전근대적 사찰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이제는 사찰도 마케팅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 포교로는 비불자들을 사찰로 이끌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으며, 또한 주먹구구식 운영으로는 기존 불자들의 변화하는 종교욕구를 충족시켜주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마케팅이란 시대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사찰운영 · 신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

이에 불교 교역자들은 시대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사찰운영 및 신도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곧 마케팅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능력 있는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최신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교역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근래에는 상담, 사회복지, 명상 등을 위해서 대학에서 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행정학 등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스님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사찰경영 전문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였는데, 교단의 중진 스님들이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역자들이 마케팅 개념을 자신이 소임을 살고 있는 사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죽비와 목탁

종책선거와 법응 스님의 출마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화엄회 무량회 보림회 무차회의 선거운동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네 계파(또는 종책모임) 중 어느 하나에 속하거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중앙종회의원 또는 중앙종무기관 소임을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경험했듯 조계종의 권력은 화엄회 무량회 보림회 무차회, 이 네 계파의 결합과 경합에 따라 결정된다.

계파 정치는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안정이 가장 큰 미덕이다. 90년대 조계종은 두 차례의 큰 폭력사태를 치르며 안정의 가치를 각인했다. 지금, 네 계파에 의한 권력 분할은 외형상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계파 정치가 자파의 이해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거듭하며 운영될 때 종단 안팎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 흐름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여기에 덧붙여, 대중이 소외된 상황에서 계파의 집단논리가 작동하면 새로운 흐름의 형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활동을 펼쳐온 법응 스님이 직할교구 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특정 계파에 속하지도 않은 스님이 홀로 출마한 것은 관심을 끌만한 일이 아니다. 200여 출마자 중의 한 스님이니 그 비중은 200분의 1, 0.5이다. 자연수에도 이르지 못하는 미미함이다. 그럼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공약집을 내놨다는 데 있으며, 둘째는 공약 중 많은 쟁론이 일어났으면 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집을 배포하는 일은 처음이다. 선거에 출마했으면, 종도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이런 저런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다. 대의(代議)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던 탓이다. 계파 중심의 선거풍토가 구조화된 것도 원인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찬사하는 이유는 논점이 제시되어 후보들이 갑론을박하고 종도들이 한마디씩 보태는 쟁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종단 안팎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그리는 쟁론이 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후보마다 공약집을 내놓을 때 비로소 종책선거로 나아간다. 그래서 법응 스님의 공약집 제출이 반갑고 고맙다.

법응 스님은 A4용지 32쪽 분량의 공약집을 제방의 스님들에게 두루 보낸다고 한다. 법응 스님이 공약집 표지에서 밝힌 “혁신을 두려워하면 조계종의 미래는 없다!” “종단 발전의 척도는 투명성과 공익성이다!”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지금 상태로 조계종의 미래는 밝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응 스님은 공약집을 통해 총무원장 직선제, 종헌에 종도 권리를 명시해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한국불교중앙연구원 설립을 주도하겠다는 항목이 주목된다. “한국불교에 관한 인문 · 사회과학적 연구 및 관련 사업으로 종단과 한국불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급변하는 조계종과 한국불교가 무엇을 할 것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연구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응 스님의 당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혹자는,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출마하다니 무모한 것 아니야, 하고 힐난할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출마해도 당선에 뜻을 두지 않으니 괜찮다.



정성운 부국장 woon1653@hanmail.net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나이 40이 되어도 이렇다 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논어』 자한편(子罕篇)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100년 동안 세상에 출판된 불교서적은 무슨 책들이 있을까?

시공을 초월하여 독자의 마음에 길이 남아 있는 책은 드물 것이다.
이 책에 선정된 책은 불멸의 명저도 있고, 베스트 셀러, 논쟁이 되었던 책, 화제의 책, 뛰어난 번역서, 출판역사상 특필해야할 책 등 소중한 자료들로 구성 되었다.

윤창화 저
신국판 / 양장제본 / 404쪽 / 값 18,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 이메일: minjoksa@chol.com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민족사

圓覺經

완전한 깨달음



이제열 강의
신국판 / 318쪽
값 12,000원

금생에 해야 될 가장 큰일이 있다면 마음을 깨닫는 일이다.
중생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보살과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허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끊고 불성을 드러내어 진실하고 뚜렷한 완전한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일 주 문



봉은사 이주노동자 전통 혼례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0월 24일 봉은사 경내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통 혼례식을 개최한다.



해인사 무생계 수계대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10월 29~30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무생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승가기탁품 전시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 현근 스님은 12월 5일까지 성보박물관 2층 기획실에서 개산대재 기념 통도사 사중 기탁품 전시전을 개최한다.



진각종 전법금강관정불사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10월 13일 서울 성북구 총인원 내 무진설법전에서 전법금강관정불사를 봉행했다.



법선 스님, 조선대 강사로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조선대학교에서 '인간과 인간성' 교양강좌 강사로 나선다.



정토회 정토수련원 개원식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10월 31일 문경 정토수련원 현장에서 정토수련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10월 정기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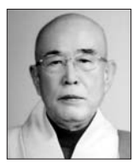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은 10월 27일 중앙신도회관 불교인재원 교육관에서 10월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군불총 간부불자 수련회

박정이 군불총 회장은 10월 15~17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제3회 간부불자수련회를 개최했다.

■ <입적> 화계사 선덕 정수 스님



서울 화계사 선덕(禪德) 정수 스님이 10월 10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5세. 정수 스님은 1972년부터 1983년까지 강화도 보문사 주지를 맡았으며, 1980년 신군부가 전국 사찰을 수색한 10 · 27 법난 당시 신군부에 의해 연행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발인은 12일 낮 12시에 진행됐으며, 경기도 고양시 벽제 화장장에서 다비가 봉행됐다. (02)902-2663

■ 불교환경연대 신임 대표 현고 스님

"힘 원천은 교단과 대중에 있다"

"'수경 스님이 빠지니까 불교환경연대 맥이 빠졌다'는 말들의 배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환경연대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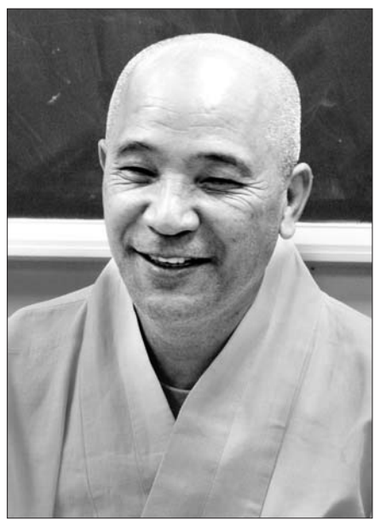
불교환경연대 신임 상임대표에 현고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이 선출됐다. 수경 스님이 사퇴 의사를 밝힌 후 4개월 만이다. 현고 스님은 10월 11일 불교환경연대 임시총회에서 상임대표를 어렵게 수락했다. 현고 스님은 상임대표직을 2010년 12월까지 적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조건부로 맡겠다고 의사를 표했다. 스님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원력이 허영이 될 수도 있다. 격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고 스님은 수경 스님의 삼보일배 정신이 곧 불교정신이라고 평가하고 그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으로 수경 스님이 불교환경연대를 만들고, 활동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수경 스님의 환경운동을 쉽게 생각하는 것을 늘 염려했습니다. 삼보일배는 불교적인 행동이고 불교계 의사표시 방식이자 그 자체가 불교입니다."

현고 스님은 불교환경운동연대의 기본 방향을 현대적 소통의 방식을 통한 대중참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현고 스님은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개발론자와 싸워서 이기거나 재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짓는다"며 "정부에 대항하고 개발론자들에 대응해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현고 스님은 불교환경연대의 위기를 환경운동단체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대가 시민환경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회구조 또한 기존의 형태로는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고 스님은 '불교와 인간'에서 해결점을 찾았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참여자들을 독려하는 일과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조직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 인생관에 대한 교의적 설명을 설법이라는 방식 외 문화적으로 펼쳐가는 환경운동을 보여준다면 대중참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조계종단과 불교환경연대의 관계에 대해서도 "힘의 원천은 교단과 대중에 있다"며 "종단과 갈등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종단 집행부나 종책 책임자들이 불교환경연대의 활동이 불교를 위한 집단임을 인식해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환경정책 등에 대해서 현고 스님은 "내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불교환경연대 회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현고 스님은 1975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다. 1971년 10월 송광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수도암, 해인사 등에서 안거하고 1994년 5월 ~ 1998년 5월 송광사 주지를 맡았다.

2001년 3월 ~ 2003년 12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2004~2005년 한국불교문화사업 단장, 2005년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2006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주암호보존협의회 대표이사 겸 의장,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 전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기부는 선조 은혜 갚는 것"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공)은 "기부[보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에의 1만원 기부는 선조들로부터 문화재를 물려받은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삼성출판박물관장)이 지난해에 1권에 이어 최근 <책을 건네다-저자서명본2>를 펴냈다. 서울 구기동 삼성출판박물관에서는 12월 31일까지 전시회도 열린다.

김 이사장은 10월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에 대한 이야기에 더 많은 열정을 보탰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목으로 사라졌던 역사적 장소와 건물들을 시민 · 단체 · 기업 등 민간차원의 모연을 통해 매입 · 보존하는 단체이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세대가 다 써버려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래 세대로부터 보관 받은 '자산'입니다."

김종규 이사장은 "우리는 앞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문화유산국민신탁에의 참여는 우리 것을 소중히 지켜온 선조들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다. 기부는 은혜를 갚는 보시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고운문화상 수상자로 선정 · 수상한 상금 1000만원을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각각 500만원 씩 기부해 솔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그는 이라크국립박물관 등 국내 · 외 문화재 보호를 위해 크고 작은 선행을 이어왔다.

김종규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기부'와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책을 건네다-저자서명본2>에는 법정 스님 열반 이후 마지막 판본으로 출간돼 범우사 윤형두 발행인으로부터 서명 · 증정 받은 <무소유>,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차와 더불어 삶> 등 불교도서의 저자 서명본이 다수 포함돼 있다.(02)732-7520

조동섭 기자

세계불교법왕의날 선포 대법회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이사장 담화)은 세계불교초대법왕인 일붕 존자의 업적을 기리고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10월 9~10일 청원 법왕청 제2청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법왕의날 선포식을 비롯해 일붕 존자 동상제막식, 6 · 25 60주년 기념 사진전, 철야 3000배 정진 등이 진행됐다.

10일 열린 세계불교법왕의날 선포식에서는 '국민한마음잇기 운동' 결의문이 채택돼 발표됐다.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총무원장 원각 스님은 "세계인류평화와 자유평등사상을 펴신 일붕 법왕의 뜻을 잇기 위한 자리"라며 "원융무애한 자비원력으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호국법화경 사경 봉안 대법회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회주 도림)는 10월 23일 천안 구룡사에서 법화경 사경을 탑에 봉안하는 사경봉안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 인도 마하보디 쏘사이어티 사무총장이 법문한다.

도림 스님은 "국가 안녕과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대법회에 동참에 각가와 민족의 화합을 기원하자"고 말했다. (02)928-1331

노덕현 기자

보광 스님 '불연록' 발간 봉정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의 도반, 선 · 후배, 동료 교수들이 78편의 연구논문을 모아 <불연록>을 펴냈다.

불연록간행위원회(공동간행위원장 황순일, 하마니주)는 10월 14일 소피텔에서 <불연록> 발간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이연택 동국대총동문회장, 주호영 국회의원, 강재섭 前 한나라당대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등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보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속가에서 20년, 출가해 불법 공부에 20년, 동국대와 정토사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불법을 홍포하는데 20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는 동국대 중흥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오영교 총장의 임기는 2011년 2월까지이다.

조동섭 기자

공군참모총장 취임환영법회

10월 10일 육 · 해 ·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는 제32대 공군참모총장 원흥 박종헌 대장 취임환영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군법사들과 26대 前 공군 참모총장 법공 이억수 장군을 비롯한 공군 장성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초청법사인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은 "보리심 즉 대각심이 부처이며, 크게 깨닫는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법문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佛紀 2554年

주지 성타

관 장 종상 교 무 정수
학 장 덕민 재 무 종천
선원장 종우 사 회 각천
부주지 장주 포 교 성요
총 무 종천 호 법 종민
기 획 정문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불교문화 템플라이프로 OK

G-20정상회의 회담국 외교관들 묘각사서 불교 체험

11월 G-20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회담국 외교관들이 10월 9일 낙산 묘각사 템플라이프에 참가해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했다.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카를로스 알베르토 대사와 미국 마르티네즈 참사관, 영국 조나단 노트 부대사 등 G20회담국 대사 일행이 참석해 '내 마음 내려놓기'를 주제로 열린 템플라이프에서 108배 염주만들기, 점심공양, 다도 및 참선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대사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의 환담에서 "한국불교문화의 장엄함과 경건함에 감명 받았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문화와 불교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참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낙산 묘각사 템플라이프는 올해 9월까지 외국인 950여 명이 다녀갔다.

외교관들은 마지막 회향 시간에 "뜻 깊은 체험의 시간을 마련해 준 관음종에 고맙다. 한국에 있는 동안 불교행사가 있으면 초청해 달라"며 관심을 보였다.


조나단 노트 주한영국 부대사(왼쪽)와 네리 마터네즈 주한 미국 참사관이 다도 프로그램에서 차를 따르고 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외국인들에게 낙산 묘각사는 한국과 불교문화를 알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다녀가야하는 체험사찰로 알려져 있다"면서 "관음종을 비롯한 낙산 묘각사 대중들은 보다 신중하고 따뜻한 배려로 한국 문화와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임란 기록에 묻힌 의승군사 연구"

사명 성사 열반 400주기 표충사서 추모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오른쪽)이 사명 성사 영정에 차를 올리고 있다.

임진왜란 승병장 사명 성사(1544~1610)의 열반 400주기 추모법회가 10월 10일 밀양 표충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원로의원 밀운 · 성수 · 혜정 · 정무 · 월탄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교구본사주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두관 경남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제2차관, 엄용수 밀양시장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행사에서 "서산 · 사명 성사는 5000여 의승군으로 평양성 전투에서, 기허 성사와 800명의 의승군은 청주성 전투를 시작으로 조선의 명운을 밝혔다"며 "사명 성사 400주기를 맞아 임란전쟁의 기록에서 묻혀버린 의승군사(義僧軍史)를 연구 편찬해호법불교, 호국불교, 구국불교, 민족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추모대재 조직위원장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는 인사말을 통해 "사명 성사의 구국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화두를 주고 있다. 사명 성사의 구국애민의 뜻을 이어가는 국민추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서는 조선시대 국가와 유생들이 직접 사명 성사의 제사를 모셔온 전통에 따라 성균관 유도회총본부가 주관한 유교식 다례제가 열렸다.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운문사 생태복원 공로 대통령상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가 10월 5일 환경부로부터 운문산 자연생태계 복원 · 보존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는 운문사의 수상 이유로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모범 △산불로 인해 훼손된 운문산 자연생태계 복원의 적극 추진 △운문산 자연생태계조사(2007~2009년)를 통한 생태계 현황 정리 △운문산 자연휴식년제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구성원에의 환경교육 등을 꼽았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기록관리 학자들 조계종 중앙기록관 방문

한국 기록관리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내한한 기록관리 해외 저명학자 및 기록보존소장 등이 10월 15일 조계종 중앙기록관을 방문했다.

이날 중앙기록관을 방문한 전문가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김학준 원장, 한국외대 정보기록관리학과장 노명환 교수 등 국내 전문가와 안느 길리랜드 미국 UCLA대 교수, 켈빈 화이트 미국 오클라호마대 교수, 디디에르 봉듀 프랑스 셍고뱅사 기록보존소장, 피터 블룸 독일 하이델베르그시 기록관장 등 해외 저명학자 등이다.

조계종 중앙기록관은 기록물 관리 제도화, 전종단적 기록물관리 시스템 운영, 과학적 영구보존서고 운영 등으로 기록관리 학계에서 민간기록물관리 선진사례로 꼽혀왔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산림 법회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10월 12일 '2010법주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산림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노현 주지스님을 전계아사리, 무상 스님을 갈마아사리, 철안 스님을 교수아사리 등으로 참석해 1500여 불자들이 동참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진관사 국행구륙대재 · 역사문화축제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개산 1000년을 맞아 국행수륙대재 재현 및 삼각산 역사문화 축제를 10월 6~24일 봉행한다. 행사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600년을 이어온 전통의례문화인 국행수륙대재 재현과 1397년 진관사 수륙사 건립 태조어가행렬이 재현된다.

행사는 13일 어르신만발공양과 16일 삼각산 달오름 음악회에 이어 23일 오전 10시에는 진관사 1000년 개산대재가, 오후1시에는 태조어가행렬이 연신내 등 진관사 일원에서 펼쳐진다. 국행수륙대재는 23 · 24일 오전 9시부터 봉행된다. (02)359-8410 조동섭 기자

BBS노조 김영일 사장대행 퇴진 촉구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송근선, 이하 BBS노조)이 김영일 사장대행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BBS노조는 10월 12일 서울 다보빌딩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연봉이 1원이라는 김영일 사장이 실제로는 매월 400~500여 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김 사장직무대행의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일 사장직무대행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연봉은 1원이며 수익이 난 후 급여를 받아가겠다"고 알려왔다.

노조의 사장직무대행 퇴진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김영일 사장직무대행이 약속과 달리 1년간 급여를 수령해 온 배신감과 함께 경영난 개선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손근선 위원장은 "김영일 사장직무대행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출근저지 등 강경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봉원사 토지등기 완료 태고종 소유분 7만평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공)은 "2010년 초 조계종과의 분쟁이 종식됨에 따라 봉원사 소유분으로 확정된 토지 26만660평방미터(7만8987평)의 토지등기가 9월 28일자로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명의로 등기완료 됐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이번에 등기를 마친 토지는 봉원사 법당, 요사채, 사찰 유지를 위한 후사면, 주차장 부지, 비림 등이다.

봉원사(주지 일운)는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봉원사를 명실상부한 종단 총본산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은 "신도회를 포함한 봉원사중흥불사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소유권 분쟁으로 침체된 불사를 다시 일으키고, 봉원사를 세계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중심으로 한 세계불교문화의 본령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미송사 개원식 10일 삼존불 점안

진주시 정촌면에 자리한 (사)대한불교 우리조계종 총본산 미송사(총무원장 지도)는 10월 10일 법당개원식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증명법사인 원로 금담 스님과 해동불교임제종 종정 석지 스님, 대한불교불일조승종 응관 스님을 비롯해 종단 대덕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지도 스님은 "종도들의 염원과 기도원력으로 불보전을 완공하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금담 스님은 "흘러가던 모든 물은 바다에서 하나가 돼 만나면 어디서 온 더러운 물이라도 크나큰 바다 품에서 깨끗한 물이 된다"면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삼독심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을 잘 지킨다면 불국토도 하나가 될 것이다. 기도정진하자"고 법문했다.

법회 후에는 종단 발전을 위한 종도 모임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불자노래 한마당이 열렸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살, 종교의 책임이 크다

포교원, 포교종책연찬회
자살 예방 대안 모색



자살자의 80%는 우울증으로 자살한다. 대화의 단절과 고립화는 우울증을 심화시켜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어르신이 종로 거리 벤치에 앉아 머리를 숙인채 생각에 빠져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10월 8일 행복전도사로 불리던 한 작가가 남편과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스타들의 연이은 자살 소식에 이어 사람들에게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녀의 자살 소식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살 예방을 주제로 제42차 포교연찬회를 열고 자살 예방 대안을 모색했다.

혜총 스님은 인사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는 것은 불교인을 비롯한 종교인 책임이 크다. 자살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자비명상, 불성 찾기, 우울증 치유 프로그램 등 각종 콘텐츠 개발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백도수 동국대 강사가 '자살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이범수 웰다잉운동본부 교육위원장이 '자살예방 실천 활동 사례'를, 황수경 불교여성개발원 문화위원장은 '급증하는 자살에 대한 불교적 대처방안과 예방'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인의 자살과 불교적 대처 방안과 향후 방향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운동본부 황수경 교육위원장(동국대 강사)은 의로운 죽음이나 소신공양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자살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을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과 모방자살 영향(베르테르 효과), 학력중심 경제지상주의 우리사회에서 기업인 · 전문가들의 자살, 타살에 가까운 가족동반 자살로 분류했다. 황수경 위원장은 "사회적 성공과 계층상승에 대한 욕구가 과하다 보면 조건에 집착하고, 뒤처지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거나 타인을 배려할 여유가 없게 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부터 자기존중감이 결여,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가치관과 문화, 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회에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의 가치관과 자비실천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는 과열 경쟁과 생명 경시 풍조, 스트레스와 우울증,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평등, 심리적 고통을 억압 혹은 방치, 대화의 단절과 고립된 대인관계, 감정을 억압하는 한국 문화 등으로 보았다.

황수경 위원장은 불교의 자살 예방 실천방안에 대해서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데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정, 사찰, 직장, 국가 정책 등 각종 경제 · 복지 · 법제도 등 사회적 차원에서 자살예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불교실천운동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바탕으로 한 생명존중사상과 대승보살의 자비교육, 마음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안했다.

마음 치유와 관련된 선 수행과 명상에는 "기본적으로 개인, 부부, 가족, 집단 대상의 프로그램이 각각 목적과 내용, 방법에서 달리 하는 맞춤 교육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불교심성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음보시실천운동을 '미소, 배려, 경청, 공감, 감사하기'로 △'당신을 존중합니다'의 직접 표현 △상대의 마음과 필요를 알아채고 배려 △경청해주는 마음이 그대로 치유 △불이법, 둘 아닌 도리의 실천을 위한 공감 △모든 업을 녹이고 공덕이 되는 마음이다.

이범수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본부 교육위원은 자살 예방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사찰 등의 종교단체와 연계시켜 운용해야 한다"며 "교리적 신념과 통합, 향후 진행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하여 사찰의 신도 관리와 포교의 방편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원폭피해자 요양시설 건립 지원
자승 스님, 합천 평화의집 방문서 약속



자승 스님이 10월 9일 합천 평화의 집을 방문해 원폭 피해자 2 · 3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원폭피해자 요양시설 건립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9일 합천 평화의집(원장 윤여준, 운영위원장 혜진)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승 스님은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2000회 특집 방송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원폭 피해자들의 사연을 알게 됐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아름다운동행과 복지재단 등 종단에서 관심을 갖고 (요양시설 건립 등)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스님은 평화의집 윤여준 원장에게 "2011년도에 들어서는 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함께 하겠다"며 '100평 동참'을 약속하기도 했다.

원폭피해자 2 · 3세들을 만난 총무원장스님은 "몇 해 전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월남전 당시 고엽제로 고생하는 피해자들과 후손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다"며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이날 평화의집 방문에는 지원스님(前 총무원 사회부장)과 혜진 스님,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스님, 윤여준 원장, 김봉대 한국원폭2세환우회 고문, 한정순 한국 원폭2세 환우회장, 하창환 합천군수, 박우근 합천군의회 의장, 박경수 합천경찰서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평화의집은 3월 1일 원폭 2세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위해 지원 스님이 원력을 보태 운영해 왔다.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중 국비 5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조동섭 기자

역지사지로 불교를 알자

책을 읽는 순간에도 우리는 붓다가 될 수 있을까. 10월 13일 지혜로운여성 월례특강에서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씨는 '책과 불교'라는 강연을 통해 "단순히 독자로만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 속의 주인공의 입장이 돼 역지사지의 독서법을 하면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블랙라이크미>라는 책을 "역지사지의 방법으로 독서를 하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라이크미>는 한 백인이 흑인으로 가장해 흑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룬 책이다. 이씨는 "고정관념은 애초에 어떤 것이 자기 머리에 들어앉으면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고착돼 버리는 사고방식이다.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의 모습이 다가와도 그걸 보지 못하게 된다"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자꾸만 자기를 객관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불자들이 경전을 읽을 때에도, 주인공인 붓다의 입장이 돼 법을 듣고 고민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게 되며, 결국 내가 변화하게 된다"며 "이렇게 자꾸 변화해가다보면 결국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불교에서 자살을 어떻게 보는가

불교에서 자살은 타살과 같은 죄로 간주했다. 생명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한 방편이기에 인위적으로 수명을 단축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자살은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고 끊임없는 고통과 윤회세계로 이끄는 불선법에 속한다고 했다.

자살은 악한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윤회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살은 그러한 삶을 위배하는 일로 보았다. 그러므로 자살은 수행윤리에 따라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과 열반에 이르게 되는 수행단계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일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세속적 자살은 보살 수행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에서 자살의 원인은 삶의 무의미, 잘못된 인식과 질병의 고통 외에도 실천수행, 종교적 승화로 나타난다. 비구와 비구니는 주로 수행과정에서 질병과 현생의 삶의 무의미 등을 혐오하며 자살하고, 재가신자는 주로 질병과 사회적 고통, 출가목적 등을 이루기 위해서 자살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중국불교에서는 비구와 비구니의 소신공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신공양은 보시와 수행공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라한의 경우 자살 후에 윤회세계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과 원력 그리고 중생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신공양은 자신의 몸을 버려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으로 보았다.

■ 백도수 동국대 강사

불교계 자살 예방 활동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운동본부

불교여성개발원은 웰다잉 실천교육인 '아름다운 마침표, 그 마지막 성장과 하나 됨'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해, 명상체험, 관계치유, 호스피스, 유족심리, 제사문화, 법률정보 등 실제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한다. 02-722-2101

지혜로운여성 "내(來) 생애 봄날"

지혜로운여성은 노인자살예방 집단상담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내 생애 봄날'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8월부터 사회복지사, 노인요양보호사,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노인자살 집단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2-722-2101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에 맞는 상담활동과 이론, 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자비의 전화 및 사이버상담 자비24, 사이버성상담 아하섹스, 전문 면접상담기관을 운용하고 있다. 02-737-8803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G20 서울정상회의
성 공 개 최 기 원

사단법인 국제승가법황청
대법황 이,취임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세기말적 정신적 빈곤의 혼돈시대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우수한 도제 양성과 국제간 울타리가 없는 세계불교중흥을 위한 사단법인 국제승가 법황청에서 G20서울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본청 대법황 이,취임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고자 합니다 ,
세계정상 20개국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정상회의 성공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세계불교 중흥의 불국토 장엄에 수희동참을 발원합니다,

행사명 : 국제승가법황청 G20정상회의 성공개최기원 대법황 이,취임 대법회
일 시 : 불기2554(2010)년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대전시 중구 선화동 230-6번지 대림관광호텔 2층 대연회실
주 최 : 사단법인 국제승가법황청
주 관 : 공익법인 월드승가회
후 원 :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TV, 社團法人 國際僧伽法皇廳

관점 따라 다양한 해석 '금강경'에 빠지다

김호귀 연구교수 '금강경' 주석서 '금강선론' 펴내… 가장 오래된 주석서

<금강경>은 <반야심경>처럼 짧지도 <화엄경>처럼 길지도 않은 적절한 분량으로 읽기 쉬우면서 대승불교의 깊은 진수를 드러내고 있어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읽혀져 왔다.





김호귀 연구교수가 최근 번역해 펴낸 <금강선론> <금강삼매경론>.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중국의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이 <금강경>을 최초로 한역(漢譯)한 이후 2~300년 사이에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가 중국에서만 900여 권이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강경>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이 중에서도 <금강선론>은 <금강경>에 대해 아주 자세한 해석이 담긴 가장 오래된 주석서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강경>주석서 번역 및 <금강경>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온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최근 <금강경> 주석서인 <금강선론(金剛仙論)>을 국내에서는 처음 번역해 펴냈다.

김 연구교수는 "<금강선론>은 <금강경>에 대한 복주(復註)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금강경>의 경문에 대해 천친이 주석한 <천친론>에 대해 다시 그의 제자인 금강선(金剛仙)이 주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교수는 "<금강경>은 인도에서 무착(無着)과 천친(天親)에 의해 일찍이 주석서로 저술됐다"며 <금강경>주석서와 <금강선론>에 대해 간략하게 들려줬다.

부처님 열반 후 4~5세기 무렵 <유가사지론>등 미륵보살로부터 많은 설법을 들은 무착은 유가행파(瑜伽行派)를 창시했다. <금강경> 해석에 난해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은 무착은 일광삼매(日光三昧)에 들어 도솔천에 올라가 미륵보살을 만나 <금강경>의 뜻을 물었다. 김 연구교수는 "미륵보살이 77수의 게송을 지어 <금강경>의 대의를 일러줬다. 무착은 이를 77개의 게송으로 요약해 동생인 천친에게 암송했다"며 "이를 받아 적은 천친은 해석을 달아 <천친론>이라고도 불리는 <금강반야론>을 저술했다"고 덧붙였다.

<금강선론>은 이러한 <금강경>의 경문, 무착의 게송, 천친의 해설에 천친의 제자이기도 했던 금강선 논사의 종합적인 해설이 곁들여진 4중의 중층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김 연구교수는 "이런 점에서 <금강선론>은 무착과 천친의 <금강경> 해석에 대한 충실한 계승이기도 하다"며 "때문에 이 책에는 인도에서 출현하고 계승됐던 <금강경>에 대한 논서의 성격이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호귀 연구교수가 동국대 선학과, 금강경학회의 강의 자료와 연구논문을 위해 한역한 <금강경>주석서 만해도 수권에 이른다.

그는 이번에 <금강선론>뿐 아니라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론>도 한역해 펴냈다. 이 외에도 그는 <게송으로 풀이한 금강경> <금강반야경소> <금강경찬술> <금강경주해> <금강경약소> 등 다양한 <금강경> 주석서들을 한역한 책을 펴냈다.

김 연구교수는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가 다양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경전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을 붙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도 있다"며 "<금강경>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위한 <금강경>주석서들은 고전으로 전해내려 오는 것들이니 한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금강경 주석서들

 # 당나라 지엄(智儼)스님,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

당나라 지상사의 지엄 스님이 보리류지(菩提留支) 한역본에 의거해 그 형식과 내용에 해석을 가한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를 통해 <금강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했다.

지엄 스님이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 것은 실상반야 · 관조반야 · 문자반약(방편반야)의 본질에 대해서 체와 덕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나아가서 그 수행의 입장에서는 3종반야의 체와 상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경문의 내용을 반야의 본질과 수행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당나라 규기(窺基) 스님(632~682), <금강반야경찬술>

규기 스님은 현장삼장을 도와 역경사업에 힘썼다. <금강반야경찬술>은 나집이 번역한 <금강경본>에 대한 주석서이다. <금강반야경찬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론의 인연생기(因緣生起)를 드러내고, 둘째는 언제 누가 번역했는가를 설명하며, 셋째는 경문의 본문을 판별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 길장(吉藏) 스님, <금강반야경소>

<금강반야경소>는 무착의 18주, 천친의 27단의, 소명태자의 32분과 등 다른 분과설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나름대로 분과를 정립하고, 주석을 달아 전체를 10종으로 분별한 특징을 지닌다.

 # 명나라 종륵(宗勒)과 여기(如玘) 스님, <금강반야바라밀경주해>

<금강반야바라밀경주해>는 전체의 성격으로 보면 황제의 명을 받아 선사의 주지 종륵과 강사의 주지 여기의 두 스님이 언구를 따라 간단명료하게 주석을 붙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주석적이지도 않고 소위 선문답적이지도 않아 누구나 비교적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수준으로 엮어져 있다.

또한 내용으로는 구마라습 번역본을 텍스트로 삼았으나, 후에 소명태자가 분과한 형식을 배제했다. 그러면서도 이전의 이주분과의 형식은 철저하게 답습하고 있다.

 # 원효 스님, <금강삼매경론>

원효 스님이 686년(신라 신문왕 6)에 북량(北凉) 때에 번역된 <금강삼매경>에 주석을 붙인 책이다. 원효 스님이 주석서를 내기 이전에는 이 경전에 대한 논급이 없었다.

<송고승전(宋高僧傳)> 제4권 <원효전>에는 논을 저술하게 된 연기(緣起)를 밝히고 있다. 원래 원효 스님은 소(疏)라고 해 <삼국유사>에도 <삼매경소>로 돼 있으나, 당나라의 번경 삼장들이 소를 논(論)이라고 불러, 중국 · 한국 · 일본인들이 찬술한 불교서적 중에서 논이라고 이름 붙여진 유일한 책이다.

윤희조 · 이자랑 · 김양순씨 선정

제7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



윤희조



이자랑



김양순

한국 불교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소장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가 '제7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박사논문부문에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 대학 전임강사를, 번역부문에는 이자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양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를 선정했다.

윤희조 전임강사는 '불교에서 실재와 언어적 표현의 문제'를 주제로 초기불교부터 초기중관까지의 자성과 이제를 다뤘다. 그는 주제논문에서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언어를 활용하는 불교 언어관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검토했다.

심사위원단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상좌부, 유부, 중론의 언어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불교적 언어관의 의미와 시대별 특성, 차이 등을 밝힌 훌륭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또 심사위원단은 "인도 초 · 중기 불교문헌을 통해 언어와 실재의 상관관계라는 철학적인 문제를 거시적 사상사적 관점에서 탐색했다는 점이 돋보인다"며 "그간 일본과 서구 등 세계학계의 연구성과를 상당부분 충실하게 반영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논변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자랑 전임연구원은 동경대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의 대저인 <열반경의 연구>를 번역했다. 심사위원단은 "이자랑 연구원의 '열반경의 연구-대승경전의 연구방법시론'은 시모다의 저서가 갖는 대승불교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연결 될 수 있다"며 "시모다 교수의 저서는 대승불전 연구의 방법론과 그 구체적 연구사례의 모범을 제시한 책으로 우리말로 번역됐을 경우 국내학계에 미칠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는 통일신라 초기의 유식학 문헌인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을 번역했다.

심사위원단은 "이 문헌은 한국 및 동아시아 유식학 사상사의 흐름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문헌"이라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한국불교전서역주사업의 역주 대상 도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조 전임강사는 서울대에서 철학과 서양 철학을 전공했으며,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불교학석 · 박사를 졸업했다. 윤 전임강사는 이번 논문 외에도 '산냐(saññā)의 양가적 의미' '초기 경전에 나타난 망상(Papañca)에 대한 일고찰' '중론에서의 언어의 문제'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동국대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한 이자랑 전임연구원은 도쿄대에서 인도철학 · 불교학 석 · 박사를 졸업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은 '율장에 근거한 조계종단 징계 제도의 개선 방향' '빨리율에 나타난 수행자의 생활상' 등이 있으며 역술한 저서로는 <인도불교의 변천><나를 일깨우는 계율이야기>가 있다.

한국외대에서 영어학과를 전공한 김양순 박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철학을 석 · 박사 졸업했으며 '무량수경연의술문찬(無量壽經連義術文贊)의 사십팔원(四十八願)'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불교학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뜻있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중심이 돼 2006년 설립된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이번 선정된 연구자들에게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에 500만원, 불교관련 번역 지원에 1인당 1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불교학과 상담심리' 세미나

중앙승가대학원 21일 본관 대강당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학과 상담심리'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기불교와 상담심리(미산 스님) △만다라와 심리치료(종석 스님) △사회복지와 상담심리(보각 스님) △유식 30송과 심리치료:트랜스퍼스널 심리치료적 접근(서광 스님) △명상심리치료(인경 스님)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나은 기자

국보 4건 · 보물 23건 정보 수록

문화재청 '2009 국보 · 보물 지정보고서' 발간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09년 지정한 국보 · 보물의 지정내용을 한데 엮어 <2009 국보 · 보물 지정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보 · 보물 지정에 관한 내용은 그간 문화재청 홈페이지나 문화재연감을 통해 소개돼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부사진 등의 자료가 지정문화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각 소장기관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번에 책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에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등 국보 4건과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영천 은해사 청동북 및 북걸이,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성주 선석사영산회괘불탱,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삼불회도 등 보물 23건의 유형문화재가 수록됐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해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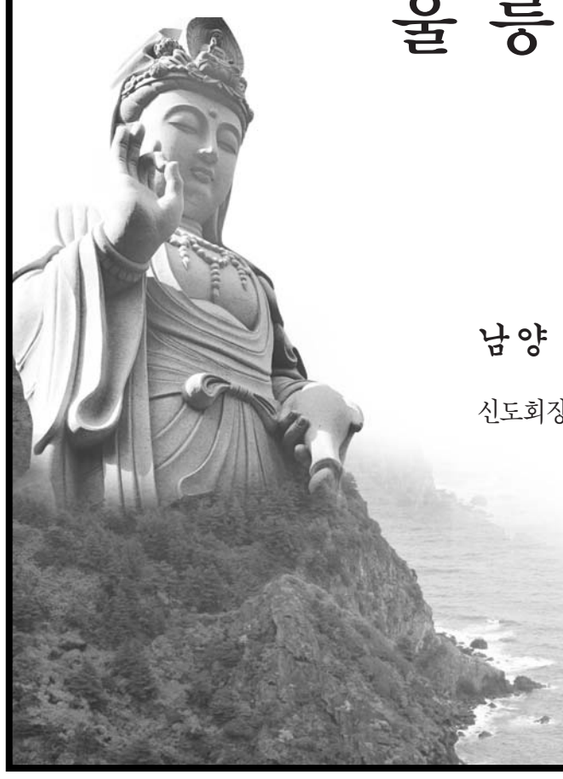
주지 정비룡

남양 성인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도일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장엄합시다

"꽃이되어요" 운동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네 가지 행동지침인
'보시'와 '애어'와 '이행'과 '동사'라는 사섭법(四攝法)을
구체적인 실천수행 덕목으로 합니다.

우리 조계사 사부대중은 조계사 도심포교 100년을 맞이하여
불교와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꽃피우고자
"꽃이되어요" 생활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 우리는 행복을 다른이와 나눔으로써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布施]
-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愛語]
-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 이롭게함으로써 자비의 씨앗을 뿌려나가겠습니다. [利行]
- 우리는 이웃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同事]

꽃이되어요 (It's like a flower)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Tel 02-732-2183 Fax 02-720-1391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부처님이란 단어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교에는 경전이 많이 있는데 이 경전을 쓰신 분이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A 부처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과거세에 부처님을 과거불(過去佛)이라고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석가모니불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는 모두 7분의 부처님들이 계셨다고 해서 과거칠불이라고 말합니다.

그 7분은 비바시불(毘婆尸佛), 시기불(尸棄佛), 비사부불(毘舍浮佛), 구류손불(拘留孫佛),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가섭불(迦葉佛),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석가모니불은 인류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현상에 탐착함으로써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행은 무상해 모든 것은 변해 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며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려 애를 씁니다. 부처님은 제법의 실상을 알고 탐착을 일으키지 않아야 번뇌가 끝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번뇌망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보편적으로 108번뇌라고 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번뇌로 인해 여러 가지 악업이 발생되므로 그로 인해 얽혀지는 업장을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하여 번뇌 아닌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행의 목적은 사성제중에서 멸성제이니 탐진치의 소멸, 갈애의 소멸 등 궁극적으로는 해탈 열반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만의 예절과 의례가 있습니다. 출가를 해서 절에 들어와 절생활을 익히는 행자 생활에서부터 스님이 되기까지의 여러 과정과 절차가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님이 되는 의례로 삭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번뇌와 집착을 버리라는 의식입니다.

Q 번뇌란 무엇인가요? 불교는 무엇을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꼭 머리를 깎아야 행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A 번뇌란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견해와 습기를 말합니다. 나쁜 마음의 작용이지요. 다시 말해 고민 걱정이나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거나 성가시게 하는 작용입니다.

근원적인 번뇌에는 삼독이 있는데 탐(貪), 진(瞋), 치(癡)라는 세 가지의 마음의 독을 말합니다. 즉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말합니다.

번뇌가 생기는 원인을 부처님은 제법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이란 단어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쓰였나요?
과거 칠불 이르나 역사상 실제인물은 석가모니 뿐

역사상 이 땅에 실제 계셨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불교의 경전들은 모두가 석가모니불에 의해 직접 설해졌거나 또는 설해지는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을 제외한 여섯 부처님들은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됐으며, 다시 말하자면 전설적인 부처님들입니다.

경전에는 이외에도 석가모니불에게 장차 부처님이 되리라고 수기(授記)를 한 것으로 유명한 연등불(燃燈佛)을 위시하여 24분의 과거세 부처님을 드는 경우도 있고 53분을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나 부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올바른 신행에 중요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범어로 '수트라'라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설한 교법과 그것을 기록한 불교 성전을 말합니다.

경전은 석가모니불의 말씀을 부처님 열반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편찬하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항상 부처님 곁에서 설법을 들으며 기억하고 있다가 경전을 편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내담자께서 경전을 쓰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대필한 제자가 궁금하신 것이 아니라면,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인 만큼 경전을 쓰신 분은 부처님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행복해요

행복법당 탐방

초록별장난감도서관


권영순씨는 구미지역에 최초로 '장난감도서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군위군에서 손자와 함께 방문했다.

"우리 아이가 3살인데 영유아 특성상 장난감에 대한 싫증이 잦고, 평소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복지관에 장난감 도서관이 생겨 저렴한 가격에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어 너무 기뻐요."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은 9월 구미지역 최초로 지역 내 영유아를 위한 '초록별 장난감도서관'을 열었다.

장난감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초록별 장난감도서관'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0~7세 영·유아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2만원을 내면 품목당 500~3000원에 6박7일 동안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김미영(38·구미시)씨는 "다양한 장난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없고 아이도 아주 좋아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방문한다"고 말했다.

문을 연지 한 달 밖에 안됐지만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 수는 점점 늘고 있다. 하루 평균 대여건수는 20~30건인데 주말이 되면 배로 늘어난다.

이보희 사회복지사는 "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200명으로 제한된다. 벌써 회원등록은 꽉 찼으며 대기자수도 30여 명이 넘었다"며 "주변 지역에 장난감 도서관이 이곳 한곳뿐이라 김천, 군위 등 타 지역에서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북 군위에서 손자를 데리고 온 권영순(63)씨는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직접 듣고 찾아왔다. 17개월 된 손자가 집에만 있으면 많이 답답해하는데 여기서 노는 걸 매우 좋아한다"며 "이런 시설이 얼른 군위군에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난감의 소독관리는 철저하다. 자원봉사 인력이 상주해 반납된 장난감을 일일이 확인하고 소독작업을 한다.

'초록별 장난감도서관'은 일반가정은 물론 구미지역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북한이주민·장애인 세대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서관에는 별도의 놀이공간이 있어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가능한 놀이 방법의 습득 △영상동화 제작-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상동화 만들기 △놀잇감제작 콘테스트-자녀를 위한 놀잇감 만들기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아동들의 나이와 성장과정을 고려해 장난감을 마련했다. 목록을 보면 인지학습놀이영역, 신체놀이영역, 퍼즐블럭놀이영역 등 다양하게 구성돼있다.

최은경 사회복지사는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장난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 또한 놀이치료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심리·정서적 발달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놀이를 통해 부모, 자녀간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오종합복지관은 1999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아 11년째 운영 중이다.

도리사를 운영지원사찰로 하는 복지관은 관장 법등 스님(조계종 호계원장·도리사 주지)과 김휘연 부관장, 그리고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자비·희망·참여'의 사명을 갖고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금오복지관 구미지역 최초 장남감도서관 오픈
'자비·희망·참여' 사명… 가족 상담 기능 강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부터 '행복한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행복한 지역사회(Happy Family Happy Community)'를 슬로건으로 삼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복지관은 △가족복지서비스(다문화센터,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아동가족상담센터, 이혼가족지원센터) △교육문화서비스(평생교육센터, 어르신예술봉사단, 독거 남성노인 청춘요리사) △지역사회보호서비스(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동목욕센터, 이동세탁센터) △지역사회조직서비스(구미다문화공동체방송) △자활지원서비스(노인일자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등을 제공해 복지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휘연 부관장은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 구미지역에는 다문화가족이 많다. 복지관은 금오다문화지원센터와 아동가족상담센터, 이혼가족센터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가족 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관은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관은 아동복지시설인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학대아동그룹홈, 구미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공동체내에서의 보호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돕고 있다.

김휘연 부관장은 "현재 구미지역은 북한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올해 복지관은 북한이주민의 원만한 한국생활 정착과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북한이주민 사회적기업 준비단'을 운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11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 각 사업들을 별도의 시설로 확대·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 복지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김 부관장은 "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시행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도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주민의 종합복지센터, 지역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거점센터로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054)458-0230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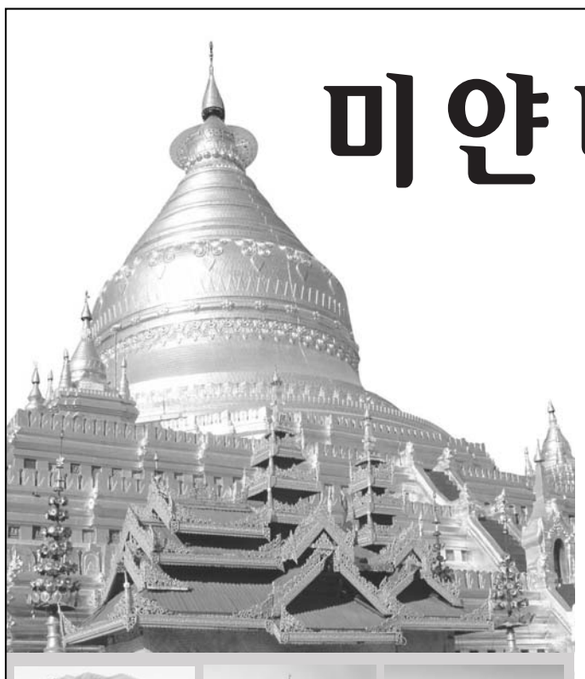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미얀마성지순례



황금의 불국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은 풍요한 미얀마!

생활속에 살아있는 불교를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미얀마로 불자여러분을, 미얀마 현지에서
수행사신 대적원 각목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성지순례코저
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선근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곤의 까바예 파고다에서 거행되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정대식은
불자님께 큰 환희심을 드리게 될것입니다.



▶ 일 정 : 2010년 12월 7일 ~ 12월 14일 (8일)
▶ 1인당 동참경비 : 1,980,000(예상가격)

제 1일 10:30 부산출발 / 하노이 도착, 시내관광
제 2일 번롱지대 짱안 문화 탐방후 하노이 출발/양곤도착
제 3일 세계문화유산 바간지역 성지순례
제 4일 부처님 재세시 왕림하신 만달레이
제 5일 인레의 헤호 호수 수상족 생활상 관광
제 6일 양곤시내 파고다 순례 및 마하시 선원 참배
제 7일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 황금대탑 순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정대법회 후 사이공 경유
제 8일 06:50분 김해공항 도착 해산

세계 근본불교 수행도량 대적원 ☎ 051) 853 - 7854
주 관 : (주) 진성관광 여행사 ☎ 051) 465 - 3333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⑧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3)- 법당·승당·고원(庫院)

선정·지혜 정혜쌍수로 나아가다

법당은 정법의 안목과 지혜 정립시키는 공간

약산 선사 "법당 무너지고 있다" 외치고 입적

법당(法堂)

법당은 선종사원의 주지(방장)가 정법을 설하는 곳으로, 승당(僧堂, 禪堂)과 함께 총림에서는 가장 중요한 당우이다.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볼 때 거의 비슷하지만 법당이 더 중요하다.

송대 대혜선사(1089-1163)에 의하여 화두참구의 간화선이 생기기 전까지 선원의 공부법은 주로 주지의 법문을 참구했다. 주지의 설법을 듣고 좌선당에서 그것을 사유했는데, 법문 속에는 '구자무불성화(狗子無佛性話)'를 비롯한 많은 고칙(古則)과 공안이 등장했다. 또 공안에 대한 방장의 착어(着語, 촌평)는 살아있는 활구법문인 동시에 현성공안(現成公案)이었다. 사유는 물론 직관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법당(설법당)은 설법을 통하여 수행자들에게 정법의 안목과 지혜를 정립시키는 공간이다. 차별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일원적인 사고, 곧 공(空)·불이(不二)·일여(一如)의 입장에 설 것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다. 그리고 선당은 좌선을 통하여 그것을 체득, 체화시키는 공간이다.

선종사원의 당우 가운데 가장 핵심인 두 당우의 의미를 헤아려 본다면, 법당은 설법을 통해서 지혜를 증장시키는 곳이요, 승당(좌선당)은 사유를 통해서 선정(禪定)을 닦는 곳이다. 곧 보조국사(1158-1210)가 강조했던 정혜쌍수(定慧雙修)로서 이것이 중국 선불교의 공부 방법이었다. 따라서 선종사찰의 가람 구성은 이와 같이 철저한 수행체계 아래에서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선원에는 설법당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상당법어나 소참법문이 없다. 좌선만 중시하고 지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큰 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지혜작용은 없고 부처의 행위를 흉내만 내고 있는 격이니, 결국 반쪽 수행, 미완의 수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7당가람의 구성에서 보면 법당(설법당)은 불전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다. 송대에 이르러 선불교와 국가,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가 확대되면서 불전의 역할이 법당을 앞지르게 되었지만, 본래 선종가람에서는 불전보다는 법당이 가장 중심이고 그 다음엔 선당이었다. 이 두 당우는 선정과 지혜의 조화를 통해서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

법당의 전신은 강당이다. 여타 종파에서는 '강당'이라고 불렀는데, 선불교에서는 '법당'이라고 개칭한 것이다. 강당이나 법당이나 그게 그건데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름이나 명칭은 한 사물의 성격과 역할·기능을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강당'이라고 하면 교학적인 이미지가 풍기지만, '법당'이라고 하면 정법을 설하는 곳이라는 뜻으로서 선적(禪的)인 이미지가 풍긴다. 선불교는 이와 같이 당우의 명칭에서부터 그 지향하는 바를 확연히 드러냈는데 그것은 기존의 불교와는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법당의 규모는 크다. 남송 당시 천동사와 영은사 법당은 전면 5칸, 측면 3칸으로서 불전과 같다. 그리고 5산 가운데 가장 컸던 경산사는 법당이 중각(重閣, 2층)이었는데, 이것은 붓다 당시에 있었던 중각강당(重閣講堂)을 모방한 것이다. 이후에는 대부분 법당을 2층으로 지었는데 위층은 소참법문이나 접견실로 쓰다가 후대에 와서는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각이 되었다.

장로종색 선사가 편찬한 <선원청규>에는 '조참석취(朝參夕聚)'라는 말이 종종 나온다. 아침에는 조참법문(朝參法門)을 듣고, 저녁에는 만참법문(晩參, 夕聚)을 들었다는 뜻인데,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선종사찰의 대중들은 하루 두 번 조석으로 모여 주지의 법문을 들었다. 따라서 주지는 선지(禪旨)도 밝아야 하지만 교학적으로도 박학다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방장의 법문은 곧 불언(佛言)으로서 선수행자들에게는 지표였다.

법당을 우리나라에서는 대웅전(불전)과 혼칭한다. 오히려 대웅전보다는 법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대웅전 혹은 불전을 법당이라고 잘못 부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13개 종파가 선교양종으로 통폐합되어 선종의 특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대웅전에서 설법을 하게 되면서 혼칭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당과 대웅전은 의미와 역할이 전혀 다르고 인도, 중국불교에서도 확연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혼칭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당의 편액명은 사찰에 따라서 다른데 정직하게 '법당(法堂)'이라고 쓰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밖에 대각당(大覺堂)·무외당(無畏堂)·선법당(善法堂)·무설당(無說堂)·장광설(長廣舌)이라고 쓰는 곳도 있다. 의미상에서 다양하게 쓴 것인데 대각당·무외당·선법당은 평범한데, 장광설(長廣舌)과 무설당(無說堂)은 의미도 특이하지만 대칭되는 명칭이다. 장광설은 매우 해학적인 명칭이고 무설당은 매우 선적(禪的)인데 이 3자 속에는 '무설무문(無說無聞)이 진설진문(眞說眞聞)'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설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것이 진정한 설법이요, 진정한 들음'이라는 말인데, 매우 역설적이다. 법문을 했다는 의식도, 그리고 들었다는 의식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공(空)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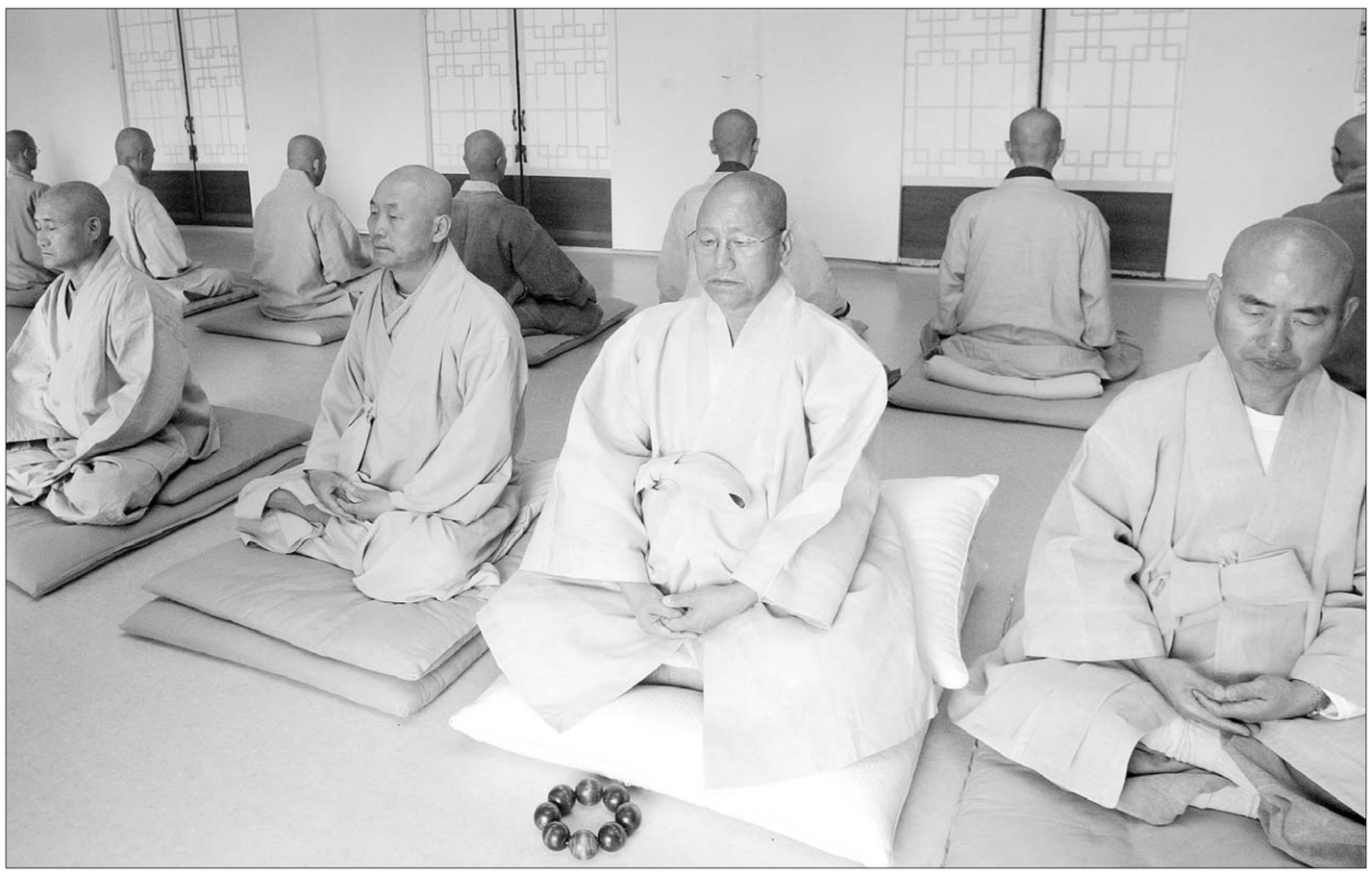
자신의 입적을 법당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 비유한 선화(禪話)가 있다. 당 중기 백장선사(720-814)와 비슷한 시기에 약산유엄(藥山惟儼, 751-834)선사가 있었다. 그는 17세에 출가하여 당시 중국선의 양대 산맥인 석두희천과 마조선사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대오(大悟)한 선승이다. 당시 84세로서 곧 입적을 눈앞에 두고 있던 유엄선사가 어느 날 큰 목소리로 대중들을 향하여 외쳤다.

"저기, 법당이 무너져 가고 있다(法堂倒). 법당이 무너져 가고 있다(法堂倒)!"

선당에서 좌선하고 있던 대중들은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앞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너도나도 법당을 받칠 기둥을 가지고 달려왔다. 이 때 약산선사가 손을 들고 대중들을 향하여 말했다.

"그대들은 나의 뜻을 모르고 있구나."

말을 마치고는 이내 입적했다고 한다. <전등록> 14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약산 유엄선사가 '저기, 법당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외친 그 법당은 목조로 세워져 있는 법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 법당은 곧 입적할 것을 예고하는 약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수행자들을 위한 선사의 마지막 설법이었다.



법당은 지혜를 증장시키는 곳이요, 승당(좌선당)은 선정을 닦는 곳이다. 사진은 2008년 동화사 금당선원 하안거 결제한 스님들이 좌선하는 모습.

법당이 가람의 중심 그 다음이 선당

〈法堂〉 〈禪堂〉

승당(僧堂)

승당은 선승들이 좌선, 참선하는 공간으로서 가람배치도를 놓고 보면 불전 좌측에 있다. 선당(禪堂)·좌선당·운당(雲堂)·선불장(選佛場)이라고도 하는데, 승당에서는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양·취침 등도 모두 여기서 해결한다. 따라서 승당은 수행자들의 생활공간 겸 수행공간이다. 선원의 7당가람 가운데서 규모면에서 가장 큰 건물이다. 남송시대 5산10찰도를 보면 굉지정각 선사가 주석했던 천동사 대승당은 약 3000㎡(890평)로서 조계사 법당(514㎡, 155.7평)의 약 6배나 된다. 한 승당이 이렇게 컸으니, 천 명의 대중이 살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승당의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앞 회(연재 3회)에서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고원(庫院)

고원은 주방과 창고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당우인데, 고리(庫裏)·고당(庫堂)·고주(庫廚)라고 하며, 7당가람 가운데 하나로서 위치는 불전 우측에 있다. 고원 앞에는 운판(雲版)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세 번 치면 공양을 알리는 소리이다. 모든 수행자들은 이 운판소리와 함께 방선(放禪, 좌선을 마침)하고 공양할 채비를 한다.

고원을 향적주(香積廚)·향적당(一堂)·향적실(一室)이라고도 한다. 5산 가운데 하나인 항주 영은사 가람배치도에는 '고당'이라고 표기해 놓고 또 옆에 '향적주(一廚)'라고 쓰고 있다. '향적' '향적주'라는 말은 <유마경> 향적품에 나오는 말로서 '향반(香飯)' 즉 향기 가득한 음식을 가리킨다. 이것이 사찰의 부엌(주방)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주방·음식을 만드는 의미에서는 향적주(香積廚)·향적당(一堂)이 더 어울리는 이름이다.

스토리. 유마거사와 문수보살 사이에 벌어질 사상초유의 법담을 듣기 위하여 유마거사의 처소에는 수만 명의 대중들이 모여들었다. 이윽고 공양 때가 되자 사리불은 내심 "정오가 다 되어 가는데 이 많은 대중들의 점심 공양을 어찌할까" 하고 걱정하였다. 사리불의 걱정을 눈치 챈 유마거사는 "법문을 듣고 있는데 먹을 것을 걱정하시다니요" 하고는 이윽고 신통력으로 향적 부처님이 계시는 향적국(一國)을 보여 주었다. 그곳에는 갖가지 향기 나는 음식이 가득 쌓여 있었다.

유마거사는 화보살(化菩薩)을 향적 부처님께 보내 공양 한 그릇을 얻어 수만 그릇으로 변화·변식(變食)시켜서 대중들에게 공양했다. 이것을 '향반(香飯)' 또는 '향적반(香積飯)'이라고 한다. 향기 나는 공양, 향기 가득한 공양(음식)이라는 뜻이다. 한 그릇의 공양으로 어떻게 수만 명이 모두 공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법으로 공양(법공양)했기 때문이다.

'향적주'라는 말은 추사의 시에도 나온다. 차 만드는 솜씨가 남달랐던 만허 스님이 어느 날 추사 선생에게 차를 보냈는데, 추사 선생은 그 차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편지에 "향적주 가운데 이보다 더 묘미 나는 음식은 없을 것"이라고 써 보내고 있다.

선종사원에서 쓰는 말은 의미가 심오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사원의 주방을 '향적주'라고 하고 그 음식(공양)을 '향반(香飯)'이라고 한 것은 명작 중에서도 명작이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향반'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요, 깨달음을 성취하는 에너지로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가슴 충만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고원은 규모로서는 승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크게 짓는다. 주방과 창고를 겸하기 때문인데, 몇 백 명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공양을 장만하자면 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방에서는 대중들을 위한 공양을 만들고 창고에는 쌀이나 식자재 등을 보관한다. 고원의 책임자를 전좌(典座)라 하고, 그 밑에 밥 짓는 소임으로서 공두(供頭)·공양주(供養主) 그리고 반찬 만드는 소임인 채공(菜供) 등이 있다.

고원에는 주방을 지켜주는 신장(神將)으로 위타천신(사천왕의 부하신)을 모신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을 모신다. 중국 사찰은 고원 외에도 신장으로 위타천신을 많이 모신다. 심지어는 사천왕문에도 한 가운데 위타천을 모시는데, 이것은 당나라 때 위타천신이 도선율사에게 귀의한 이후 모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선종이 한 때 율종사원에 의탁해 있었던 영향 때문이다. 향적당·향적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쓰는 곳이 꽤 많다. 백양사와 금산사 공양처의 이름이 향적당이고, 계룡산 동학사는 향적실이다. 또 향적당을 오관료(五觀寮)라고도 하는데, 공양할 때 오관게를 외우기 때문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청나라 소주에 살았던 심복의 자서전 <부생육기>엔 "원각사에 갔더니 가운데는 불전이 있고 위에는 방장이 있다. 그리고 왼쪽에는 주방인 향적주가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정혜쌍수(定慧雙修) 정(定)은 선정으로서 정신 통일, 혜(慧)는 지혜.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는다는 말로서 특히 고려시대 보조국사(1158-1210)가 강조했던 수행법이다. 참선만 하고 지혜를 닦지(배우지) 않으면 사마(邪魔)를 분별하기 어렵고, 가는 방향과 목표를 알 수 없게 된다. 또 지혜만 닦으면 실천수행이 결여된다. 선정으로 번뇌의 장애(煩惱障)를 치유하고, 지혜로 분별심의 장애(所知障)를 치유한다. 따라서 정혜쌍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선불교의 수행철학도 정혜쌍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성공안(現成公案) 현재의 일, 또는 현재 방장의 법어가 그대로 화두가 되고 공안이 된다는 말. 옛 공안으로는 서암화상의 '주인공'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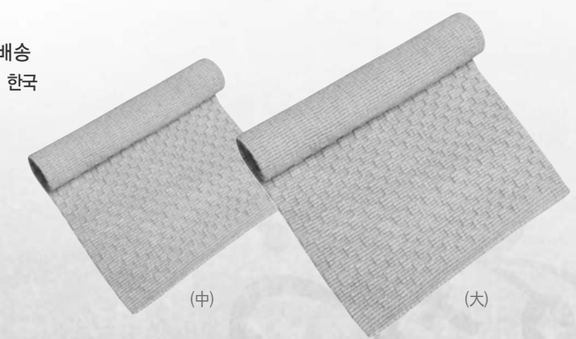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 전제품 무료배송
◇ 제조·원산지 : 한국


(中) (大)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공통) : 요가, 매트,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태고총림 선암사 복지봉사 시작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는 봉사단을 결성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봉사에 나선다.

10월 10일 선암사 대웅전에서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총무원장 인공 스님, 경담 스님과 봉사단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암사복지봉사단' 결성식을 개최했다. 봉사단은 결성식을 통해 지역 봉사센터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순천지역 독거노인과의 결연식과 봉사단 발대식이 같이 진행됐다. 선암사 봉사단은 지난 7월 첫 기획회의를 통해 3개월 간의 준비위 구성, 정관 및 세칙, 집행부 구성 등 창단준비를 통해 이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담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웃들에게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고자 모인 선암사복지봉사단 창단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산 1332주년 기념 개산문예대제전 범어사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가 개산 1332주년을 맞아 '부처님 마음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주제로 10월 9~10일 개산문예대제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사 개산문예대제전에서는 '범어사' 대각사상연구원 학술대회를 열고 백용성 스님의 민족정신을 재조명했다. 특히 범어사는 개산문예대전을 부산광역시와 함께 아동 · 청소년 문화사업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사경, 전통문화체험, 불교 사진 전시, 자비의 쌀 나누기 등을 진행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우리음악 · 문화 한번보세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우리음악 페스티벌'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우리 음악페스티벌이 10월 9~10일 광주 충장로에서 개최됐다.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 나라의 전통과 음악을 광주 시민에게 알리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대표 이주성)와 해뜨는다문화가정복지센터(센터장 정선, 대광사 주지)는 10월 9~10일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우리음악 페스티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이주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와 300여 광주시민들이 함께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 나라의 전통음악과 전통춤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아난다 씨와 비발라 씨의 네팔 전통춤, 베트남 근로자인 태흥 씨가 가수 안재욱의 '친구'를 열창해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또 태국 웅파 가족들의 전통춤과 캄보디아인 멘타 씨와 속하이 씨가 캄보디아 노래를 선보였다. 행사는 광주시민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들이 강강술래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를 진행한 이주성 대표는 "외국인들 간의 교류와 광주시민들의 따뜻한 정과 삶에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힘든 일터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에서 어우러진 공동체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일해 고국에 돌아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홍법사 아미타대불 점안 법요식


부산 홍법사는 10월 10일 아미타대불 점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아미타대불의 높이는 21m에 이른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개산 7주년을 기념해 홍법사 대웅보전 아미타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아미타불은 불자들의 염원과 기도 원력으로 조성된 것으로 2009년 5월에 착공해 10월 10일 점안됐다. 아미타대불은 18개월 동안 주조명장 청담 송창일 거사에 의해 제작됐다. 대불은 높이 21m로 불두 높이 5m, 귀 높이 3m, 손 높이 5m, 좌대 높이 3m에 이른다.

점안대법회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 대만 불광산사 주지 심정 스님,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설동근 부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점안 대법회에 이어 만일염불 기도 입재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아픈 역사 돌아보는 교육의 장

군산 동국사 창건 100주년 기념 사진 촬영대회


9일 열린 동국사 사진촬영대회에 동자승과 동국사 신도들이 모델로 나섰다. 모델이 일본유카다 복장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술국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가 100주년을 맞았다. 동국사는 10월 9일 100주년 기념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진 촬영대회는 약 100여 명의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동참해 열기를 더해갔다. 일본양식의 동국사는 외세의 침략이 없기를 기원하며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국사 총무 종걸 스님은 "동국사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에 앞서 일본에 동화시키고, 왜색불교를 한국에 전파해 불교가 식민통치수단으로 쓰였던 역사적 교훈을 간직한 사찰이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행사에 대해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동국사의 모습을 통해 민족의 애환을 배우고 조국의 발전된 모습과 어린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사진 촬영대회의 입상작은 26일 동국사 창건 기념 법회에서 시상한다. 사진전에는 과거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된다. 수상작에는 각각 30만원, 20만원 등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시아 불교국가 지원 및 교류



부산불교 및 재가불자단체가 국제교류를 통한 위상 강화에 나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와 부산불교연합회신도회(회장 설동근)은 10월 1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제1회 아시아 불교국가 지원 및 교류' 의류 전달식을 진행했다.

첫 지원국가인 몽골에는 의류 외 1만 여점의 물품이 전달했다, 지원물품은 은산해운항공사의 도움으로 10월 25일 몽골의 우부르항가이에 도착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지난 4월 아시아 불교국가 헌옷 및 의류 지원 사업을 함께 주최하기로 결의했다. 물품은 부산불교연합회신도회 사무실, 수영구 노인복지관, 보리수마을 백광, 양정청소년 수련관에서 협조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무등산 장불재 산신제 광주동구불교협의회



광주지역 스님들이 광주시민과 무등산을 찾는 모든 이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봉행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혜명)는 무등산관리사무소(소장 박인종)와 공동으로 10월 11일 무등산 장불재에서 '제2회 무등산 산신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동원사 주지 지각 스님, 수덕사 주지 혜명 스님, 지형원 광주전남신도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삼광사 사찰음식 문화 한마당



부산 삼광사(주지 류화산)는 10월 8일 '몸과 마음을 살리는 자연의 선물'을 주제로 제2회 천태종 사찰음식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삼광사는 불교의 정신문화를 알리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행사는 조각 전시전 '돌에 새긴 명상' 사진 특별전 '빛으로 그린 마음' 공연 '사찰음식에 흥을 불어넣다' 등 문화 한마당과 함께 사찰음식 체험 및 시식, 차공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11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11월 11일 매주(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텐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국제포교사단은 10월 10일 선화예술고등학교에서 제2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서는 축구, 배구, 오자미 넣기, 줄다리기, 400m 이어달리기,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다. 태국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전통 북과 응원막대, 응원수술 등을 들고 축구 응원을 하고 있다.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이어달리기 마지막 바퀴에서 역전으로 우승을 차지한 캄보디아 선수가 두 손을 번쩍 들어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국기를 들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에 기쁨이 묻어있다.



승점을 얻자 환호하는 참가자들 모습.

서로 다른 이가 모여 'HAPPY Together'

"둥~둥둥둥~!"

응원소리가 심상찮다. 전통 북에 응원막대, 응원수술 등이 총출동됐다. 부부젤라 저리가라다. 마이크 스피커에서 나오는 진행요원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선수들은 웬만한 국가대표 못지않은 기량을 뽐냈다. 응원단들은 방방 뛰고 고래고래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느라 정신없었다.

"아니에요. @#$%^&**&^% $$~~&%$$##@!!+|@#$@@"

심판결과가 부당하다 싶을 때는 모국어에 한국어를 섞은 말들이 본능적으로 나왔다. 선수들은 네팔, 방글라데시,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심판은 조계종 국제포교사들이었다. 심판도 정확한 이해는 안 되지만 상황파악을 하고 호루라기를 "삐~"하고 불었다. 승패보다는 경기 자체를 즐기면 그만이었다.

10월 10일, 하늘은 유난히 높고 눈부셨다. 알록달록 가벼운 색의 가을 옷을 입은 단풍이 바람에 팔랑팔랑 나부꼈다. 제2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진행된 선화예술고등학교에는 640여 이주노동자와 국제포교사단, 8개 국가의 스님들이 모였다. 8개 나라의 이주민들은 말도 얼굴색도 조금씩 달랐다. 불교국가답게 8개 나라별 스님의 옷도 진한 홍색, 주황색, 노란색, 먹물색으로 달랐지만 가을 단풍처럼 어울렸다.

오랜만에 힘들었던 한국 생활도 잊고 한국어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동포들과 대화를 나누고 근질근질했던 몸도 풀었다. 스님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니 든든했다. 말 한마디에 웃음폭탄 한번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경기는 축구, 배구, 오자미 넣기, 줄다리기, 400m 이어달리기,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들 경기가 재미있어 눈을 떼어놓지 못하고 보곤 했다.

이날 행사에는 트란 트롱 도안 주한 베트남 대사와 내외가 참석해 이주민을 격려했다. 대사는 "한국사회 일원으로 종교, 언어,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큼 한국법을 준수해 한국사회에도 기여하고 수익도 얻어가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줬다.

지난 해 이주민체육대회는 신종플루로 취소됐었다. 이때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들이었다. 대부분이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체육대회를 할 계기가 마련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제포교사(회장 박상필)가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더 좋은 이유는 같은 부처님 제자라는 점이다.

경기도 양주 마하보디사 스리랑카 와치사라 스님은 "이주민 노동자들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행사에 관심이 많다. 불자 한국인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좋아한다"고 전했다. 마하보디사에서는 2008년 1회 대회에서 30여 명이 참가했는데 올해는 부쩍 늘어 100여 이주민과 함께 왔다. 이어 스님은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모두 재미있고 행복해 하고 있다"며 "1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해준 국제포교사회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8개국 640여 이주노동자와 스님들 한자리에

조계종 국제포교사단 심판으로 나서 함께 호흡

14기 성민선 국제포교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실감한다. 8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인들이 어울려 하나가 되는 것을 보니 전폭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며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HAPPY WORLD TOGETHER' 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 한국 사회 저변에서 큰 기여를 하기도 하고 모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알리기도 하는 친구들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9일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자승)은 종로구, 영등포구,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실무책임자협의회와 함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회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 다문화가족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결혼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글쓰기대회 및 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팜티퀸화(베트남, 거주 5년)는 작품 낭독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팜티퀸화 씨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 내려갔다.

"내가 왜 이 먼 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냐고 하며 후회하고 이혼까지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생활이 그토록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중략> 어느 날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다가 결혼 후 저에게 '자기야 사랑해~'라고 쓴 편지를 보고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도, 그녀의 글을 듣던 참가자들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상품으로 받은 항공권으로 베트남에 가서 친정 식구와 함께 여행을 가겠다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국내 이주민 인구 120만 명 시대. 이들은 한국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노동자들이고, 한 가정의 어머니들이었다.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네가 있다는 선지식의 말이 아니어도 좋았다. 가을 단풍처럼 어우러진 색은 또 다른 색을 연출하고 있었다.

글=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 제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공예양초



① 밀납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③ 악쑥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④ 악쑥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⑤ 밀납 PC컵 초 5.5ϕ×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ϕ×18cm



한복밀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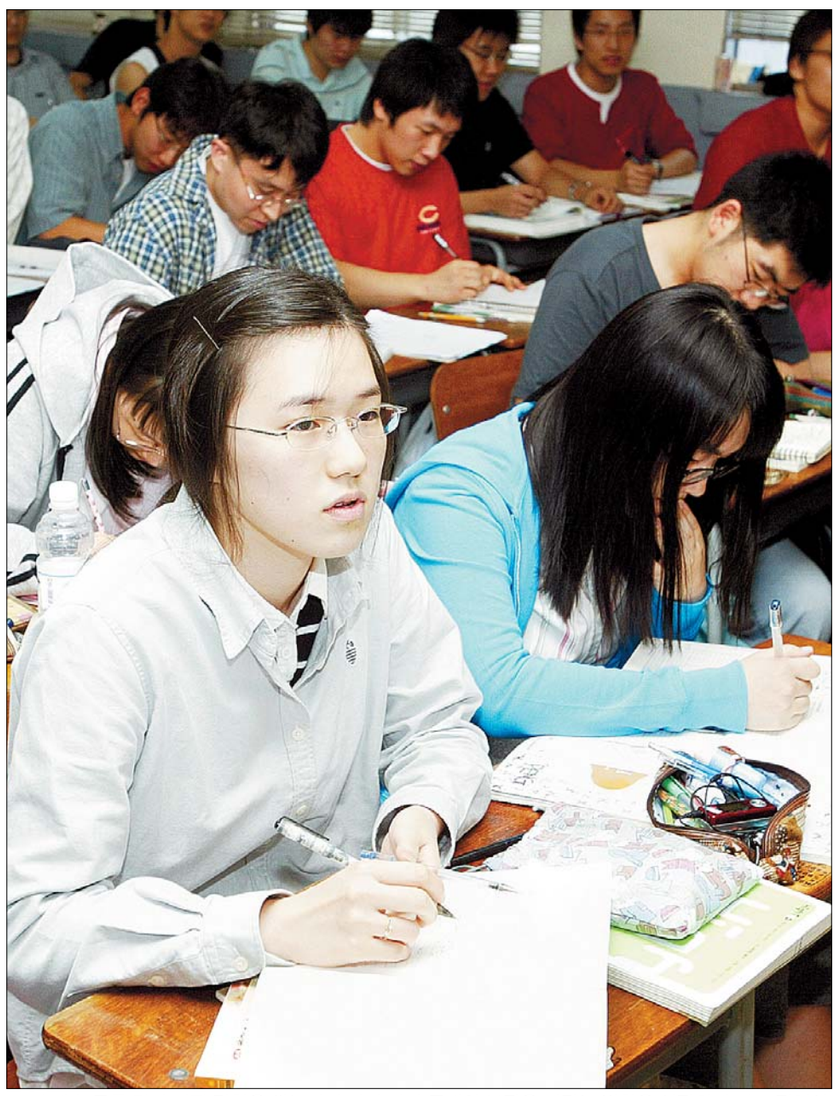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10대 때 '미래의 나' 만들어져

누구나 그렇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10대의 모습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내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절 금오 선생님을 따라 다니면서 어린마음에 막연하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선(禪)공부를 접하게 됐고, 의료봉사활동에 동참해 하는 일이라고는 봉사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재롱떠는 일 밖에 없었다. 나도 모르게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일은 가슴 뿌듯하다는 것을 훈습하던 과정이었던 것 같다. 결국 40대를 바라보는 있는 지금 나는 선(禪)사상 덕분에 밥 먹고 살고 있고,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두 가지가 모두 나의 10대 때 성립됐던 것이다.


10대 때 누구를 만나 어떤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윤리관, 직업관, 성정체성 등이 함께 형성된다.

미래 계획이나 관계와의 융화 점점 더 어려워져
'너' 아닌 '나 중심' 대화법으로 10대와 소통해야

인간이 살아가는 시기 중 어느 한 시절이 안 소중하겠냐마는 이처럼 10대 때 누구를 만나,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떠한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정체성이 성립될 때 가장 중요한 '윤리관'과 '직업관' '성정체성' 등이 함께 형성된다. 내적으로 자신의 기본 윤리와 사람들과의 소통 상생 문제, 사회와 여러 관계들과의 융화 문제 등이 윤리관으로 형성된다. 자신의 미래 계획과 꿈의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이 직업관과 관계가 있고, 부모 등을 통해 비추어진 이성의 모습에서 자신의 역할과 성 정체성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성립해 가는 10대는 어느 시기보다 가장 중요한 때이며, 한 사람의 미래와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수 있다.

병원에서 가끔 만나게 되는 요즘 10대들의 특징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관계와의 융화에 있어서는 점점 더 어려지는 것만 같다. 미성숙함과 반대로 '성(性)'과 자신의 '득(得)'에 대한 조숙함이 함께 양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과연 누구의 작품인가. 지금 사회는 아이들이 극도의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공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의 아이 뒤에는 항상 문제의 부모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늘 좋은 얘기와 밝고 긍정적인 것들만 보고 자라도 부족한 시기에 늘 TV만 켜면 끔찍하고 괴로운 소식들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쇼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관계와의 소통이 형성되기도 전에 내가 아닌 남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주입식 교육과 경쟁이 조장돼 있다. 따뜻한 촉감과 유대를 느끼기도 전에 빠르고 편리한 클릭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으며, 인간의 희비애락 또한 인터넷 세상에서 느끼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See me, Click me"로 대표 되어지는 '퍼블리즌(Publizen)' 세대가 되는 것이다. 퍼블리즌은 공개(publicity)와 시민(citizen)을 합성한 신조어로 자신의 사생활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여기저기 퍼뜨리는 신종 인간 세태를 말하는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게임기, 컴퓨터, 휴대전화, 웹캠을 벗하며 자랐고, 일상사를 태연하게 블로그 등에 올리면서 자신을 알리고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 여기에는 부끄럽거나 파렴치함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무조건 유명해지고 싶은 심리, 특이하게 보이거나 튀고 싶은 영웅심리가 섞여 나온다.

그렇다면 이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행복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0대들이 가장 바라는 욕구 중 하나는 바로 '인정' 받고 싶은 심리이다. 이에 반해 상담 오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보여 주는 형태는 "안돼, 하지마"란 말이다. "움직이지마, 떠들지마, 발떨지마, 거짓말하지마, 집중하고 선생님 말 잘 들어…" 등 쉴 새 없이 아이들을 제재하고, 아이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강요한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더욱 하기 싫어지고, 반항심, 불평, 분노, 욕구불만 등의 심리가 증대 된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도 안된다하는 부정적 자아의 형성이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양분은 "할 수 있고, 넌 지금 잘하고 있고, 참으로 기특한 일을 했다,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할 수 있니?" 등의 칭찬과 인정이다. 칭찬과 인정을 먹고 자란 이들의 정체성은 밝고, 긍정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이타심 넘치는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성숙하고 심신이 평온한 아이들의 정체성은 이 나라의 건강한 미래와 건강한 한 나라의 정체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아이들과의 대화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I Message"인데 너 중심의 대화법에서 벗어나 '나 중심'의 대화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닌 "너가 그렇게 하니 내가 속상하구나"로, "너는 왜 그렇게 밖에 안 되니?"가 아닌 "( )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정말 기쁠 거 같아", 또는 "제발 컴퓨터 좀 고만해라"는 "( )가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컴퓨터만 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다. 덧붙여 칭찬과 인정을 첨부한다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나의 말 한마디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이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와 사회 국가 차원의 앞날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박지숙 소장
이경제한방 & 카루나마인드힐링연구소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10대 인터뷰

"윗세대만의 문화 말할 때 세대차"

부모세대와 세대차이 가장 큰 이범학군



일렉기타에 관심이 많은 이범학(고1 · 사진)군은 20 · 30대 누나들의 귀여움을 받고 자란 집안의 막내다.

이군은 "윗사람을 대할 때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군은 각종 매체나 TV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자신이 공유하지 못했던 윗세대들만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집에서 누나들끼리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전 아이돌 그룹 멤버를 얘기할 때 그들과 같이 공유할 수 없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HOT, 젝스키스 등 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을 모르는 세대들이 있다는 것에 세월의 흐름을 느끼듯, 이군도 자신이 모르는 유명인사를 이야기 할 때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어느 세대이건 들었을 말이다. 이군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들이 그래요. '우리 때는 교실에 에어컨도 없이 수업했어' 라고요. 지금은 옛날보다 살기 편해졌다고 하죠. 우리 세대더러 편하게 산다고 많이 해요. 시대를 잘 타고 났다고요. 체벌문제도 그렇고요. 학교 체벌이 금지됐잖아요."

이군은 20대에게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군은 "20대에게는 친구와는 또 다른 편안함이 있는 것 같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래보다 몇 년을 더 살았으니 조언도 잘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좀 더 배려해주는 편하게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세대(40~50대)와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낀다는 이군은 "부모님들은 이것저것 제재를 많이 하지 않나. 밤늦게 친구들이랑 돌아다녀도 문제없는데 부모님이 못하게 할 때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군은 "하지만 윗세대들과 친해지려고 노력도 많이 한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일부러 말을 더 걸기도 한다"며 자신만의 세대차이 극복 노하우를 들려줬다.

또 이군은 "좀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져야한다. 대화를 통해 세대 간의 생각을 들어보고 서로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대화 많아야 세대 간 에너지 활성화"

50~60대가 가장 폐쇄적이라 느끼는 김혜빈양



고등학교 2학년인 김혜빈(사진)양은 학업,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외모에도 관심 많은 평범한 여고생이다.

김양은 "남학생들과 단순한 친구관계로 지내도 어른들은 이성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주의를 줄 때가 있다. 남녀가 유별해야한다는 식의 말을 들을 때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말했다.

10대들은 자신의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여고생들은 특히 그렇다. 김양은 "우리 또래들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따로 있다. 우리들은 보기 좋은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입는 건데 친구들과 놀러 나갈 때 부모님이 옷차림에 대해 '치마가 좀 짧다' '붙는바지는 몸에 좋지 않다'는 식으로 지적하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며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가끔은 당황스럽거나 불쾌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김양은 50~60대들이 가장 폐쇄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50~60대 분들은 권위적이기도 하고 공감대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기보다 훈계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양은 이러한 어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과 10대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김양은 부모님이 40대여서인지 40대랑은 친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려면 말문을 닫고 사는 것 보다 서로 속시원히 털고 이야기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 치료!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이 책은…

- 천연 아미노산의 작용, 만병의 근원인 과산화지질의 퇴치법, 현대병 예방과 회복을 주도하는 미네랄 삼총사, 섹스 미네랄 아연과 차력 미네랄 유기동, 여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백옥 같은 살결 만드는 비법, 효소의 작용,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 당본초, 중약대사전, 본초습유, 식물 명실도고, 영남채약록, 광서중약지, 본초추진, 호남 약물지 등에 기록되어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치료하는 귀한 약초로 쓰이고 있는 삼백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체내 환경을 정비하고 항염 · 항균 · 분해 작용을 하며 세포를 부활시키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효소의 질병 치료 기전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 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문의 070.7804.5358

스스로 말하고, 뜻 세우고, 행하게 하라

나는 사회학 전공으로 학 ·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그곳 대학에서 1년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4년 반째 문화인류학, 여성학, 사회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직 시간강사다. 이 원고 청탁을 받고 걱정도 됐었다. 그러나 나는 학부모, 특히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됐을 다양한 어머니들을 2001~2003년 사이에 만나 자녀교육과 관련한 그들의 '어머니되기'의 고충에 대해 박사학위논문을 썼고, 이후 한국 대학생들의 스펙쌓기와 해외연수 경험에 대한 연구를 따로 또 함께 해왔다. 강의를 하다 보니 20대와 접한 경험이 많고 그들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아 흔쾌히 원고청탁 수락을 했다.

내게 주어진 과제는 20대와 만나면서 또 각종 연구나 분석에 기반 해 20대의 의식과 정체성을 분석하고 20대들을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안해 달라는 것이다. 짧은 지면상 고민 끝에 그 순서를 좀 바꾸어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20대의 의식과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대가 제 목소리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틈 · 기회 · 여유를 줘라. 둘째, 자기 세대의 경험과 관점의 틀 속에 20대를 집어넣어 재단하고 판단하고 다그치지 마라(또는 과잉보호하지 마라). 셋째, 20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넘어져 실패해보고, 스스로 일어나보고, 스스로 성공의 길을 찾도록 옆에서 인내를 가지고 그저 지켜보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특히 그들의 부모이자 선생인 40대와 50대 성인들) 그렇게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살아온 한국의 시대적 맥락과 상황이 달랐고 그들의 경험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자신의 삶에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그것은 당신들의 삶이니 그들에게 그 잣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들이 살고 있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으니까 말이다. 한국사회의 변화는 한국을 연구하는 모든 외국학자들이 거의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빠르다.

그렇다면 2010년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20대의 의식은 어떤 것일까?

그들은 "부자되세요!"가 연말연시 인사가 돼버린 물질만능주의 사회, 끊임없이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라는 정언명령 속에서 불가능한 자유를 꿈꾸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바람 속에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담론의 홍수에 휩쓸려 어디로 가야할지 헤매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고민할 틈은커녕, 그들이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또는 왜 부모들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할 틈과 여유를 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20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안락하게 해 주는 다양한 상품(명품 분유부터 영어유치원,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하다)속에서 적어도 부모세대나 선생세대에 비해 자신들의 별다른 노력 없이도 풍족한 생활을 해왔다. 그러니 가끔 똑똑한 학생들은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 또는 왜 성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귀차니즘'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좀 덜(?) 똑똑한 학생들은 대부분 '왜?'라는 질문을 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저 '스펙쌓기'에 몰두하느라 너무 바쁘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고시원에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와 국내, 국외 봉사활동을 하느라, 또 친구들과 술도 먹고 클럽도 가야하기에 때론 강의실에서 지쳐 엎드려 자고 있다. 난 가끔 화가 나다가도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깨울 수가 없다. 내가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인터뷰했던 몇몇 초등교사, 고등교사들이 자기 수업에서 자는 학생들에게 느꼈던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듯이 말이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취업스터디, 자격증 취득 등 스펙쌓기에 열 올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의 홍수에 휩쓸려 어디로 가야할지 헤매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사진은 동국대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자료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

제 목소리 낼 기회 주고 과잉보호 말고 인내로 지켜봐라

20대만의 정체성 · 색깔을 직접 부딪쳐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성은?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 '88만원세대'는 386세대 아니 486세대의 경제학자이자 내 지인이기도 한 우석훈 교수가 펴낸 <88만원 세대>에서 우 교수가 20대들에게 붙인 이름일 뿐이다. 또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그들을 '위기의 청년세대'라 불렀고, 함께 출구를 찾고 싶어했다(송호근 외, 2010, <위기의 청년세대: 출구를 찾다>). 난 그들이 20대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그들의 선생이라는 것을 안다. 바로 나처럼.

소통과 공감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정체성, 그들만의 색깔은 그들이 직접 부딪쳐 만들어가야만 한다. 속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이다. 그래서 올초 고려대를 자퇴한 김예슬양과 그녀를 둘러싼 20대들의 논쟁, 그리고 최근 나온 한 권의 책 제목, <이십대 전반전: 불안을 강요하는 세상에 던지는 옐로카드>이 나를 설레게 한다. 그 노란 책표지에는 '못된 경쟁 강제하는 세상에 경고! 함께 살아가는 후반전을 상상하라! 등록금, 집세, 취업부터 국적, 정치에 대한 고민까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들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적혀있다.

그래서 그 20대의 목소리가 난 반갑고 고맙다. 마치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처럼,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에 이제 난 귀를 쫑긋 새울 것이다. 그들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씩씩하게 혼자서 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난 마치 서툰 해리포터처럼, 왕초보 소크라테스 문화인류학 강사로서 선언한다, 20대가 스스로 말하고,
뜻을 세우고, 행하게 하라고!



박소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20대 인터뷰

"여성의 역할 강조할 때 세대차이"

다른 환경서 자란 세대의 차이는 당연하다는 유정현씨



무역회사에서 근무 중인 유정현(26 · 사진)씨는 "젊을 때 많은 일 도전하고 싶은데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40~50대 부모님 세대들과 차이를 느낀다"고 말했다.

유 씨는 "30~40대의 사람들은 나보다 연령대가 높지만 서로 비슷한 현대적 생활방식을 누리며 성장해왔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50대 이상의 중년층 세대들과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관심사가 다르거나 동일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지역, 빈부, 남녀, 이념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지에 대해 유씨는 "몇 십 년 동안 전쟁과 가난, 급속한 경제성장 등을 통해 각 세대가 서로 다른 시대와 성장 환경으로부터 느끼는 차이점들이 공감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생활 3년 차인 유씨는 30~40대를 가장 많이 접한다. 유씨는 "이들은 중년층 이상의 세대와 20대의 중간자적 세대이기 때문에 양쪽 세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는 세대 차이를 느낄 수록 세대 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씨는 "세대 차이를 느낄 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역동적인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대화 · 충돌 · 갈등을 겪은 후에 비로소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경청하는 자세'가 세대 간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유씨는 "자신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겪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별 말아야"

세대간 차이는 에너지라는 이재민씨



종종 연장자와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아랫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야…"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이재민(23 · 대학생 · 사진)씨는 타 세대들과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한다.

이씨는 "세대가 다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겪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이를 줄 때 불쾌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20대들은 주로 취업, 진로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이씨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에는 30대와 대화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한다. 그는 "특히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나서 대학 복학 후 졸업하면 어느덧 30대 초입에 들어선다. 그러기에 조언을 많이 구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40~50대와 세대차이를 느낀다는 이재민씨는 그들과 심각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야기 주제를 정치 · 경제 · 사상으로 이끌어 내지 않는다. 특히 이 세 가지는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 대립되기 쉬운 주제이기에 삼가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세대 간 차이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씨는 "세대 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서로 이질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해 서로간의 득이 될 경우는 에너지로 비유해도 좋을 듯싶다"고 했다.

또한 이씨는 다른 세대들이 20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씨는 "특히 진로문제에 '이것은 아니다 저것을 해야 한다'는 말보다는 같이 들어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선택하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호국법화경 사경봉안 독송기도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지혜도량 · 자비도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는 오는 10월 23일 그간 불자님들께서 정성으로 쓰신 법화경 사경을 탑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인도불교의 중흥은 물론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부처님의 4대성지를 복원하고 불교도의 품으로 되찾아 오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도 마하보디 쏘싸이어티 사무총장 스님의 초청법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녕과 불교중흥을 발원하는 이 성스러운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국가와 민족의 화합을 기원합시다.

회주 석 도 림 · 일백만 법화행자 일동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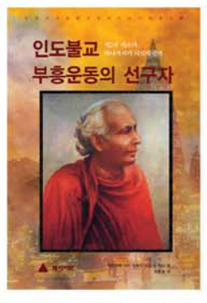
일시 : 2554년 10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장소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288-2, 전화 041-552-9666~8)

※서울 **법화정사** 문의처 : 02-928-1331

인도불교 부흥운동의 선구자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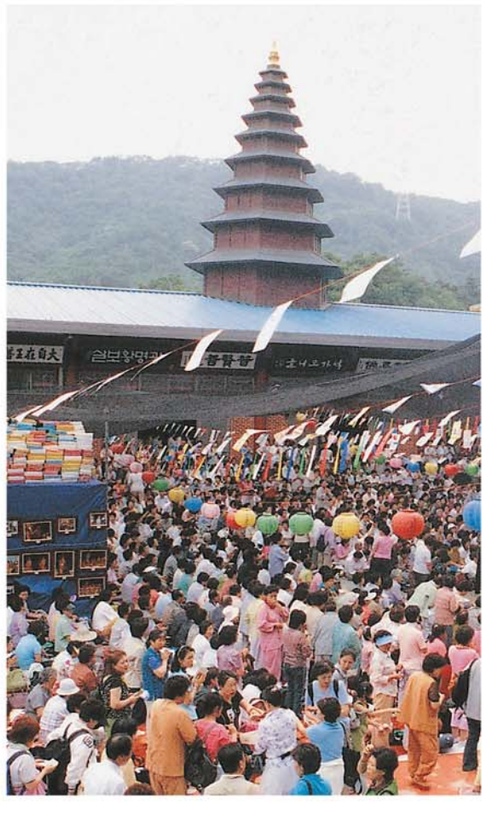
조준호 역, 신국판, 552쪽, 불사리탑 刊, 값 20,000원

인도불교 부흥운동의 선구자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의 전기가 한글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가 서려있던 위대한 성지들이 타 종교인들에 의해 훼손되고 버려졌을 때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이 성지들을 불교도의 품으로 되찾아오고, 그분의 가르침이 잊혀졌던 인도땅에 다시 한번 불법의 씨앗을 싹트게 했던 다르마팔라.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한 위대한 인간의 치열했던 삶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의 평생에 걸친 염원이었던 불교부흥운동의 횃불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불기 2554년 10월 23일 회주 석 도 림 · 일백만 법화행자 일동 합장



세대 간을 소통하게 하는 열쇠세대

30대, 그들은 누구인가?

8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대통령직선제 실시로 시민주권시대를 열게 되는 정치적 발전을 이룬다. 당시 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열리며 전쟁과 기아로 허덕이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평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신흥개발도상국가로서의 '코리아 브랜드'를 세계만방에 처음 알리게 된다.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탄생에 주목하게 된다. 바로 지금의 30대, 즉 'X세대'(65~76년에 태어난 세대)라고 불린 세대다. 이들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응원하며 중·고등학교시절을 보냈고, 대학에서는 군사정권에 항거한 선배들의 민주화 투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불평·반항의식을 가졌으며 문화적으로는 개성을 중시하는 성격을 지닌다.

30대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 배경에는 민주화라는 정치적 발전과 핵가족화, 고도성장, 대중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 등이 있다. 30대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특징으로는 군사정권과 민주정권을 모두 경험한 세대다. 우선 선배들의 민주화투쟁과 공권력 충돌의 산물인 최루탄 가스냄새를 알고 있는 세대이다.

둘째, 사회적 특징으로는 핵가족화를 처음 경험하기 시작한 세대이다.

셋째, 경제적 특징으로는 어린 시절 컬라TV로 상징화되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스포츠 등 여가·취미생활을 경험한 세대이다. 예를 들어 야구, 축구 등이 프로로 전환되고 TV를 통해 이를 보며 응원하는 등 지금의 다양한 스포츠 팀 서포터스의 기초를 10대 시절부터 경험했다.

넷째, 교육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안정된 의무정규교육(초등학교~고등학교)의 중심에 있었으며 유치원의 대중화를 처음으로 경험한 세대이다.

다섯째, 환경적 특징으로는 이제는 우리나라 발전에 독배가 되어버린 부동산 신화의 시작을 알린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동네가 상전벽해가 되는 어린 시절을 경험한 세대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는 그들은 어린 시절에 퍼스널 컴퓨터(PC)를 처음으로 다루던 세대이다. 처음 MS도스체계가 등장해 컴퓨터 활용을 학원에서 배웠고 이후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을 통한 네트워크 온라인의 세계를 경험했다.

이 가상현실 속에서 정치, 역사뿐만이 아니라 만화, 게임, 연예계, 음악 등의 문화적 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취미에 따라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다양한 기존의 압박 속에서 새로움을 찾기를 갈망하던 세대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도 비판한다. 실제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았지만 기성세대가 가진 편견으로 해소하지 못한다.

40대의 그늘과 20대의 도전 앞에서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외국의 소설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지녀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X세대인 30대는 지금 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그들의 모습은 민주화의 경험을 하지 못한 일명 Y세대와 그 것을 경험한 기성세대의 중간에 끼어 있는 '낀세대'다.


문화적풍요로움 속에 민주화투쟁을 보며자란 30대는 사회 아젠다 형성에 적극 나서는 새로운 시대의 주축이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불평·반항의식을 가졌으며 문화적으로는 개성을 중시하는 성격

그들은 2000년대 초반에 정치적으로도 변모한다.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일등공신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지금의 30대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은 개인주의적이면서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저 없이 자신을 버리고 그곳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세상변화에 민감하며 그것을 자신발전에 접목시키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스스로가 중요한 위치에 서기 보다는 그 역할에 만족하고 묵묵히 일을 해내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아마 486세대라는 현 사회변화의 주도세력과 N세대와 Y세대라는 신진 네트워크 세대와의 사이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채팅이나 소위 외계어 사용에 서투르며 전화 문자메시지등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 면으로 보면 분명 앞선 세대와 비슷한 모습이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빨리 습득하는데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30대를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 이해하는 연결고리를 가진 유일한 세대로 주목받게 하는 요인이다.

그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지만 기성 사회에 적응하고 그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자체 네트워크를 확대해가고 있다. 과거 정치적으로 시민의식의 제고는 투쟁과 계몽이었다면 이들의 방식은 토론을 통한 논의와 협력 및 소통이다.

최근 공정사회와 정의가 주목받고 있다. 예로 최근 벌어진 외무부 공무원 채용 사건, 타블로 사태, MC몽 사태가 중심에도 그들이 있다. 이는 왜 공정하지 못한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사회에 던진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에는 과거에는 내세우기 힘들었던 공정과 정의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빠른 정보력을 기반으로 빨리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고 이슈화에 성공한다(스마트 폰의 트위터와 팔로우가 그 절절한 예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집단화가 가능하게 한다.

그들은 보수적이면서도 평화와 통일을 고민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한 세대로 비춰진다. 또 선배세대의 부동산 투자 등 사회적 흐름에 동참했지만 점차 소외되고 이젠 재산증식에 대한 꿈을 잃고 앞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자신들은 공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대부분 비슷한 세대였지만 사교육에 미친 지금, 자식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세대이다. 게다가 앞으로 노인세대의 증가와 통일세 등의 신설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사익이 환수당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 보다는 민주화투쟁과 희망을 모르고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 풍요롭게 부모님의 보호아래 현재 소비세대의 주역이 된 세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라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배워오고 경험한 것들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차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는 과거세대의 물리적 방법이 아닌 그들만의 정신적이면서 고도화된 방식인 문화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해결과 우리 사회 발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세대는 낀세대로 소통의 열쇠를 지고 있는 30대라고 생각한다.



조성배
사회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

30대 인터뷰

다양한 문화와 개성을 가진 세대

손동대 씨 "가치관 맞게 사는지 돌아봐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30대들을 이해해 주세요"

한국 청년 불자들을 이끄는 대한불교청년회에서 총무부장과 대의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손동대 씨(33).

손 씨는 윗세대들이 30대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손 씨는 "아무래도 윗세대보다 여러 문화 활동을 하며 자랐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젊은 세대를 바라 볼 때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잣대만을 가지고 현상을 판단할 때 세대 차이를 많이 느껴요."

손 씨는 "특히 50~60대 분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갇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또 어려운 시절을 겪은 자부심으로 젊은 세대들은 고생을모른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씨는 이어 "사회가 풍요로워져 젊은 세대들이 고생을 모른다면 요즘 아이들은 행복해야 하는데 골목길에서 놀지도, 흙길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정말 불행하게 산다. 공부에 치여 고생하고, 취업 갈은 여러 문제로 고민한다"고 말했다.



손 씨는 20~40대의 사람들은 성장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대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보다 자립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씨는 "최근 많은 청년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어른들에게 기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불교계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지위가 없음에도 원력 하나로 활동하는 40대 이상의 분들을 보며 느낀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손 씨는 "30대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에 얼마나 맞게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대 형성이 우선

양선영 씨 "주입식 아닌 설명조 대화가 필요"

"세대는 나이가 아닌 무엇을 공감하느냐에서 갈려요"

10년 넘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선영 씨(31)는 각종 법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자주 만난다.

"요즘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요. 주입식으로 말하면 틀린 부분을 지적해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 씨는 "요즘 10대들과 어린아이들은 이전 세대들과 달리 형제 없이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발언권이 세다. 또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자기만의 가치관을 이미 형성한다"고 말했다.

양 씨는 자신이 어렸을 때와 달리 레크리에이션 행사에서 10대들이 윗 세대들의 말에 반박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레크리에이션 행사에서 1조에서 6조까지 있었는데 6조부터 저녁식사하자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밥을 먹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점심때는 1조에서 먼저 먹었으니 이렇게 하자고 설명하자 더 잘 따르더군요."



양 씨는 이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어린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양선영 씨는 레크리에이션 강습회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양 씨는 "강사 분들의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까지 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레크리에이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만나기 때문에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어울린다"고 소개했다.

양 씨는 "서로 공감하는 것이 있다면 나이 대를 떠나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지혜 · 불안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이



386 · 486으로 불리는 40대는 사회변화의 주역이면서 그 변화로 인한 혼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세대다. 불안한 현실 속에 40대들은 한 가정의 지붕이자 국가의 대들보로 오늘도 힘차게 발딛고있다. 사진은 산악인 엄홍길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등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가족 부양 · 경제적 활동으로 가장 분주한 시기인 동시에 50대 이후의 노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징검다리 세대

누군들 제 나이를 제대로 먹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철이 없단 소리를 들을망정 가능한 한 젊게 보이고 싶어서 애를 쓰는 것이 요사이 세태이다. 예전에는 사람이란 모름지기 나잇값을 해야 한다는 말에 무게가 실렸다면 지금은 너나없이 아주 딴판이다.

철이 없다 못해서 아예 갖가지 의술을 빌려서라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청춘이고자 한다. 아니 청춘처럼 보이고 싶어서 안달을 한다. 그들을 가리키는 미중년이라는 말도 생겼다. 하지만 미중년이라는 말맛은 그 태생적 어원이라 할 미소년이라는 말처럼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이미 '중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탓이다.

40대 중년이라는 외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제아무리 겉치레로 꾸미고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바탕 소재들을 갈아치워봐도 스스로 무시하지 못할 어떤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자기 나이일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나이를 잊고 산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뼛속 깊이 새겨지는 나이테가 있다. 자신의 나이를 긍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이다.

나이 40이 넘으면 사회적인 활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 동안 모아 둔 재산이나 지위, 명성, 업적 등이 있든 없든 간에 모두가 겪는 변화가 있다. 바로 심신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30대에 절정을 이루었던 능력들은 차츰 달라지고 약해져 간다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늘어가는 것도 있다. 바로 마음속 지혜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40대는 '지혜의 10년'이라고 불렀다. 인생 백년을 각각 10년씩 나누어서 생애 주기를 분석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 중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40대야말로 가족부양과 경제적 활동으로 가장 분주한 시기인 동시에 50대 이후의 노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징검다리 세대이기도 하다.

40년을 살아온 만큼 쌓인 인생의 지혜가 완숙되는 시기이지만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로서의 불안감도 높은 시기이다. 요컨대 지혜와 불안이 공존하는 임계점이 40대의 나이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뗏목조차 없이 망망대해 가운데 떠 있는 것과 진배없다고 본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생애 주기 중 어느 한 시기도 고통 없는 때가 없고 언제나 편치 않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저마다 인생에 따라 각자 힘든 시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세대별 통계를 참조하면 40대가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다.

몇 가지 통계 사례를 들어 보자.

먼저 돌연사하는 비율은 40대가 가장 높다.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기도 한 고혈압 환자들 중 40대가 50퍼센트에 가까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노숙자도 40대가 가장 많다.

소음과 환경적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40대가 1위이며, 살림살이는 40대가 가장인 가구의 경우 가장 어렵다. 세대주가 40대인 가정은 가처분소득의 흑자율이 18.1퍼센트에 불과하여 세대별 가구주들 중에서 최하위인데, 가족 구성원이 가장 많은 시기라서 지출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평균 이혼 연령 역시 남자는 44.5세이고 여자 40.7세인데 이 나이는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40대의 나이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가장 많이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더구나 10대와 20대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인데 그들을 잃는 고통은 고스란히 그들의 부모인 40대의 몫이다.

이처럼 몇 가지 통계 수치만 보아도 40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 것인지 짐작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에는 으레 '중년 가장의 위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40대들은 경제적인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간에, 어느 순간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낀다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기력을 잃기도 한다. 자살은 그러한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고 택하는 가장 극단적인 길이다.

지난 달 발표된 2009년의 자살자 통계 가운데 40대 이상의 사망률은 그나마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고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살자 숫자가 전년과 대비하여 19.3퍼센트나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소 추세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더구나 40대만의 사망 원인 통계 가운데서는 자살이 2위를 차지할 만큼 큰 문제이다.

40대는 한 가정의 지붕이자 사회와 나라의 대들보라는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런 40대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임계(臨界) 현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40대는 지혜도 깊어지는 만큼 불안한 생존의 외줄 타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토록 불안하고 위태롭기만 했던 나의 40대 줄타기도 이제 몇 뼘 남지 않았다.



김미숙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40대 인터뷰

아이들 교육문제가 가장 큰 화두

손정숙 씨 "봉사활동으로 세대공감 확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사설 유소년 축구클럽에 지난주 등록시킨 회사원 조모씨(41). 집안 재정 형편이 빠듯하지만 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결심을 굳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손정숙 씨(45)는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에서 40대는 이른바 '386세대'로 우리 사회 변화의 주인공이었지만 그 변화로 인한 혼란을 고스란히 떠안은 세대다. 40대들이 겪고 있는 불안한 현실은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부추겼다. 이는 '기러기 아빠', '슈퍼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손 씨는 "솔직히 자녀 교육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은 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0대인 남편은 무조건적인 지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손 씨는 "위 세대들은 군사정권 하의 교육체제에서 자라 위계질서에 익숙하고 보수적인데 비해 40대 이하 세대는 진보적이어서 오는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손 씨는 이날 30대 엄마들에 비해 뒤쳐진 정보력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그녀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정보 습득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손 씨는 "30대에는 내 집 장만, 육아와 같은 내 문제, 내 주변 문제에만 관심을 쏟았는데 40대가 되며 사회 체계와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40대 중반은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하다. 손 씨는 "퇴직 후 사업을 구상하던 주변 지인들이 점차 나이를 먹으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꽐라'를 아세요?

이세용 씨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하다"



"아이구 보살님! 어서오세요~~~~"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 가면 경내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로 이세용 씨(조계사 종무실장, 43)의 반가운 인사 소리다.

조계사에서 일하는 만큼 이세용 씨는 스님들, 기도하기 위해 오는 40~60대의 사람들과 어울린다. 이 씨는 세대 차이에 느낄 때 이를 이해하고 좋은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씨는 "사실 윗세대와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한다. 50~60대 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에 반해 40대, 그리고 아래 세대들은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것 외에는 외면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젊은 세대들이 사찰 행사에 참여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10~30대 젊은 세대들을 만날 때 신조어를 알지 못해 적응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대 친구들이 '꽐라'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 물어보니, 만취한 상태를 그렇게 부른다고 답했다"며 "또 젊은 불자들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엄청난 속도로 보내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세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하는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서라도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젊은 감각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주인공이 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죠. 세대 간 화합은 그 세대처럼 생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화제의 신간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上권 · 下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재혈이란, 서기어린 땅의 생기가 감돌아 서리는 명당터를 정확히 짚어서 찾아내는 일이다.
● 재혈의 과정과 결과가 곧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학의 핵심과제이고 최종의 목표다.
● 그래서 '심룡3년, 재혈10년'의 대명제가 영원한 의미로 끊임없이 전해온 것이리라.
● '한국의 재혈풍수' 상 · 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많은 사람은 '한국의 재혈풍수'를 왜 주목하는가!
처음 시도된 한 분야의 전문적 질문에 응하는 답은?]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上권 鳳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下권 鳳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새로운 滴天髓 풀이 1 · 2 | 신국판/慧源 羅明祺 지음/각 40,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피해신청 접수안내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해 10 · 27법난 피해스님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피해신청 접수기간
2010. 3. 18 ~ 2011. 12. 31(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나.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 · 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 10 · 27법난의 정의
"10 · 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 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함.

3. 신청인의 자격
가.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사망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4. 신청서 접수처
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1) 직접(방문) 제출 : 일과 시간내 (09:00 ~ 18:00)
2) 우편제출 : 신청기간내 도달
나. 주소 :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각 1부
나. 피해경위서 1부 (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각 1부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 위임장 1부,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①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②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③ 수용자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④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 · 면 · 동장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10 · 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산정

7. 심의 · 결정 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10 · 27법난 자료실」,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 「10 · 27법난 피해자신청접수안내」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02-748-5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27법난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가. 자료범위 : 10 · 27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
나. 방 법 : 전화, 방문 수집, 우편 제출
다. 접수기간 : 2010. 3. 18 ~ 2011. 12. 31(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접 수 처
◆주 소 : (우)140-120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전화번호 : 02)748-5555
마. 활 용 : 향후 건립될 기념관 · 전시관내 전시 및 자료 발간 등
바. 기 타 : 기증서 전달 및 제공자 명명

자기계발 꾸준히 하고 노후준비 철저히



50대는 아직도 부모로서 의무와 책임을 짊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자녀교육과 혼사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 50대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

50대가 살아간 제3공화국은 혼란 · 혼돈 · 독재 · 탄압의 시기

외환위기 겪어… 어느덧 정년 오는데 자녀교육 · 혼사 남아

우리나라 50대의 절반은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이다. 연령으로 환산하면 1955~1960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50~55세에 해당된다. 1960년은 8 · 15광복(1945) 이후 수립됐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이 4 · 19혁명(1960)에 의해 붕괴돼 과도내각이 섰던 시기이다. 그 이듬해 박정희 前 대통령에 의한 5 · 16군사정변(1961)이 일어나 군사정권의 서막을 알리던 시기이기도 하다. 제3공화국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기로 한다하더라도 혼란과 혼돈 그리고 암울했던 독재와 탄압의 시기였음은 분명하다.

50대 중반인 필자의 경우 중학교 시절에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했고 대학시절에는 10 · 26사태(1979)에서 5 · 18민주화운동(1980)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2번이나 휴교를 맞았다. 근 1년을 수업 없이 레포트와 과제물을 제출해 학점을 이수하는 변칙적 학사행정으로 대학 졸업장을 받았던 시기였다. 정부를 비판하면 강제로 군 입대를 해야 했던 시절이었으며 장발로 경찰에 적발되면 가위로 머리카락을 난도질당하던 시절이었고, 경찰이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짧은 여성의 치마길이를 재어 경범죄 여부를 판단하던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요즘처럼 고학력 청년실업이 그리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은행과 같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으며, 대학의 추천에 의해 무시험 전형으로 대기업과 금융권에 쉽게 취업이 가능한 시기였다. 아무튼 군사독재에 의한 암흑기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한참 사회생활을 하던 시기에 88올림픽을 치루면서 사회와 국민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던 것도 사실이고, 많은 국민들이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50대 일부는 소위 말하는 386세대에 포함되기도 해 사회의 개혁을 주도하는 새로운 집단의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50대 후반은 기성세대와 386세대의 중간에 끼어 죽도 밥도 아닌 어중간한 세대로 인식돼가면서 사회 · 정치적 변화를 지켜봐야 했다. 그 후 외환위기 당시 가장 많이 직장에서 해고당해야만 했던 세대이기도 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 둘씩 정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50대의 대부분은 아직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진 못한 세대이기도 하다. 아직 자녀의 교육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혼사를 치루기 시작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직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에는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짊어진 상황에 처해있다.

그와 동시에 아랫세대로부터 불기 시작한 양성평등의 결과로 가부장의 막강했던 권력을 잃고 무능력하고 있으나마나한 아니, 없어도 되는 위치로 전락한 우리나라 아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50대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 법적으로 노인은 만 65세부터이니 노인으로서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50대가 정년을 했거나 정년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사는 우리나라 50대는 노인이 되더라도 일하는 노인이 되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정년을 여러 번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해야만 할 것이다. 한 가지 지식을 가지고 한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다 한번 정년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의 여러 세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수집과 타 세대와의 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한 기법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노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아랫세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50대일 것이다. 우리 50대의 학력수준은 그 이전 세대의 학력수준 보다 월등하게 높다. 현재 60대에 비해 훨씬 좋은 여건 속에서 성장하고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은 일제강점기와 8 · 15광복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었던 세대로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았던 세대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50대부터는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세대이기를 바란다.

행복한 노후생활은 놀고먹으며 여행이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도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50대는 앞으로 30~40년의 여생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앞날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향후 30~40년을 일하지 않고 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행복을 위한 노후 준비를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50대는 남은 여생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세대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세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50대 인터뷰

"젊은층보다 윗세대와 세대차 느껴"

정정숙 주부 "다른 세대의 말 속에서 삶의 지혜 얻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어린 사람들과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에 사는 정정숙(52 · 주부 · 사진)씨는 평소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60대 이상의 윗세대와 세대 차이를 더 많이 느낀다"고 답했다. 아랫세대와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보수적 성향이 짙은 윗세대와의 갈등이 더 크다는 것이다.

"60대 이상의 분들을 만나면 자신들을 너무 우대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비치면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60대 이상의 분들은 저희 부부문제에 대해 자주 간섭하며 잔소리를 합니다. 저도 적지만은 않은 나이여서 이럴 때에는 불쾌한 감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씨는 "60대는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 가끔 그들과 어울릴 때는 답답함을 느낄 때 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거주 지역인과의 이념차이가 더러 생겨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정정숙씨는 이런 세대 차이의 대처법으로 "웬만하면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정 안될 때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편"이라고 답했다.

정씨가 대체로 많이 어울리는 세대는 주로 40대와 60대이다.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40~60대 사이의 가정주부들과 시간을 공유할 기회가 많아서다. 정씨는 그 중에서도 "자신과 비슷한 또래이면서도 친구가 될 수 있는 40대가 가장 어울리기 편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해서 다른 세대의 말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나와 다른 세대일수록 그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세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최신 유행 음악 등으로 공감대 넓혀"

군복무 중인 이성규씨의 세대공감법



현재 군복무 중인 이성규(50 · 사진)씨는 직업의 특성상 자신보다 어린 세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씨는 "주로 20대인 젊은 군장병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가장 편한 세대는 20대지만,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도 20대이다"라고 답했다.

"나이 어린 부하들을 교육시키다 보면 '내가 저 나이 때에는 저러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확실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희 때와는 사고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개인주의 성향도 짙어 군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단체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 군대에서 내 뜻이 그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거나, 공감 형성이 안 될 때에는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들과도 같은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 그들의 편에 서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성규씨는 "20대는 50대에게 없는 활력과 투지, 적극성이 있는 세대여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다시한번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준다"며 "세대 차이를 느껴도 20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여러모로 기분 좋은 자극"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주로 운동이나 최신 유행하는 음악 등을 통해 젊은 군장병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외에 평상시에 이성규씨가 자주 어울리는 세대는 40~50대 연령층이다. 하지만 이씨는 "또래인 40~50대의 연령층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마련"이라며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빈부의 차가 느껴지면 그 속에서도 이념의 차이가 생겨 또래여도 어울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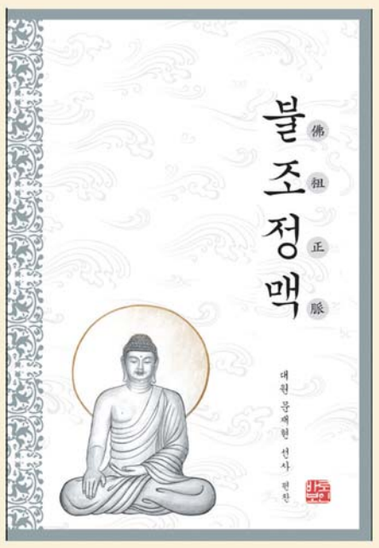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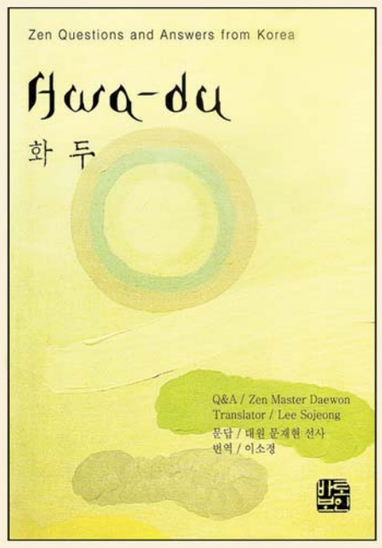


정맥진영과 전법게를 다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불조정맥

한국의 선(禪)을 세계에 드날리는 화 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게(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신간! 화두/Hwa-du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하여 우리말과 함께 실어서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바로보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4년분할상환

고객만족 초절전형 기능 맞춤형
농작물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저온냉장 · 냉동고!!



▲1~20평 까지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주)한진산업 HP 011-673-2623



‘봉사와 회향의 삶’… 해피타임운동

60대는 오랜 삶과 경험에서 형성된 중도적 세계관을 몸으로 체득한 세대이다. 이런 60대가 ‘봉사와 회향의 삶’을 통해 남은 인생을 살면,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을 할 수 있다.

60대가 되려면 우선 환갑이 지나야 한다. 환갑은 60세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의 문화이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60세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20~40세 정도였다. 환갑잔치에서 자손들은 남자는 2배, 여자는 4배를 했다. 두 번 절을 하는 것은 환갑이 지난 사람은 돌아가신 조상과 같다는 의미에서였다. 물론 오늘날은 2배나 1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세로 늘었다. 2020년엔 84세가 된다. 장수를 축하했던 환갑잔치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환갑잔치를 한다고 하면 다들 웃는다. 그래서 조용히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한다. 요즘은 오히려 칠순 또는 팔순잔치가 대세이다. 그러니 이제는 60대는 더 이상 노인 축에 끼지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늘어난 수명이 사회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가족형태가 핵가족화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육비와 교육비는 맞벌이를 하지 않고선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 됐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오늘날의 저출산을 낳게 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9년에 1.15명 이었다. 부모가 자식을 1명만 낳는다는 말이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6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 한다. 수명은 늘어나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다. 놀랄 만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20.8%가 되는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의 대전환이 도래한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05년 현재 25~49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58만 명에서 2050년에 995만 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한다. 반면, 50~64세 생산가능 인구는 706만 명에서 2050년 917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부양부담은 2005년 8명당 1명에서,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했던 과거와는 달리, 60대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는 60대에게 미처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들이닥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1위인 것을 보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살의 원인을 보면 질환과 장애 40.8%, 경제적 어려움 29.3%, 외로움 14.2%, 가정불화 10.4% 등이다. 늙어서 병들어 고생하는 것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다. 나이를 먹을수록 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와 턱

60대는 노인 축에 끼지 못해 고령화사회 새로운 도전 기회

없이 부족한 월 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자살과 함께 황혼파산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족과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정작 자신들의 은퇴 이후의 설계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60대다. 또 한편으로는 황혼이혼과 황혼재혼도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다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노후를 자기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희생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온 것에 대한 반발심리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정들로 보면, 60대는 우리 사회를 뒤흔들만한 역동성을 가진 세대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직장은 은퇴했고, 갈 곳도 마땅치 않으며, 다시 일할 곳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은 60대가 무엇인가를 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얼마간은 이러한 혼란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아직 무언가를 요청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사회적인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가장 먼저 개입해야 할 정부나 시민사회도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사회는 60대가 여전히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앞으로 20년 후면 건강이 허용하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75세까지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60대는 직장에서 체득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경제적 여유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사회에 다시 진입하느냐에 따라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은퇴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봉사와 회향의 삶’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60평생을 살며 자신이 경험하고 익혀왔던 능력과 지식, 시간 또는 금전적 기부, 여기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명상까지 나누는 운동을 하고 있다. 바로 해피타임운동이다. 이것이 처음에는 비경제적 활동에 머물겠지만, 점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봉사와 회향을 통해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면 60대에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0대는 오랜 삶과 경험에서 형성된 중도적 세계관을 몸으로 체득한 세대이다. 이 중도적 세계관은 부처님의 중도적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중도적 가치를 사회화하는데도 60대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하리라 본다. 60대는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을 맡고 가는 동반세대임이 모두에게 인식되기를 바란다.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60대 인터뷰

“여러 세대 공존해 사는 것이 세상”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세대 안타까운 이영녀씨



가정주부인 이영녀(63)씨는 넉넉한 인상만큼이나 “평소 세대 차이를 많이 느껴본 적이 없다”며 넓은 이해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영녀씨도 “가끔 버스에서 내리다가 실수로 어린 학생들과 부딪히면 오히려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된다”며 “이럴 때는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이씨는 웬만하면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넘어가기 일쑤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만 괜찮으면 뭐든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과거에는 타인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 중요시 됐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조금 삭막해져 버린 것 같아 허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영녀씨는 대체적으로 동네 주민센터나 취미활동 등을 통해 만난 40~60대의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편이다. 이씨는 “예전에는 여자들의 사회생활이 보편화되지 않아 외부에서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집안일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아직 힘이 남아 있다고 느낄 때 무엇이라도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보통 여자가 50~60대가 되면 갱년기가 찾아온다. 갱년기가 오면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잃어 가는데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사람을 만나면 생활의 활력도 얻을 수 있어 좋다”고 답했다.

이영녀씨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존해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각자의 생각과 이념을 존중한다면 굳이 세대 차이를 느낄 일도 없다. 다양함 자체를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세대 차이는 시한폭탄, 중재자 필요”

사회 분위기로 세대가 나눠진다는 김태석씨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태석(64)씨는 “요즘 세대 차이는 단순히 나이 보다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세대가 나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구조가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까지 세분화 돼 가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 또한 세분화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각 지역의 말투나, 특산물 외에는 사람 사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닌 좀 더 세분화된 구조에서 사람의 관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씨는 최근 할머니와 어린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지하철 폭행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에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예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람들이 무조건 어린 학생을 잘못했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한 할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을 보면 무조건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상이 지금은 한 사람의 인격이 더 우선시 되야 한다는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 많이 놀랐습니다.”

김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10~20대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따라가기 힘들다”며 “세대 차이를 좁히기 위해 굳이 그들을 이해하려 애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요즘 들어 “30대와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보통 30대가 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 자신이 부모가 되면서 부모의 마음을 진정 이해해 주는 것 같아 30대와의 대화는 편하다는 의견이다.

김태석씨는 “세대 차이는 에너지가 아니라 마치 시한폭탄 같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갈 때 그것을 통합해주는 존재가 있지 않는 한 세대 간의 화합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현지사 소개 그 여섯번째 이야기
- 절터 이야기-

절대계 부처님의 억종무량 大光明이 쏟아지는 빛의 도량

춘천 근교에 위치한 붓다의 성지, 현지궁 현지사에 얽힌 전설같은 진실을 흘린다



◆ 인도의 영축산 영산궁(영산정토)과 대한민국 춘천시의 현지궁(현지사)

‘영산궁’과 ‘현지궁’은 대보살님들이 머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시는 부사의한 해탈세계입니다. 아라한의 삼매로도 볼 수 없는, 하늘세계 위이며 보살이 왕생하는 극락정토까지도 넘은 아주 깊은 차원의 청정 절대계입니다. 남섬부주에는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두 곳의 ‘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 법계에서 가장 깊은 ‘무아 속 절대계(常寂光淨土)’에 계시지만 석가모니부처님은 사바세계 남섬부주 교주이시기에 인도 영축산의 영산궁에 머무십니다. 동시에 현재는 불과 이른 두 제자를 완전히 붓다 만들어 데려가시기 위해 석가모니부처님을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여러 붓다님들, 수많은 성중님들과 함께 이곳 현지사 현지궁에 와 머무십니다. 이곳은 오직 불안을 갖춘 붓다만이 찾을 수 있는 붓다의 세계입니다.

◆그 어느 성자가 알리오? -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도리가 현증되어 있는 곳, 부사의 해탈법계 현지 정토를!!

천태종의 개조 천태지의(天台智顗)는 법화삼매에 들어,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지금도 인도 영축산에 머물며 여전히 설법하고 계신 영산회상을 확인하고 그곳을 영산정토라 불렀습니다. ‘영산궁’과 ‘현지궁’에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보살급 제자들과 수많은 호위 성중들, 시중드는 천녀들이 머뭅니다. 현지사 터 어느 곳에는 밖과 안 벽 사이 한폭의 공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만한 부처님 세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엄경의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도리가 현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불과를 증한 대성자만이 부처님의 궁 안팎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기운과 절대계의 빛이 맞닿는 곳, 현지궁 현지사

산과 강 등의 지형과 지기(地氣)를 근거로 하는 풍수지리상의 명당과 달리 실제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명당이 있습니다. 몇 백년에 한번씩 보살이 태어날 곳에는 정토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겁에 한번 붓다가 출세할 자리는 절대계의 빛이 쏟아집니다. 어느날 깊은 삼매 속에서 부처님께서 현신하셔서 북한강 따라 자리잡은 어느 곳에 인연있는 수행터가 있음을 일러주셨습니다. 어렵사리 북한강 강변의 한 곳을 찾아 부처님께서 지목하신 곳임을 확신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미소로서 답하셨습니다. 이 곳 현지사는 절대계의 빛이 쏟아져 땅의 수승한 기운과 맞닿는 진정한 명당이었습니다..

◆최상의 수행자에게는 상응하는 수행처가 필요하다

11세기 티벳불교 밀교의 전설적 대수행자 미라래빠의 행적을 담은 〈미라래빠의 십만송〉에는 수승한 수행처를 찾기 위한 여정이 여러번에 걸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의 수행에 적합한 수행처를 찾습니다. 지역의 외도신들은 드물게 환대와 함께 불법에 귀의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삿된 형상으로 유혹하고 무시무시한 신통으로 위협하며 자신들의 세력 집단과 함께 각종 무기들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외도 뵌(티벳토속종교)의 사제인 ‘나로뵌충’과는 신통을 겨주어 승리하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띠세설산의 수행처를 얻어냅니다. 자신만의 능력으로 외도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불보살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이렇듯 사바세계 명산의 동굴 등 수행에 적합한 자리에는 이에 걸맞은 천마(하늘 외도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지사의 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현지사 터에 거주하던 가장 높은 하늘 신의 세력과 조우(遭遇)하다

현지사가 자리잡기 전에 이곳 절터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늘신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천마들은 변화술에 능하여 불보살님의 모습으로 현신함은 물론 노인, 호랑이, 구렁이 등으로 순식간에 변하여 수행자를 현혹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천마 스스로는 불보살님들에 견줄바가 못되어, 절대계의 빛도 볼 수 없고 이 터의 가치도 제대로 알 수는 없었지만, 응당 어디에서도 내세울만한 세력과 힘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지사가 자리를 잡자 이 세력들이 일제히 드러나 여러 방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터 자체가 원체 수승한 지기(地氣)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력을 이루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이기에 그 어떤 회유와 설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 땅과의 인연이 다했음을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신들의 하늘(현상계에서 가장 높은 하늘이었음)에 있는 세력까지 모두 동원하여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전상의 마왕 파순이 그러하듯 불을 품고 독을 뿌리며 온갖 무기들을 날렸습니다.

◆붓다의 화광삼매로 외도들을 조복받다

불과를 이루면 열은 선정에서부터 붓다의 대적정 삼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화광삼매는 오직 붓다만이 들 수 있는 삼매로 무력으로 시위하는 외도에게 조복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으로 화광삼매의 힘에 의해 맹렬히 공격하던 외도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불기둥에 휩싸입니다. 외도의 세력들은 크게 당황하고, 이내 대처할 틈도 없이 불의 온도를 높여가자 외도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수천억도까지 서서히 온도를 올리며 불길을 좁혀가자 이내 모든 외도세력이 조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외도들의 조복을 받고 그들의 기와 신통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비록 외도들은 인연이 다하여 떠나야 할 운명이었지만 그들을 위해 전라도 어느 곳에 좋은 터를 내주며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청정 수행도량 현지궁 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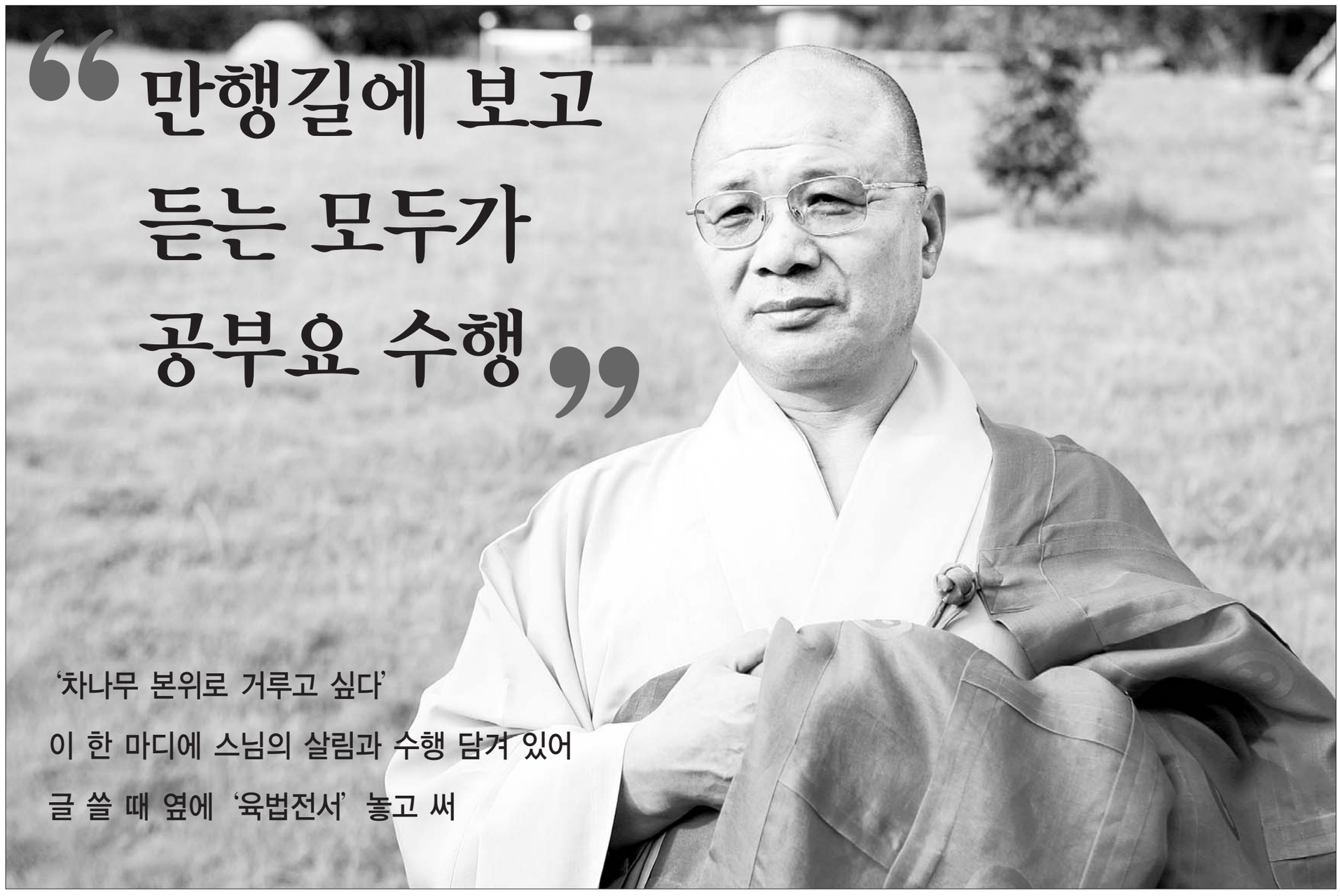
사바세계 대한민국의 현지궁 현지사는 절대계의 무량광명이 쏟아지는 곳이기에 붓다가 탄생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승려와 재가불자들 가운데 많은 보살이 나오고 수많은 아라한들을 낳을 사바세계 최상의 청정 수행도량이라 할만 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기라성 같은 여러 보신의 부처님께서 상주하시기에 그 가치는 남섬부주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모든 불자들의 꿈의 수행처입니다. 가히 미래 만년 불교사의 첫머리를 장식할 영원한 성지라 단언합니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10월 15일 대법회 녹화 후 방영
(QOOK 550, BTV 521, U+108번)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 영산불교 현지사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재는, 부부 각각의 친 · 외가쪽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윗대 무주고혼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를 파악,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을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면 무주고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늘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재입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보림사 주지
지묵 스님



“만행길에 보고 듣는 모두가 공부요 수행”

‘차나무 본위로 거루고 싶다’
이 한 마디에 스님의 살림과 수행 담겨 있어
글 쓸 때 옆에 ‘육법전서’ 놓고 써

장흥 읍내로 들어서자 펼쳐지는 풍광이 다르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어지는 찻길, 그리 높지 않고 야트막한 산 능선, 각지지 않고 구불구불한 논두렁은 눈을 평온하게 해준다. 야트막한 산이 품어 안고 기르는 것 또한 사납지 않고 연약하고 보드라울 것 같다. 직선을 따라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구불구불한 곡선은 급할 것 없다면서 ‘느림’을 일러준다.

보림사는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가지산문을 연중심사찰이다. 도의 선사의 법손인 보조체징(804~880) 스님이 창건하였고 그때 조성한 철조 비로자나불상이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다. 일주문과 사천왕문 그리고 대적광전이 일렬로 나란히 늘어서 있는 가람 배치가 낯설다. 가지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지만 대적광전, 대웅전, 미타전, 명부전, 종각 등 당우들이 툭 트여진 하나의 넓은 공간에 들어서 있다. 도량 곳곳에 단풍나무, 회나무, 느티나무, 후박나무 등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우뚝하니 서 있어 자칫 허전해 보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푸근하고도 살가운 곳으로 만들어준다.

지묵(智默) 스님은 푸른빛 연꽃이 그려진 하얀 다기에 찻물을 부으면서 야생 녹차라 맛이 다를 것이라 했다.

“녹차나무는 사람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차맛을 잃지 않아요. 보림사는 차나무의 성정을 거슬리지 않고 야생으로 키우고 싶어 풀도 베지 않고 그대로 두는 등 최소한의 손질만 합니다.”

‘차나무 본위로 거루고 싶다’는 이 한 마디에 스님의 살림살이와 수행의 깊이를 다 알아버린 듯하다. 지묵 스님은 <죽비 깎는 아침>을 비롯하여 <산승일기> <날마다 좋은 날> <초발심자경문 강설> <육조단경 강설> 등 스무 권도 훨씬 넘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출가자가 쓴 에세이집이 드물 때 법정 스님과 더불어 수행자의 삶과 절집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맛깔스럽게 대중들에게 들려주었다. 요즈음은 어떤 글을 쓰시는지 궁금하여 여쭈었더니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글 쓰는 것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뜻밖의 말씀을 들었다.

“법정 스님께서 열반하실 그 무렵 밥을 받아먹을 만큼,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만큼 많이 아팠어요. 법정 스님 장례식도 못가고 49재 때 송광사에만 겨우 갔어요.”

그때는 몸을 추스르지도 못할 만큼 아팠기에 설핏 법정 스님이 ‘나를 데려 가실라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더란다. 불교대학 강의실에 모셔진 아담한 불상을 가리키면서 “법정 스님이 보시하신 것인데, 퇴원하면 불상을 보러 오시겠다고 전화통화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평생 동안 실질적인 법의 스승이자 정신적인 법의 스승이요 의지처였던 법정 스님의 열반은 아직도 애절하기만 하다.

이야기는 송광사에서 보낸 행자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사미계를 받기 전에 산중 어른스님들께 인사를 하러 다녔다. 불일암에 올라가 법정 스님께도 예를 올렸다. 법정 스님은 지묵 스님의 불명을 두고 “평생 종이와 먹이 따라다니겠구먼”그랬다. 그 말씀에 “지묵필연(紙墨筆硯) 그런 뜻이 아닙니다”고 말씀드렸더니 “두고 보게. 평생 글 쓰고 그림도 그릴 것이네”하고 아주 장담을 하셨다. 1975년에 불일암이 단장되었고, 그때 돌층계와 돌담을 지묵 스님이 직접 쌓았다. 그 다음 해에 법정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어 불일암의 공양주를 자청했다. 1년 동안 저녁이면 가사장삼을 수하고 대혜 스님의 <서장>을 배웠다. 법정 스님을 독선생으로 모시고 <서장>을 공부한 이 일은 가장 아름답고도 귀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법정 스님은 “내가 지묵 수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어. 수제비 끓이는 것하고, 돌담 쌓는 것 하고 각(刻)하는 것이야”하고 추켜 세워주시곤 했다. 그만큼 지묵 스님의 손끝이 맵고 야무져 무엇을 해도 당신 마음에 꼭 든다는 말씀이기도 하다. 불일암의 돌담과 돌층계를 쌓은 지 스무 해가 넘었고 태풍이 지나간 횟수는 셀 수도 없건만 아직도 무탈한 것을 두고 법정 스님은 농(弄)처럼 ‘특수공법’으로 쌓아서 그렇다고 했다. 지묵 스님은 돌을 보면 인체를 보는 것처럼 눈과 머리, 몸통이 보인다고 하니 그 안목 자체가 특수공법이 아닌가 싶다.

“미국 LA에 있는 송광사 분원인 고려사로 포교를 위하여 떠나게 되었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법정 스님은 다락에 올라가시더니 신채호 선생의 <한국사> 상 · 하 권을 가져와서는 이것을 꼭 읽어보아야 한다면서 건네주시데요.”

행여나 미국에 가서 한국을 잊어버리고 한국역사를 잊어버릴 것을 우려하시어 당신의 손때 묻은 <한국사>를 건네주던 그 모습도 잊지 못할 일이란다. 법정 스님은 당신이 연재하는 지면에 지묵 스님의 글을 싣도록 했고, 그렇게 하여 지묵 스님을 글쟁이로 데뷔시켜 주었다. 몇날 며칠을 두고 이야기하여도 법정 스님에 대한 아름다운 일화와 추억은 쉬이 바닥이 날 것 같지 않다. 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글을 잘 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초등학교 때 그림일기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란다.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을 읽고 나서 여행 중에도 휴대용 벼루를 지니고 다니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떠오르면 수첩에 메모를 해두었다가 저녁엔 이걸 참고로 휴대용 벼루에 먹을 갈아 일기를 써요.”

스님은 무엇을 한 번 시작하면 중도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게 되는데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웃었다. 프랑스 작가인 스탕달이 <적과 흑>을 쓸 때 ‘법전’을 옆에 두고 썼듯이 지묵 스님 또한 수행자의 글에서 감성이 짙게 묻어나올 것을 염려하여 글을 쓸 때는 꼭 <육법전서>를 펴놓고 쓴다. 글 쓰는 것이 곧 수행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묵 스님은 6년 남짓 인도, 프랑스, 일본, 중국 등지로 수행을 위한 만행을 하였다. 이렇게 만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법정 스님의 격려와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단다. 만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수행했던 그 기록은 <나마스테> <봉주르 길상입니다> <달마와 혜능> 등 여러 권의 책으로 남아 있다. 일 년 동안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여행을 하였고, 법정 스님의 요청으로 프랑스 길상사에서 소임을 보기도 했다. 일본의 조동종 사찰인 덕림선사(德林禪寺) 초청으로 1년 동안 그곳에서 매섭게 정진했다. 만행 길에서 보고 듣는 것은 다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될 터이지만, 1년 동안 중국의 선종사찰을 순례한 것은 더욱 값진 공부였다. 1년 동안의 선종사찰순례를 위하여 중국의 산동성 연대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등 준비도 단단히 했다.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역사가 단절되고 종교가 잠들어 있어서 현장답사에서 무엇을 얻는다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선사들에 대한 존경심을 스스로 일깨우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대혜 스님을 흠모하기에 그의 발자취를 따라 찾아다녔다. 아육왕사를 갔을 때는 지묵 스님의 허름한 차림새와 잡다한 참고자료로 30킬로그램은 족히 되는 바랑을 보고서 떠돌이승이라 생각하여 홀대를 하더란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화두선 종장인 대혜 스님의 법향이 스며있는 곳이라 방장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멀리서 온 이방인이 <서장>에 대해 깊고도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란 아육왕사의 방장 스님은 가장 좋은 객사를 내어주더란다. 선풍기가 있는 방에서 당장 에어컨이 있는 방으로 옮겨주는가 하면 옛 풍습 그대로 목욕할 뜨거운 물을 물지게로 져 날라주는 등 극진한 대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매일 자기에 맞는 수행해야



접을 받았다. 스님은 이 또한 대혜 스님의 음덕이라 여긴다.

중국의 선종사찰에는 여전히 선농(禪農)사상이 남아있어 스님들이 인분을 밭에 뿌리는 험한 일부터 해서 농사일을 다해내더란다. 그리고 페인트칠하고 돌담을 쌓는 등 사찰을 직접 장엄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지묵 스님 또한 평택의 아란야선원 선원장일 때 '선농일치'를 실천하며 대중들과 더불어 농사지으면서 수행정진 했다.

일본의 선수행이 궁금하여 여쭈었더니 '일본 스님들이라 하여 전부 다 대처(帶妻)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승들은 독신생활을 한다' 고 했다. 깨달음의 인가를 줄 때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사람에게만 인가증을 준다고 하니 일본의 선수행이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니더란다. 이처럼 만행이란 사시(斜視)로 굳어진 안목을 바르게 펴주는 그런 공부이기도 하다. 일본의 덕림선사 국제선원에는 공양주가 따로 없고 결재한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공양을 준비한다. 스님은 그것 또한 크게 배울 점이라 했다.

지묵 스님은 보림사 주지소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새롭게 도모하고 있다. 이곳에 머문 햇수가 3년이 넘었건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요법회를 열고 있으며, 장흥불교대학 1기생 37명을 배출했고 지금은 2기생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 일요법회와 불교대학을 열겠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심이 아닌 이곳 시골에서는 힘들 것이라면서 다들 말렸다. 지묵 스님은 어디에서건 대중들과 법의 향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일요법회를 시작했고, 법회 때마다 회보를 만드는 등 심혈을 기울여왔다. 불교대학에 쓸 교재도 스님이 직접 만든다. 부처님 일대기를 공부할 때는 부채에 '팔상록'을 그림화하고, 선사상을 공부할 때는 10개의 부채에 '심우도'를 직접 그려서 시청각교육이 되게 한다. 지묵 스님은 지금도 다양한 그림교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묵 스님께 삶의 지혜를 여쭈었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스님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산중에서 칩거하고 있는 대매 법상 스님을 만났다.

"스님, 산을 내려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매 법상 스님이 "수류거(隨流去)! 흐름에 따라가시오"라고 답했다.

"산을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골짜기의 물 흐름을 따라 가다보면 아랫마을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은 변화무쌍하여 폭포수 같은 순행(順行)도 있고 웅덩이 같은 역행(逆行)도 있기 마련입니다. 순행이 오면 오는 대로 역행이 오면 오는 대로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오만하지 말고 잘못 나가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여여하게 사세요."

지묵 스님은 왕새우가 그려진 부채를 건네시면서 "새우는 남몰래 숨어서 껍질을 벗고 왕새우로 성장해요. 불자들도 하루 중 시간을 내어 좌선, 염불, 금강경 사경, 보문품 독송, 108배 절하기, 다라니 진언 등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하루 중에도 자신의 길을 찾아 숨어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시처럼 아름답게 들린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객원기자)

지묵 스님은 ...

1948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 1976년 조계산 송광사에서 법흥 화상을 은사로 출가. 송광사 총무, 길상사 선원장, 법련사 한주를 지냈으며, 불교방송 신행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금은 장흥 보림사 주지이다.

저서로 〈날마다 좋은 날〉 〈비온 뒤에 무성한 조롱박 넝쿨〉 〈산승일기〉 〈노스님의 젊음〉 등 여러 권의 수필집과 〈초발심자경문 강설〉 〈육조단경 강설〉 〈신심명〉 등의 강의본이 있다.



한국불교 승려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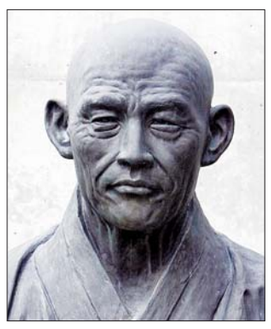
만해용운(萬海龍雲1879-1944)①

'조선불교유신론'의 바람은 아직도 바람이어라

만해 한용운. 독립운동가, 항일열사, 민족시인, 한국 근대문학의 거장, 개혁불교 운동가, 소설가 등 그에게 따라붙는 호칭은 다양하다.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님의 침묵〉의 시인으로 더 많이 각인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만해는 불교개혁가로서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호칭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이미지에 불구하고, '승려'라는 한마디만큼 그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 "만해는 승려였다, 그것도 대승불교의 승려였다." 대승불교의 승려, 다시 말하면 대승불교의 출가보살은 서원으로 살아간다. 그 서원을 달리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요약하자면 사홍서원에 다름 아니다.

만해 스님이 그러한 대승불교 출가보살의 본질을 몸에 익히고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1908년 봄 일본 임제종 대학을 시찰 겸 유학하러 가던 때였다.



만해 스님 동상.

만해가 처음 출가를 시도하여 속리산에 입산했던 것이 1896년 18세 때의 일이고, 20세에 백담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04년에는 일본행을 계획했으나 실패하고, 홍성에 귀향해 있던 중에 어려서 결혼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보았다. 이듬해 그는 다시 백담사로 입산하여 비구계를 수지했는데, 여러 번의 입산과 환속 끝이었으니 그 마음의 갈등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는 백담사와 건봉사, 유점사에서 때로는 경학을 익히고 때로는 안거에 들면서 수학에 전념했다. 그 이력이 낮지 않았던지 1907년 만화 선사에게서 전강을 받고 '용운(龍雲)'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1908년 봄의 임제종대학 시찰은 이후의 만해에게 많은 영향을 남긴다. 일찍이 만해가 세계일주를 위해 시베리아행을 계획했던 것도, 1904년 일본행을 계획했던 것도 실은 모두 세상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구한말 산중 곡곡까지 들려오는 서구열강의 이기(利器)가 어디에서 근원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었고, 그것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휘둘러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책을 구해보고 또 구해보았다. 보아야, 알아야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 턱밑에 박힌 궁금증을 털어주었던 것이 바로 일본행이었다. 만해에게 일본행은 100번 들었던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그의 삶은 행도(行道)를 바꾸었다.

만해 스님이 일본에서 본 것은 아마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근대화돼가는 일본제국의 일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뜨인 것은 일본제국의 그러한 일상에, 그러한 일상의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의 불교였을 것이다. 각지에서 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교세를 유지 · 보존하는 것은 물론 변화의 주축이 되기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실험이 행해지는 일본불교의 위세, 그것이었을 것이다.

승려로서의 만해의 생애 전반기를 결정지었던 <조선불교유신론>은 그래서 탄생한 것이다. 만해 스님을 말하는 이들에게 <조선불교유신론>은 만해 스님의 결정판인 것처럼 운위된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판이 아니라 시작판이었을 뿐이다. 필자는 <조선불교유신론>이 그의 진면목이 아니라 출발점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어쨌든 수행자로서의 승려에게 깨달음은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단순히 승려가 아니라 출가보살로서의 삶의 출발점은 역시 깨달음이라 해야겠는데, <조선불교유신론>의 단계는 그러한 점이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조선불교유신론>은 당면현상의 과제를 말한다. 물론 당면현상의 과제가 절박하다. 하지만 그것은 내적인 측면으로부터도 해답을 얻어야 한다. <조선불교유신론>이 말하는 많은 유신의 과제들은 조선불교의 외형과 일본불교의 외형을 비교하고, 당시 동아시아 세계를 강타하던 사회진화론이라는 강자생존의 논리에 많은 부분을 입각한 것으로, 내적인 측면에서도 본령이라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그 안목의 거시성과 구체적인 대안의 탁월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선불교유신론>이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생명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만해의 안목이 탁월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에 남기신 한마디가 그것을 증명한다.

"대저 거짓 유신이 있은 후에 참다운 유신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니, 이 논이 후일에 가서 거짓 유신의 구실을 하게 된다면, 필자의 영광이 이보다 더 함이 없겠도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만해의 바람을 거꾸로 실현하고 있다. 덕분에(?) 아직도 <조선불교유신론>은 효용가치가 있다. 하지만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보였던 만해 스님의 바람은 아직도 바람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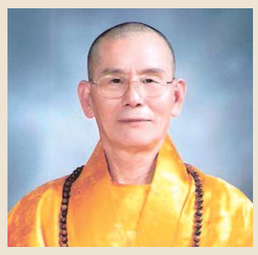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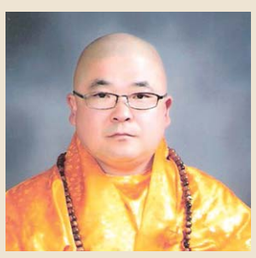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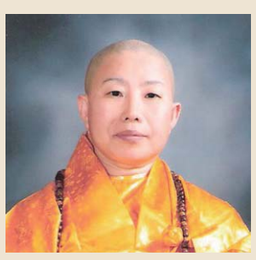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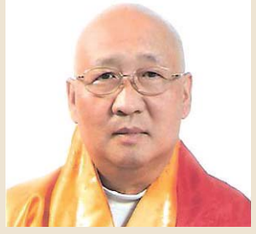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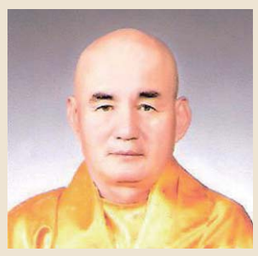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 도 모 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2.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3. 대 표 자
 ○성 명 : 김 정 현
 ○생년월일 : 1952. 4. 14
 ○주 소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4. 사업내용
 ○ 승려교육 및 양성과 승려복지 사업 전개운영
 ○ 전통 법을 명맥 보급과 우리고유문화 보존계승
 ○ 불교 선농 정책 및 생태지도자 교육
 ○ 불교 선농문화 공연 및 국내외 포교사업

「민법」 제32조에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경 상 남 도 지 사


특허법인 釜慶

대원불교

특허법인 釜慶 변리사 구 성 장


WORLD BUDDHIST SANGHA COUNCIL
CERTIFICATE OF
ORGANIZATIONAL MEMBERSHIP
世界佛教僧伽會團體會員證

NAME 名稱 大願佛教曹溪宗 PERSON IN CHARGE 負責人 淨山法師

ADDRESS 地址 大韓民國慶尚南道梁山市周津洞656

DATE ADMITTED 入會日期 2010/08/20 MEMBERSHIP No. 會籍號碼 OM-0119

ISSUED BY WORLD BUDDHIST SANGHA COUNCIL
6 Shanxing N. Street, Taipei, Taiwan, 100, R.O.C.
Tel: +886-2-23965564 Fax: +886-2-23913770
E-mail: wbsc5564@ms64.hinet.net http://www.wbsc886.org
世界佛教僧伽會核發
100台北市中正區紹興北街六號
電話：+886-2-23965564 傳真 +886-2-23913770

PRESIDENT 會長

■임 원 진

종 정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정사서 : 석법보, 석능현, 석도현, 박선혜화) 기획팀장 : 김나희(덕연화)

원로회회장 홍섭 대종사 원로회부회장 연각 대종사, 만월 대종사

승정원장 원정 대종사 호법원장 숭산 대종사 감찰원장 법일 대종사 감사원장 지명 대종사 사정원장 법안 대종사
중앙연수원장 동원 대종사 중앙교육원장 무염 대종사 중앙교육부원장 석월오, 석운오, 석성현

호법부장 석법천 호법국장 보명 감찰국장 법진 감사부장 혜주

경남1종무원장 보명 경남2종무원장 범일 부산1종무원장 정은 김해1종무원장 청해 거제종무원장 덕운 경주종무원장 보정 대구1종무원장 혜운

총무원장 대행 석혜오
교무부장 석성오 포교부장 석혜통 문화부장 석도산 의전부장 석근홍 행사부장 석명오

비구니원 : 석자인, 석정은, 석효각, 석해안, 석법오, 석수진, 석수해, 석능현, 석도현, 석지현

* 차후에 직책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창종예정일 : 불기 2554년 12월 12일

■입종안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있사오니 현혹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정 청봉 석정산









요절복통 여래네 집

#30. 남자와 군대

스튜디오 돌

여자들은 애낳던 순간을 평생 못 잊는다고 하고 남자들은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가 평생의 레파토리가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런 남자들의 군대 얘기를 여자들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도 남자들은 어느 자리건 얘기가 무르익으면 빠뜨리지 않고 군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남자들의 군대 얘기에는 두 가지 패턴 밖에 없답니다.



자기는 군대생활을 너무 편하게 했다, 아니면 너무 힘들게 했다, 이 두 가지,

실상은 젊음을 저당잡혔다는 것만으로도 다 마음 고생은 비슷비슷했을 텐데 말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20대 때 군대를 면제 받은 친구들이 갔다온 친구들보다 군대의 생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과장이 없는 여래 아빠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웃기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여래 아빠는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괜한 웃음이나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도 군대에 갔다온 걸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할만 한 것은 아니지만.



이주일의 화두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랑과 즐거움을 두지
않으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법집요송경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달력·불교용품·불교서적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할인가 금지경전 세트 (3권+주머니) @25,000원(10세트이상)


할인가 경면주사금지 능엄신주 @7,000원(10권이상)


할인가 금강반야바라밀경 @1,500원(100권이상)

할인가 반야심경 한문 탑사경 @150원(500장이상)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경전사경 제26호

할인가 한지 108사경 (4종) @14,000원(10권이상)

할인가 금강경 한문사경 @3,500원(50권이상)

할인가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할인가 금강경 독송용 @2,400원(50권이상)

※ 불교서적 법보시 기본 100권 인쇄시 20,000원이며 추가인쇄시 100권당 +10,000원 추가됩니다.


할인가 공단등(8cm) @3,000원(96개이상)


할인가 바림등(8cm) @3,000원(96개이상)


PVC 집게등표(100매) @20,000원


칼라등표(100매) @6,000원

할인가 무연무취향(1케이스) @12,000원(10케이스이상)

일반밀대(1Box 70개) @105,000원

파라핀양초(1.8ℓ 12병) @53,000원


할인가 주목 백팔주 @8,000원(20개이상)

할인가 불자수지독송(칼라) @500원(200부이상)

할인가 생일카드 @300원(1,000장이상)

할인가 금강경탑다라니 @150원(600장이상)


할인가 삼베삼재풀이 @600원(200개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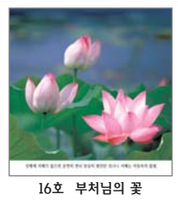
불교용품
- 침향, 주목, 염주, 염주주머니
- 양초, 향, 다포, 악세사리
- 4·8용품, 등표, 전선·전구
- 공단등, 바림등, 만월등, 청사초롱
- 봉축카드, 생일카드, 프린트지
- 예수재용품, 영가옷, 탑다라니
- 축원카드, 용선, 위패, 부적

불교서적
- 사경책, 사경지, 한지백팔사경
- 우리말사경책, 제브라붓펜
- 금지경전세트, 불자수첩, 병풍
- 금강경,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 예불천수경, 천지팔양경, 보문품
- 백팔대참회문, 불설아미타경
- 한지공책, 사경공책, 권선문
- 자비도량참법, 성불합시다

불교달력
- 국6절(大) (30.5×31.0cm)
- 12절 (25.8×26.5cm)
- 차걸이 (9.0×15.5cm)
- 미니 (8.9× 9.5cm)
- 다이어리 (9.5×13.4cm)
- 탁상 (26.2×19.0cm)
- 한지 (30.0×45.5cm)
- 행복으로 가는 길(18.1×20.0cm)

12절 1,000원 (1,000부 이상)


8호 관음도


16호 부처님의 꽃


14호 반야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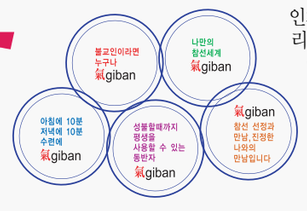
동진기획·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051)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7>

무엇이 평상심입니까?

학승이 물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쪽으로 오너라."
학승이 말했다.
"그쪽으로 가면 즉시 생각이 미치는 곳입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조주 스님이 손을 곧게 세우고 말했다.
"그대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학승이 말했다.
"손이라 부릅니다. 화상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백(百)가지 이름은 나 역시 그대로 부른다네."
학승이 말했다.
"화상의 백 가지 이름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또한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야."
학승이 예배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생각이 미치는 곳을 가르쳐 주겠다."
학승이 말했다.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석가세존의 가르침과 조사의 가르침이 바로 그대의 스승이야."
학승이 말했다.
"조사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옛 사람이 이미 말했습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조주 스님은 손가락을 들면서 말했다.
"무엇이라 부르는가?"
학인이 침묵하자, 조주 스님은 다시 말했다.
"어찌하여 즉시 깨닫지 못하는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는가?"

問 思憶不及處如何
過者邊來
云 過者邊來卽是及處 如何是思不及處
師竪起手云 你還作什麼
云 喚作手 和尙喚作什麼
師云 百種名字我亦道
云 不及和尙百種名字 且喚什麼
師云 與麼卽思憶不及處
僧禮拜
師云 敎你思憶得及者
云 如何是
師云 釋迦敎祖師敎是你師
云 祖與佛古人道了也 如何是思抑佛及處
師再擧指云 喚作什麼
僧良久
師云 何不當頭道著 更疑什麼

이 문답을 보면 과거의 선사들은 오늘날 선사와 다르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개개인이 부처인 것을 깨달은 진정한 선사라면 모든 부처님 앞에서 굳이 감추고 은밀하게 비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조주 스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자상한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저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미치는 곳에 대해서는 부처님과 조사들이 옛날에 이미 다 말해 마쳤다. 그러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부처님과 조사도 말하지 못하고 가버렸다. 왜냐하면 그곳은 각자 스스로 보아야할 곳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백 가지 명칭을 들어서 말로 설명하면 그곳은 이미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되고 만다.

조주 스님이 일지(一指)를 들었을 때 백 가지 명칭이나 말이나 생각을 내지 말고 다만 그냥 보아라. 그러면 그곳이 바로 백 가지 명칭이나 말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바로 깨달으라. 그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본 것이다.

누구든 선을 알면 귀가 막히고 벙어리가 된다
분노라 해도 부처의 마음에서 나온 작용

손가락이나, 주먹이나, 손수건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달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대담의 뜻을 깨닫기 바란다.

학승이 물었다.
"화상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귀가 먹었어. 더 큰 소리로 물어봐."
학승이 다시 물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나의 가풍을 물어보므로 해서 오히려 나는 그대의 가풍을 알았다."

問 如何是和尙家風
師云 老僧耳背高聲問
僧再問
師云 你問我家風 我卻識你家風

조주 스님은 선의 핵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선문답을 하는 기지가 남다른 데가 있다. 조주 스님이 "나는 귀가 먹었어. 더 큰 소리로 물어봐."하고 말하는 것은 답변과 동시에 내방객의 경지를 시험해본 말이다. 소위 막고 찌르는 것을 동시에 한 것이다. 나는 귀가 먹었다고 말했을 때 선객은 벌써 조주를 가늠해야 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물어보라고 했을 때 즉시 알아채고 다른 질문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선에 초심자인 학승이 조주 선사의 의도를 못 알아채고 재차 큰 소리로 똑같은 질문을 던지자, 조주 스님은 "그대가 나의 가풍을 알아볼 때 나는 그대의 가풍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나의 가풍이야" 하고 말을 마친 것이다.

누구든지 선을 알면 귀가 막히고 벙어리가 된다. 조주 선사는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다. 만일 내방객이 선에 달통했다면 이 한 마디에 조주의 가풍을 즉시 알아봤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귀가 먹었어. 더 큰 소리로 물어봐"하고 말했을 때 똑같은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뭐라고 다른 질문을 던져야 좋을까? 만일 본 납자라면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 마디 해보십시오"하고 질문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평상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여우나 늑대나 들짐승 같은 그것이다."

問 如何是平常心
師云 虎狼野干是

평상심에 대해서 조주 스님은 여기서 확실하게 여우처럼 사량계교에 능하고, 늑대처럼 거칠고 이기적이며, 온갖 들짐승 같이 다듬어지지 않는 보통의 마음이 곧 평상심이라고 했다.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에게 "평상심이 곧 도이다"라는 말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 조주 스님이 평상심을 이해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답이다.

사람이 비록 지금 마음이 거칠고 망상이 가득하다해도 모두 진심(眞心)에서 나온 것이다. 마음은 그렇게 무한히 자유로운 변화를 짓는다. 따라서 분노라 해도 부처의 마음에서 나온 작용이다. 슬픔이라고 해도 부처의 마음에서 나온 작용이다. 계교모사라고 해도 부처의 마음에서 나온 작용이다. 이 평상심이 바로 불교에서 지향해 가는 도(道)의 경지인 것이다.

다만 스스로 부처인 것을 깨달은 자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이기심을 위하여 사용될 뿐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⑱ 운문광진선사어록

불성을 체득 독특한 접화수단 활용

중국의 선종오가 가운데 당대 말기에 형성된 운문종의 개조인 운문문언의 법어집으로 <운문광진선사광록> 3권은 대정신수대장경 제47권에 수록돼 있다. 문인 수견(守堅)이 수집한 것으로 상권에는 대기(對機) 22칙, 십이시가(十二時歌), 게송이 수록돼 있고, 중권에는 실중어요(室中語要) 185칙, 수시대어(垂示對語) 290칙이 수록돼 있으며, 하권에는 감변(勘辨) 165칙, 유방유록(遊方遺錄) 31칙, 유표(遺表), 유게(遺揭), 행록(行錄), 청소(請疏)등이 수록돼 있다. 판본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1) <운문광진선사광록> (함순 중간본. <고존숙어록> 권10-권12 및 명장본 <고존숙어록> 권15-권18)은 소해(蘇瀣)가 서문(1076년 기록)을 부가해 선화 2년(1120) 무렵에 복주(福州) 고산(鼓山)의 원각종연(圓覺宗演)이 교감한 것으로 현존 최고본(最古本)이며 완전본이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뇌악(雷岳)이 947년에 지은 운문의 <행록>과 958년에 지은 운문의 <실성비>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운문의 어록이 유행되고 있었다.)

2) <운문광진선사어>(<속개고존숙어요> 지집): 가희 2년(1238)

3) <소주운문광진문언선사> 1권(<오가어록> 제3권)은 명대 말기.

4) <어선자운광진홍명운문언선사어록> 1권(<어선어록> 제6권)은 옹정황제 시절의 간본으로 <오가어록> 본을 계승한 것


노엽달마대사(35X45cm)2006. 담원 김창배.

운문의 행장에 대해서는 <운문록>에 수록돼 있는 것으로 947년에 뇌악이 찬술한 <행록>과 또 뇌악이 찬술한 <대한소주운문산광태선원고광진대사실성비>(<당문습유> 제48권)과 또 뇌악이 찬술한 <대한소주운문산대각선사대자운광성굉명대사비명>(<전당문> 제893권), 그리고 각범혜홍이 찬술한 <선림승보전> 제1권의 기록이 자세하다. 이에 의하면 운문문언(雲門文偃, 跛脚子: 864~949)은 운문종의 개조로서 절강성 가흥현 사람이다.

도솔사의 지징율사를 따르다가 17세 때 출가했다. 율을 공부한 후에 목주도종(睦州道蹤)을 참문했고, 다시 설봉의존을 참문해 그 법을 이었다. 오대(五代) 남한(南漢)의 조정에서 종종 입내설법을 해 광태선원(光泰禪院)이라는 칙액을 받고, 광진대사(匡眞大師)라는 호를 받았으며, 대자운광성굉명선사라는 시호를 받았다.

운문문언은 혼란기였던 당 말기 및 오대에 활동한 선사로서 설봉의존의 법사이다. 17년 동안 남과 북으로 유행하면서 조주의 영향으로는 언어의 극명(克明)과 간단(簡單)이라는 개념을 체득하고 남양혜충의 영향으로는 불성(佛性), 신심(身心), 법신(法身), 무정설법(有情說法) 등의 사상을 체득해 이후에 독특한 접화수단으로 활용했다. 그 접화수단에 대해서는 <운문록>에다 소해(蘇瀣)가 붙인 서문(1076년)에 잘 나타나 있다.

원나라 시대의 중봉명본(中峰明本)은 <중봉광록> 권11에서 선종오가를 가각 위앙(潙仰)의 근엄함, 조동(曹洞)의 세밀함, 임제(臨濟)의 통쾌함, 운문(雲門)의 고고(高古)함, 그리고 법안(法眼)의 간명(簡明)함이라 평가했듯이 보리 · 열반과 선(禪) · 도(道)를 초월한 언변을 구사하였다. 곧 그의 보(普), 거(去), 로(露), 시(是)와 같은 일자선(一字禪)은 <운문광록>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또한 주장자를 활용한 체(體) · 용(用)의 가르침은 중생과 부처, 생과 멸, 색과 공, 명과 암 등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교화법으로 승화됐다. 특히 고 · 감 · 이(顧 · 鑑 · 咦)라는 세 글자는 운문의 접화방식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운문추고(雲門抽顧)라는 말로 전승됐다. 곧 추(抽)는 생략한다는 뜻으로 고(顧) 자를 생략했다는 의미이다. 운문은 승을 만나면[顧] 그 승한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점 검 하 며 조 심 하 라(鑑 · 咦)고 말했다. 그런데 운문의 법어를 기록한 사람이 고 · 감 · 이(顧 · 鑑 · 咦: 운문은 사람들을 만나면 돌아보라[顧], 살펴보라[鑑], 조심하라[咦]고 말했다)라고 잘못 기록했다. 때문에 운문의 법사인 덕산은 고(顧)를 빼고 감이(鑑咦)라 했다. 곧 덕산은 운문이 학인을 접화하는 기관(機關)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 진의를 드러낸 것이다.

운문삼구(雲門三句)는 1) 함개건곤(函蓋乾坤) 2) 절단중류(截斷衆流) 3) 수파축랑(隨波逐浪)으로 각각의 어구에 게송을 붙여 노래했다. 함개건곤은 그 의미로 보아 일체의 모든 존재 전체가 진여 그 자체로 간주되는 의미이고, 절단중류는 미혹의 근원을 절단하고 곧바로 진여 그 자체가 돼버리는 곳에 참선학도의 요결이 있다는 의미이며, 또 수파축랑은 학인의 지도는 각기 상황에 응하여 적절자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운문선사 자신의 글이 아니라 운문선사의 제자인 덕산연밀(德山緣密)이 운문선사의 접화방편을 지어서 게송으로 남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운문의 접화수단을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흔히 운문삼구라 불리운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운을 열고 발복(發福) 시키는 천도 도자기 출현?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 조상이 저승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 이승에서 자손들도 정리정돈이 안되며 발복이 안되는 것이니라"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성공 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 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세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 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 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쳐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 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여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 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치우천왕 검색

◆ 무료사은품 : "기도의 비밀" 책자 + 치우천왕 CD + 치우천왕 적령부 카드 2장
내마음의 절에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기(氣), 측정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을 측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가격 : 49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죽음의 국경 넘는 티베트인 이야기

'굿바이 티베트' 마리아 블루멘크론의 '히말라야를 넘는 아이들' 뒷이야기

우리가 맘 편히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는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한다. 매년 3000여 티베트 사람들은 눈 덮힌 히말라야를 넘고 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를 넘는 이유는 단지 자유와 희망을 찾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1950년 중공이 티베트를 침공한 후, 티베트는 중국 당국의 강요에 의해 중국의 종주권과 티베트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17개 조항의 협정안'을 체결했다. 이후 중국군의 동부 티베트 지역 탄압과 달라이 라마의 신변문제 등으로 달라이 라마와 그를 따르는 티베트인들은 인도로 망명길에 오르게 됐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티베트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낯선 명명지로 길을 나섰다. 티베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름다운 조국도, 내일의 행복을 보장하는 땅도 아니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유의 땅 인도 다람살라에 도달하려면 1달 여를 눈과 빙벽을 뚫고 걸어야만 한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는 피란민들의 여정은 책을 읽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낮에는 중국 경찰의 감시를 피해 바위 아래서 눈을 붙이고, 밤에는 어둠 속을 헤쳐 설산을 넘어야 한다. 대체로 피란민들은 경계가 상대적으로 덜 삼엄한 한겨울에 망명길에 오르는데, 혹독한 추위 속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동상으로 손발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혹여 중국 경찰에 걸리게 되면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피 말리며 히말라야를 넘는 이들 중 반이 어린 아이들 이라는 사실이다. 부모들은 자식이 조금이나마 더 인간답게,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히말라야로 보낸다. 언제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부모들은 자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티베트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히말라야의 혹독한 추위에 지쳐 죽은 어린이들이 만년설에 남겨지고 있다.

<굿바이 티베트>는 저자인 마리아 블루멘크론이 티베트 망명자들과 함께 히말라야를 넘으며 쓴 <히말라야를 넘는 아이들>의 완결이자 뒷이야기다. 배우 출신이자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작가인 저자는 희망을 찾아 피란길에 오른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와 그들을 가이드해 주는 켈상 직메의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날 동안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먹여야 합니다. 피곤해 하면 업어주고 특히 아이들 신발이 눈에 젖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부모 생각이 나서 울면 다독거려야 합니다. 밤이면 바지에 오줌 싸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이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힘들고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좋아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본문 16쪽)


티베트인들은 중국 경찰의 감시를 피해 경계가 덜 삼엄한 한겨울에 망명길에 오른다. 국경을 넘다 부상을 당한 스님이 쉬고 있는 모습.

'굿바이 티베트'라는 말은 중국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켈상 직메가 고국 땅을 떠나며 나지막이 속삭인 인사말이다. 또한 국경을 넘어 자유를 찾아가는 모든 티베트 피란민들이 조국에게 건네는 인사말이기도 하다.

책은 민감한 국제정치 사안과 맞물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는 티베트 정치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다만 눈보라를 헤치고 죽음의 국경을 넘는 티베트 사람들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 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인물들의 개인사와 가족사를 문학적으로 가공해 티베트 사람들이 받아 온 억압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굿바이 티베트|마리아 블루멘크론 지음|김화경 옮김|하얀연꽃 펴냄|1만3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솔잎 사이 바람소리	무비 외	불교신문사
4	붓다 브레인	릭 핸슨	불광출판사
5	한국불교의 최초를 찾아서	심정섭	운주사
6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7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8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9	굿바이 티베트	블루멘크론	하얀연꽃
10	고승과 명찰	황원갑	바움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 주 사 02)3672-7181~5

마치 선재동자처럼… 구도행각 풀어내

길상 스님의 '숲 속의 문'



"불성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가 지금 뭐라카노, 제 눈을 지가 어떻게 본단 말이고?"

책은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을 한번 쯤 곱씹어본 사람들에게 작은 실마리를 선사하고 있다. 속세를 떠나 구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그린 소설은, 인간이라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절망과 방황,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인 길상 스님은 갓 스물의 나이에 불교에 입문하게 됐다. 책은 그 당시 스님의 방황과 험난했던 구도의 길을 소설로 엮은 것이다. 이야기는 소설 속 '나'가 막연히 영주 부석사로 발길을 옮기는 데서 출발한다. 이후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전국 각지의 사찰을 돌며 스승과 도반스님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진리의 문에 다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떤 답도 얻지 못한 채, 점점 더 어둡고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소설 속 '나'의 모습은 삶과 죽음의 문제와 모순 속에서 길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길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의 모습과 속세에서 산문으로 산문에서 속세를 오가며 삶의 모순을 풀어나가려 발버둥치는 구도자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숲 속의 문|길상 스님 지음|푸른향기|1만원

이은정 기자

신간 도서

솔 잎 사이 바람소리



올해 창간 50주년을 맞은 불교신문사가 특별기획 법문집을 펴냈다. 우리 시대 큰스님 31인의 치열한 수행과 삶을 그린 책이다. 책에는 지종 스님, 성수 스님, 고산 스님, 보성 스님, 월주 스님, 밀운 스님, 혜정 스님, 대원 스님, 현해 스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님들의 법문이 담겨있다.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분노와 욕심을 삭혀줄 지혜를 갈구 한다. 스님들의 법문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인생의 지혜를 알 게 해준다.

또한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이 밖에 5년 간 다섯 가지 풀로 끼니를 해결한 성수 스님, 걸레도 빨리 헤질 것을 염려해 살살 짜게 했다는 효봉 스님, 영단 앞에서 졸다 잠꼬대 하는 모습을 들켜 간질에 걸렸다는 소문으로 곤욕을 치렀다는 명선 스님 등의 수행담은 읽는 이에게 재미를 더한다.

불교신문사 펴냄|1만5000원

붓다 다르마



붓다는 자신의 시대가 안고 있는 온갖 모순과 불합리를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일깨운 역사적 존재였다. 역사를 벗어난 불교는 신학화(神學化)된 불교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한국불교의 위기가 있다.

책은 고따마 붓다의 정통 가르침을 바르게 알자는 뜻에서 저자가 30년 동안 포교 생활과 연구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저자인 성열 스님은 <빨리 삼장> <아함경>등을 근거해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을 원형대로 지키려 노력했다.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을 인식론, 현상론, 실천론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앎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나는 누구이고 왜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열 스님 지음|문화문고 펴냄|2만2000원

한국불교의 최초를 찾아서



'처음으로 울려 퍼진 범종 소리는? 가장 오래된 불화는? 처음으로 세워진 불탑은?'

책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양서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접하는, 혹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통해 불교에 대해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

오랜 세월 불교는 이 땅 구석구석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하며 유형·무형의 수많은 문화를 창조해 왔다. 책은 대중들이 비교적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44가지의 주제를 가려 뽑아 그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들은 각종 불교경전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역사서, 고승전이나 각 사찰의 사적기, 전공서적과 논문 등에 철저히 근거해 여느 전문서 못지않은 탄탄한 내용이 들어있다.

심정섭 지음|운주사 펴냄|1만5800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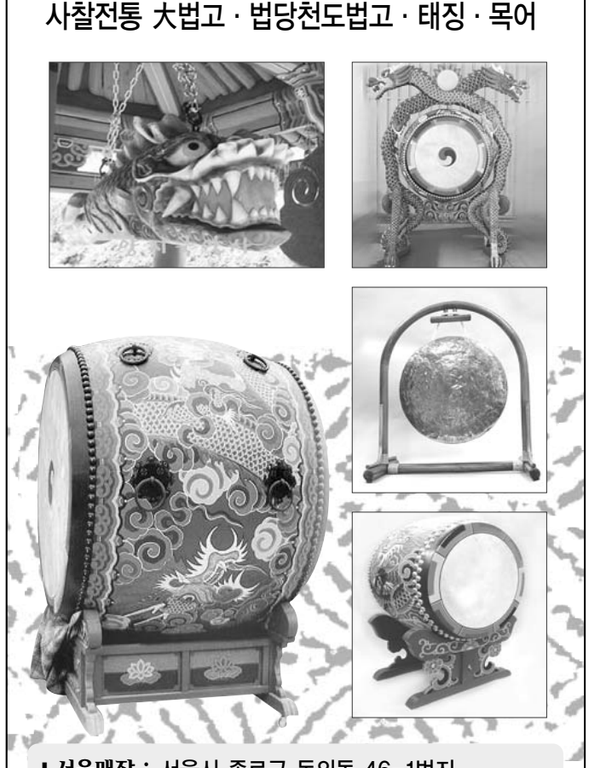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덕성여자대학교 불교학생회창립 38주년
청안스님(형가리 원광사 주지)
초 청 법 문
May I help you?

일 시 : 2010년 11월 12일(금) 오후 3시
장 소 : 덕성여자대학교 대강의동 205호
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수유역(3,6번출구)하차
중앙버스차선 덕성여대행 버스
(120,153,1218번)
대표 전화 : (ARS) 02-901-8000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당신과 온 세상을 동시에 돕는 것과 같습니다.
Helping somebody is like helping yourself and the rest of the world at the same time.
- 청안스님 -

DUK SUNG 90th Anniversary 나의 베스트 파트너 덕성여자대학교
불교학생회·동문회

최연의 산 이야기 <30> 가야산(경남) 4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장경각.

고려인 호국의지가 팔만대장경으로 꽃피웠구나

해인사를 가장 해인사답게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즉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이 봉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자장율사가 부처님 사리를 가져와 황룡사 탑과 태화사 탑과 통도사 계단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불보종찰(佛寶宗刹)이고 해인사는 부처님 가르침의 총화인 고려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어 법보종찰(法寶宗刹)이라 하고 송광사는 고려시대 이래 16분의 국사(國師)를 배출하였으니 승보종찰(僧寶宗刹)이라 할 것이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봉안되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 고려시대의 대장경 조판사업에 대하여 일별(一瞥)해 보고자 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결집(結集)을 통해 경(經)과 율(律)로 정리되고 경과 율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논(論)으로 정리되어 비로소 경(經), 율(律), 논(論)의 삼장(三藏) 갖추어지게 된다.

이 삼장의 내용이 곧 경전(經典)으로서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산스크리트어인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 소개하였는데 초기에는 필사(筆寫)로 널리 유통하게 되었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 널리 유통되는데 한계가 있었고 필사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의 변형과 훼절(毁折)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 율, 논을 체계적으로 정리 집성하여 나무판에 새긴 목판대장경이 출현하게 된다.

최초의 목판대장경은 972년에 시작하여 983년에 완성한 북송(北宋)의 관판대장경(官版大藏經)이다.

이것은 한역된 불전(佛典)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에 수록된 내용들을 새겨 만든 것으로 5048권의 경전이 13만 매의 경판에 새겨져 있다.

북송을 이어 가장 먼저 대장경 조조(雕造)를 추진한 나라는 고려이다.

고려 현종2년(1011년)에 시작하여 선종4년(1087년)까지 6대 76년에 걸친 작업으로 완성을 했는데 이를 고려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북송의 관판대장경의 내용과 체제를 따랐지만 거란이 만든 거란대장경에 실린 불전들이 다수 실려 있어 전체적인 분량은 관판대장경보다 876권이 많은 5924권이나 된다.

문종의 넷째 아들이면서 출가하여 승려가 된 대각국사 의천(義天)은 송나라에서 3천여 권의 문헌을 수집하고 요(遼), 일본(日本) 등에서도 서적을 구입하고 국내의 고서들도 아울러 수집하여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 3권을 간행하여 속장경(續藏經)에 수록할 서적을 결정한 후 흥왕사(興王寺)에 교장도감(敎藏都監)을 설치하고 속장경 조조작업을 하였는데 1092년에 시작하여 1100년에 마무리 하여 9년에 걸쳐 4740여 권의 문헌을 실었다.

그 내용 중에는 신라 승려들의 저술도 355권이나 포함되어 있다.

초조대장경은 팔공산 부인사에 봉안되어 오다가 소실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몽고의 2차침입 때 방화로 불타 없어졌다고 하나 몽고병은 처인성 전투에서 사령관 살리타이가 승장(僧將) 김윤후의 화살에 맞아 전사한 뒤 바로 회군하여서 소백산을 넘지 못했고 오히려 엄청난 재부(재부)를 축적하고 있는 대가람 부인사를 도탄에 신음하던 백성들이 약탈하며 소실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날 일부 판본이 국내에 흩어져 있고 일본 남선사(南禪寺)에도 약간의 판본이 남아 있을 뿐이다.

속장경도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소실되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다만 그 경판의 일부가 송광사에서 발견되었고 일본 나라의 동대사(東大寺) 도서관에 얼마간의 판본이 보관되어 있다.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고려 조정에서는 대몽항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대장경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도는 최씨 무인정권 시절 권력을 장악한 최우(崔瑀)가 강압적으로 강화도로 천도(遷都)하고 곧바로 대장경 조판에 착수하는데 이는 지배계층의 결속과 대립적인 정치세력을 통제하고 정권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국가적 위기를 불교적 신앙사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이었다.

강화에 대장도감(大藏都監)을 설치하고 지방에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을 두어 판각작업을 하였는데 1237년부터 12년이 걸린 1248년에 완성이 되었고 3년 뒤 1251년 낙성경찬회가 열려 비로소 세상에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또는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으로도 불리는 고려대장도감판 대장경(高麗大藏都監板 大藏經)이다.

완성된 팔만대장경이 어떤 경로로 해인사에 옮겨졌는지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고려사(高麗史)에 "팔만대장경은 완성된 뒤 강화성 서문 밖의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에 안치되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한동안 강화도에 있었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태조가 "강화 선원사로부터 옮겨온 대장경을 보기 위해 용산강에 행차하였다."고 적고 있어 1398년 이전 한동안은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었음은 확실하다.

또한 정종 원년(1399년) 정월 9일에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출(印出)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분명한 것은 강화도를 떠난 대장경은 1398년 5월 한양을 경유하여 1399년 정월 이전에 해인사에 옮겨졌다고 할 수 있겠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검은 밤 붉은 길을 달리며

읍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밤. 비가 내린 뒤의 축축한 포장도로를 따라 차를 몰아 산중턱의 집을 향해 구불텅 구불텅 길을 오르는데 토끼 한 마리, 길가운데 우뚝 서서 긴 귀를 바짝 세운 채 어리둥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췄다. 그대로 돌진해서 토끼를 어찌할 마음은 없고 도로는 폭이 좁으니 토끼가 비키지 않으면 차를 세울 밖에.

차가 멈추기 직전, 제 정신을 차렸는지 아니면 위험한 무엇이 바짝 다가서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반사신경이 작동했는지, 토끼가 화들짝 튀어오르며 앞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슬쩍 가속페달을 밟았다. 나도 모르는 사냥꾼의 무의식이 작동되며 토끼를 뒤쫓는 게 재밌다.

길 옆의 풀숲으로 파고들어 몸을 숨기면 되련만 토끼는 길을 따라 앞으로 치닫는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도로를 토끼의 길로 생각하지야 않았겠지. 왼쪽 길가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 길가로 붙으면서도 토끼는 계속 달린다. 열심히만 달린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힘찬 행동이다. 자신의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자신이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려나 주겠다는 듯.

"그러다 치겠어."

내 몸 위를 차바퀴가
지나간다면 몸이
으깨진다면 억 소리
한 마디가 이승을 하직하는
마지막 인사가 된다면!
벗어나려 해도 마음먹은
대로 즉시 되진 않는다

옆에 앉은 아내가 차 속도가 빠르다며 주의를 준다. 그런가? 재미 삼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피를 보고 싶지도 않았다.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너무 멀리 온 거 아냐? 쟤, 집 못 찾아가는 거 아냐?"

아내의 의문도 엉뚱한 말은 아니다. 토끼가 집을 찾아가지 못할 지도 모를 일이다. 살려고 황급히 뛰는 중에 집이 어딘가를 잊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한 장난이 토끼에겐 죽음이 될 수도 있다. 삶이란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밖에 없다. 그렇기는 해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다.

속도를 늦추는 때를 맞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듯 토끼가 길가에 멈춘다. 차를 세웠다.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작심한 듯 토끼가 풀숲으로 들어간다. 빛을 뿜으며 쫓아오는 물체가 자신보다 빠르고 지치지도 않는 괴물이란 걸 비로소 깨달은 모양이다.

"그 놈 들어갈 거면 일찍 좀 들어가지. 하긴 그러면 내가 재미가 없었겠지. 다 나를 재밌게 해주려고 그랬나?"

가속페달을 다시 밟으며 집으로 차를 몰았다. 뭐가 또 나타나려나, 앞을 살핀다. 고라니나 너구리가 나타난다면 또 한 판 놀 수도 있으나 뱀이나 개구리만은 만나지 않았으면 싶다. 언뜻 눈에 띄는 순간 차는 그들 위로 지나가게 된다. 작거나 납작 기어가는 것들의 운명은 차바퀴 밑에서 끝나기 일쑤다. (산길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들은 하루 이틀 이내로 무엇인가의 먹이가 되어 모습이 지워진다.) 자꾸만 무디어져가고는 있지만 차바퀴에 눌려 죽는 것들의 마지막 외침이 바퀴에서 전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마다 예리한 광선이 몸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간다. 찰나의 일이지만 마음이 섬뜩하다.

내 몸 위를 차바퀴가 지나간다면. 몸이 으깨진다면. 억 소리 한 마디가 이승을 하직하는 마지막 인사가 된다면! 무엇인가 바퀴에 깔리는 느낌을 받을 때, 나는 동시에 내가 깔리는 충격 속에 빠진다. 머리로 상상하기 전에 가슴부터 턱 막힌다. 재빠르게 머릴 흔들며 벗어나려 해도 마음먹은 대로 즉시 되진 않는다.

그러니 길가 풀숲에서 갑자기 차 앞을 향해 뛰어드는 고라니나 너구리나 고양이나 토끼 등을 만나게 될 때, 내 스스로 놀라게 됨은 그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다. 들이받히거나 바퀴에 깔려 피투성이가 된 채 사람으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나를 보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유승도 (시인)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종무법인 (법원등기 제 000006호) 禪農敎團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建法幢立宗旨
明明佛勅曹溪是
第一迦葉首傳燈
二十八代西天紀
今朝禪農立家風」

-永嘉玄覺證道歌中引用-

法의 깃발 높여 이 道理 세움이여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스물 여덟 등불이 서천의 불 밝혀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입 종 비 : 없음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각 사찰 인감등록 및 발급 (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사 무 국 : 070)8843-7620 / FAX 041)943-7620
■총재직통 : 016-850-1208

사주명리학 강의
실전특강

사주 명리학에 처음 접하거나, 입문 후 열심히 하셨으나,
공부에 큰 진전이 없어 고민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공부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과 목 : · 명리학, 기문둔갑, 육효, 육임, 관상
· 타롯카드반은 수강신청에 따라 별도운영
■강 사 : · 전, 호서대 기문, 관상학 주임교수
· 전, 동아 · 불교 문화센타 명리학, 기문학 강사
· 전, 사단법인 동양사상연구회 부회장 직강!
■일 시 :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장 소 : 서울 관악구 난곡입구 사거리
씨채널 안경점 옆 홍삼대리점 안골목
정운철학원
■전 화 : 010-7154-8835 / 011-241-9681

정 운 철 학 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행자 (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범 음 범 패
실제위주 교육도량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 나비무, 명리풍수
각종 불공 행사전문
1학년 무료강의, 학인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예술원)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 분 입종을 환영합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010-7232-0384

고급탱화 전문
사찰에서 스님이 직접 불사합니다.
최고급 탱화를
저렴하게 모셔가십시오.
043)853-9798

기문둔갑 실전 특강
개업, 영업반, 20년 경력 교수 직강
특별운세 상담 예약중
동방대학원대학교 (대구에서 특강함)
문의처 02) 454-3369
010-7178-870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하면서
내절 같이 하실 분.
▷제주 서귀포
010-4582-247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성
010-8954-8033

부전스님
모십니다
▷개원사
053)981-0664
010-2515-0664

저렴하고,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바라무,
작법무, 범음범패
010-4870-8359

형편이 어려워 부처님을 못 모시는 스님, 불자님께 은행나무 목불, 지장보살님 좌대 포함, 넉자세치 좌측 도명존자, 우측무득 귀왕 세분, 고급 후불탱화 40평. 어려운 불자님께 조금만 받고 드리겠습니다.
010-3650-8481

佛教儀式 (범음, 범패) 學 人 모 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타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051)524-9406 / 010-6569-1010(법선)

1. 극락사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대학) 수시 접수중
2. 극락사 명상대학 (위빠사나-간화선) 수시 접수중
3. 극락사 행자모집 안내 (4대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1) 교육복지 2) 의료복지 3) 노후복지 4) 노후연금
4. 극락사 추모원 (맑은숲 길어서 극락으로..(나들이공원) 개인단 • 부부단 • 가족단(조상,부모,형제 합동) • 특별단
5. 위치 : 서울시 지하철 양원역에서 300m 나들이 공원 약수터



대한불교 조계종 극 락 사
[종무소문의: 02)434-1717]

포교당 주지스님 모십니다
• 50세 전후 (법랍 20년 이상)
• 조계종
• 승가대, 동국대 출신스님 환영
•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52-23
• 보수 : 월 200만원
051)782-0033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844-6649

공양주보살,
사무실 직원
모십니다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전망 좋은 신도시와 근접하여 지내기 좋은 곳.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살이 운영하는 사찰입니다
▷경남 김해
055)323-4136
010-3499-3721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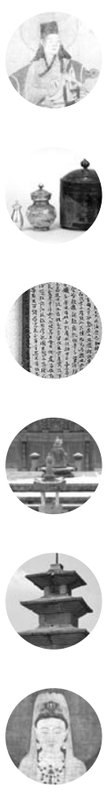
초혼 인연 (女)을 찾습니다
불자집안의 여성을 찾습니다. 불심 깊고, 미래에 함께 사찰 운영 하실 수 있는 분. 고졸이상으로 나이는 만40세 이하면 됩니다. (36세 토끼띠생은 너무 좋겠습니다)
저(男)는 경술생(40세)이며, 신장 180cm, 체중 75kg으로 고향은 경상도 입니다. 사찰 총무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스님 모시고 법사 수행 공부중 입니다. 향후 사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8152-2087 (보호자)

사무직원 모집
• 연령 : 30대후반 ~ 40대
• 사이버 대학관련 업무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로 접수
• kksw1666@hanmail.net
(사)한국불교금강선원 02-969-241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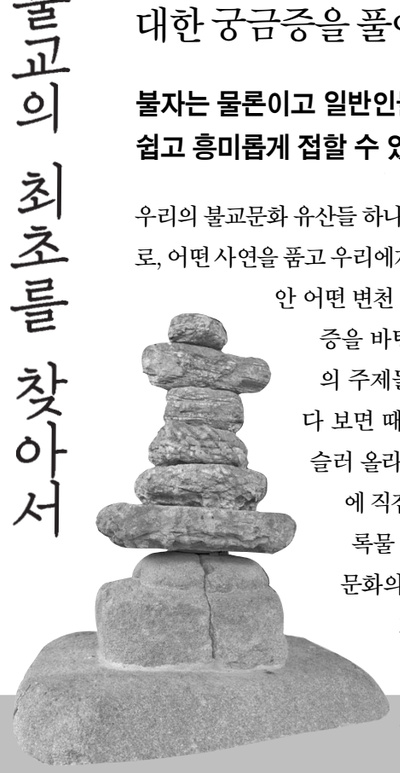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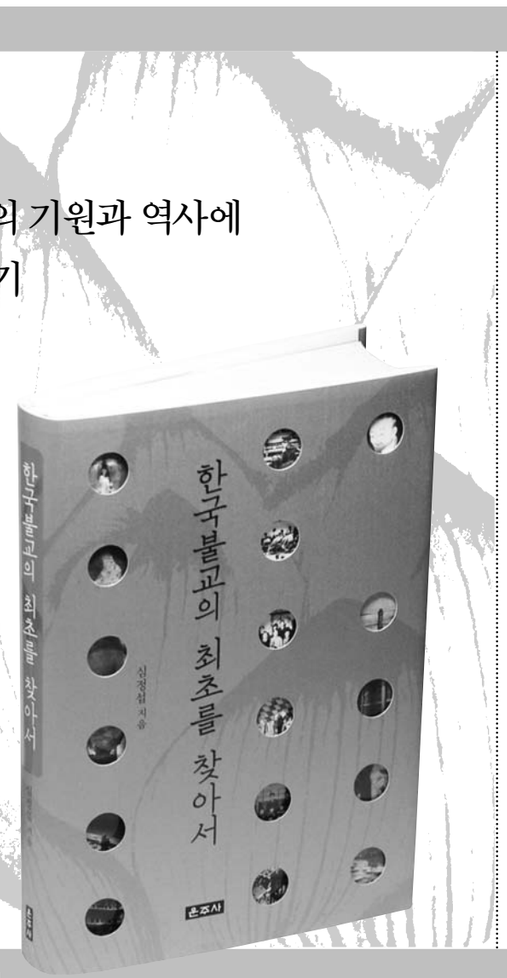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한국불교의 최초를 찾아서

이것이 한국불교 최초!
불상, 불화, 탑 등 한국 불교문화 각각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44가지 이야기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한국불교의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게 한 교양서
우리의 불교문화 유산들 하나하나는 최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연을 품고 우리에게 선보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밝혀낸다.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책장을 넘기며 따라가다 보면 때론 1,70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때론 불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한 듯, 때론 오래된 기록물 더미에 묻힌 듯, 우리 불교문화의 발자취가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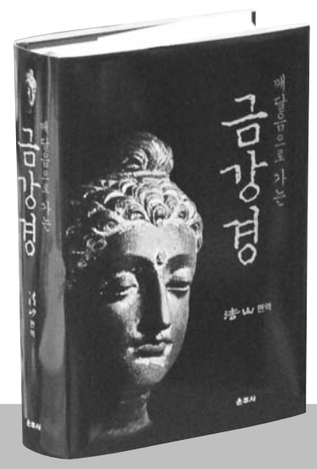


심정섭 저 | 신국판변형 | 392쪽 | 값 15,800원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다양한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자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600여 컷의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올컬러 | 764쪽 | 값 38,000원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 주문 (02) 3672-7181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불자정보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27평
- 요사 : 27평
- 부지 : 26,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북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부지 : 680평
- 가액 : 5억 3천

- 위치 : 경북
- 법당 : 50외 1동
- 요사 : 50외 1동
- 부지 : 1000평
- 가액 : 3억 8천

문화재보유사찰임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 송정 바다근처 토굴
- 대지 : 56평
- 법당 및 요사, 방3칸
- 해운대 10분거리, 송정바닷가 5분거리
- 정남향, 뒤편 산세 최고
-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1억 500만원

부산 근교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6000평
- 전통형 목조 법당 : 35평, 지장전 25평
- 요사채, 산신각, 기타 전각
-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산세완벽
- 텃밭 1500평, 주차장 300평(버스진입 가능)
- 총금액 : 15억 (감정 40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토굴및바닷가전원주택지

- 위치 : 포항 북구 월포
- 바다 접한 토굴 및 전원주택지
- 8M 도로 접
- 대지 65평, 건평 22평
- 가액: 8천 5백만원(조정가능)

010-6474-5903

사 찰 안 내

- 위치:영덕군 창수면
- 총대지 320평, 건물 2동
- 방4, 법당 약 5평, 문수전, 산신각
- 외부 지장보살 입상 약 3M
- 즉시법회가능
- 가액: 9천만원

010-5418-123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내 시장부근
- 상가 4층 중 3층
- 평수 54평, 관리비 無
- 법당1, 방3, 실내화장실1
- 도심속 최고위치 A급
- 가액: 전화 상담후 결정

055)372-3563, 3315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불사중인 대웅전 건물 무상 보시' 하고 시세 무시한 부지만 양도하겠습니다
- 평수 : 5400평
- 대웅전33평, 반지하80평,공정80%
- 전기,수도 완비
- 터널공사로 시세 및 주변환경 급등

010-4512-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천안시 대흥동
- 평수: 약 38평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 방2, 화장실2, 목욕탕
- 보증금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 현재 법회중,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41)567-0391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내동 3층건물중 2층 60평
- 법당: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 신중, 지장탱화, 인등400,소불 108
- 시설: 방3, 종무소, 산신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절충가능
- 소임관계로 급하게 안내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450-7712

포교원.도심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치전철역 3분거리
- 3층 방5개
- 4층 방 3개, 공양간
- 5층 법당, 각층 40평
- 가액: 1,000만원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최고요지, 최고시설

010-3198-89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
- 평수 : 412평 (대지278평, 전134평)
- 법당 24평, 스님채 21평 요사채 36평
- 심야보일러와 심야온수기 완비
- 가액 : 2억

016-9277-0092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종교용지 300평, 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 시설용도,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벽돌 스래브 40평
- 38평(2동) 외 2동(30평)
- 토지: 종교용지 (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등 적지)
- 가액: 10억 (조절가능)

010-3822-4565(일과 시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하도읍 구암리
- 평수 140평, 대웅전, 산신각,
- 주지실, 요사채, 시설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비구니스님께 최적
- 전세 7천만원

011-289-2719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3억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가액 : 2억 3천(가격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 모란시장 뒤 (공설운동장 후문)
- 전철 8호선
- 법당 40평, 방2
- 주차 다량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010-9565-3638

포교원.도심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치전철역 3분거리
- 3층 방5개
- 4층 방 3개, 공양간
- 5층 법당, 각층 40평
- 가액: 1,000만원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최고요지, 최고시설

010-3198-89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2층 33평,법당,종무소,화장실1 3층 방3,화장실2,공양간
- 보증금 1500만원,월75만원 (방문상담환영) 시설비 4700만원 (시설 일체 갖춰져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4504-78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구,시장통)
- 5층건물중 2층 전체(약70평) 방2개,공양간,남여화장실
- 도심포교최적지(불교도시)
- 보증금,시설비포함3500만원 (월40만)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함 오후3시이후 연락바랍니다 (모든 주방용품, 침구일체)

011-212-7709

포 교 원 안 내

-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정문 앞
- 3층상가 건물에 2층 법당
- 평수 50평. 방2,주방1,화장실,욕실
- 최고시설, 도심속에 최고위치좋음
- 가액 :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대지198㎡(332평)
- 평당 40만원
- 큰방20평(정남향), 호원채15평
- 방4,부엌2개,욕실2,화장실4
- 마당넓음,텃밭,태양광설치 (전기세무료)
- 암자토굴가능. 마을끝 높은집

010-9808-1312(주인직)

깔끔하고 아담한 주택

포교원 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보살님,불자님께

- 위치 : 전주시내
- 대지 65평, 건평33평
- 큰방2, 작은방2, 화장실2 집안조경 잘 되있음
- 가액 : 1억4천(저금리대출가능)

010-3650-84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시내 중심지 안양역,명학역 도보10분
- 2층 50평(법당,주방,침실 등)
- 전세 : 보증금5천만원, 월세2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3천만(시설완비)
- 삼존불 외 시설완비

010-5495-467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 대지 100동
- 1층-요사채 30평 (공양간 현대시설 완비)
- 2층-법당 25평. 주차장 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없음

011-590-2878(주인직접)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산동
- 40평, 집기일체
- 시설비 포함 4500만원
- 3층 건물에 2층

010-8871-533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구,시장통)
- 5층건물중 2층 전체(약70평) 방2개,공양간,남여화장실
- 도심포교최적지(불교도시)
- 보증금,시설비포함3500만원 (월40만)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함 오후3시이후 연락바랍니다 (모든 주방용품, 침구일체)

011-212-77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대연동 재래시장 부근
- 평수 : 2층 60평
- 법당 30평, 방 3, 주방 大 1
-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700만원(절충가능)

010-9342-979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감만1동 재래시장 앞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주인인정)

010-8108-0108

시내사찰안내

- 위치: 인천 동구 박문사거리 근방 전철 제물포역 도보 10분거리
- 대지 약 45평
- 1층 단독건물,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부엌
- 화장실, 도시가스, 거실, 상담실
- 투자가치성 있음 • 융자 6450만원
- 가액: 1억 9천만원

010-4517-37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역세권
- 평수: 4층 건물 중 2층, 4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조절가능
- 즉시법회가능

011-716-3811

사 찰 안 내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 2000여평
- 법당 :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건물 1동, 1층건물 3동(방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 13억
- 꼭 사실분만 전화 주세요

011-412-2464

사찰(급)안내

- 위치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내 사찰
- 대지 162평, 요사채 37평
- 방2, 주방, 거실, 컨테이너 방2 법당 15평
- 납골공원 대지 182평
- 가액: 2억 5천만원

053)543-5551

서울근교사찰

(비구니스님에 한함)

- 위치 : 서울30분거리 20만신도시
- 남양주시 오남지역 호숫가
- 주차 및 토지 500평 가건물
- 법당 30, 요사채 70평,
- 별채 20평, 모든시설완비
- 전세 1억원, 월세5천만원 월 50만원
- 정법승려환영, 무속스님 제외

010-6600-13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사림동
- 평수 : 실평수 50평 법당 25평, 방大1, 小1,
- 주방大, 화장실1, 욕실1
- 보증금 500에 월60만원
- 시설A급, 시설비 1천3백만원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 즉시법회가능

016-9315-36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50만원(조절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명시 (위치 좋음)
- 3층건물 3층, 총 45평
- 법당 20평, 분리됨
- 방2, 공양간 12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 8년 포교 불사관계로 급 임대

02)2618-09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이동저수지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삼성각 7평, 호신불 108불
- 주차 30대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215-97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남양주 진접 장현리
- 법당 30평
- 요사 30평(심야보일러)
- 방3, 주방거실, 화장실3
- 공양실(콘테이너) 3m×9m
- 대지 264평(시유지: 50평별도)
- 가액: 5억

010-8643-6676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20평, 산신각5평, 요사채 10평,공양실15평
- 연못, 식물, 5층탑, 해태(2마리)
- 가액 : 9,500만원

011-9004-14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소재
- 부지: 약 5,000평(대지300평)
- 법당 : 40평(대적전,관음,지장전)
- 요사:약80평(방9,주방,창고)
- 요양원,고시원,종단설립 본산 등 대작불사 가능한 동남향 야산 사찰
- 가액 : 5억5천만원

010-9217-4911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 시내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3천(조절가능)

011-595-15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시내 시장부근
- 상가 4층중 3층
- 평수 54평, 관리비 無
- 법당1, 방3, 실내화장실1
- 도심속 최고 위치 A급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55)372-3315

일본사찰(급)안내

- 위치 : 후쿠시마
- 총평수 약 400평
- 요사채 약 30~40평
- 법당용 약 20평
- 미니 2층

010-2003-3944

암자·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거창 토굴터, 1017평
- 가액: 1억 4천만원

011-9393-49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유동인구 많음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5백만원 합 39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역전 근처
- 건물 특 A급, 법당, 부처님관세음, 약사 지장 칠성, 동자 분수대 종합탱화
- 평수 3층, 주택 중 1층 25평
- 주차장용도 창고 있음
- 1층 단독 사용, 방3, 주방, 거실, 화장실
- 스님, 보살님, 철학인 환영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합 1300만원

010-8675-31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031)677-9950~1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실등기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3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1-3815-9104

사찰(급) 안내

경남 창원 우포늪속 아담한 명당터

- 대지 360평(실제사용 600평)
- 법당(조립식 23평)
- 다용도실 23평(단청되어있음)
- 적벽돌 기와 요사채 27평, 황토방 4평,석탑
-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2억 2천만원 (시설비 답사후상담)

010-6582-2848

도심사찰(급)포교원안내

- 위치 : 용인시 죽전동(분당과 경계위치) APT대형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평 (분양-평당 300만 이상함
- 1억 이상 들여 원목, 단청, 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크신 스님 최고지, 현재 운영 잘 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스님께 양도
- 4억 1천만원(거의 분양가격임) 급급 빠른 연락 요함

017-265-9367

사찰(급)안내

- 위치: 김해시 요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315평, 건물 3층 180평
- 3층 60평 법당
- 1층 2층 120평요사
- 12억짜리 8억에 급양도
- 연등 1000개, 인등 500개
- 큰스님 직
- 은행대출가능 4억가능 4억에 몽땅 인수

011-869-8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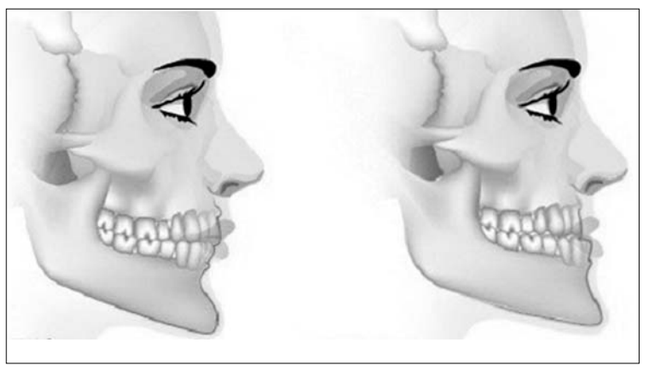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39 주걱턱

교정 후 좋은 인상 가질 수 있어

주걱턱은 아랫턱이 윗턱에 비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걱턱의 특징은 긴 얼굴, 앞니의 교차교합, 어금니를 물었을 때 위아래 앞니 간의 틈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치아의 교합이 잘 맞지 않아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을 뿐 아니라 3급 부정교합이라 해서 아랫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교합 없이 턱의 길이만 긴 경우에는 긴 턱, 또는 긴 얼굴이라고 합니다.

주걱턱은 어린 시절에는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래턱의 성장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어 주걱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걱턱은 얼굴 전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입 주변 부분이 과장돼 보여 인상이 사나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으로 치아 배열을 정리하면 인상을 훨씬 부드럽고 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좌: 정상 턱, 우: 주걱턱.

만약 어린 시절 주걱턱을 교정하게 되면 보다 더 쉽게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있지만, 대개는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주걱턱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이 왕성한 어린 시절에 교정을 진행하면 결과가 좋을 수 있으나 문제는 이 연령층으로부터 치료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린 시절에 교정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 시절 치아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걱턱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성장이 완료된 후에도 교정을 계속해야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턱수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교정의 목적은 얼굴 모양을 개선해 줄 뿐 아니라 치아 교합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얼굴 형태로 만들어 외모 콤플렉스에서 해방되는 것이 정신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의 5~17%가 주걱턱이라고 합니다. 주걱턱은 서양인에 비해 한국, 중국, 일본 등 극동 아시아 사람들에게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주걱턱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질환에 의한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부모 중 한사람이 주걱턱 일 경우 자녀 역시 주걱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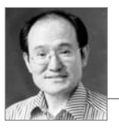
주걱턱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자꾸 아래턱을 내미는 행동이나 잘못된 저작(씹는)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으로 얼굴 모양이 비뚤어지는 경우가 유전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지배적이어서 턱을 괴거나, 다리를 꼬거나, 엎드려 책을 보는 등 잘못된 자세를 습관적으로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턱이 비뚤어져 체형불균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턱의 발육이 잘되지 않는 경우 주걱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자세 습관에 의해 주걱턱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바른 자세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주걱턱은 성장하면서 얼굴의 추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모를 중시하게 되면서 이런 콤플렉스를 더욱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열도 고르지 않아 음식을 섭취하는 기능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발음도 부정확하고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기가 힘이 듭니다.

주걱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어릴 때부터 아래턱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거나 나쁜 자세 습관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바른자세로 예방을 해야합니다. 주걱턱의 후천적인 요인이 바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27 걷기운동

무작정 걷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심폐기능을 강화해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뼈를 튼튼히 하려면 많이 걸어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걷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걷기가 몸에 좋은 것은 운동이 될 경우에 한해서다.

운동이 될 수 있는 좋은 걸음은 넓게(보폭), 빨리(속도), 오래(시간), 바르게(자세)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연구에 의하면 운동이 될 수 있는 좋은 보폭은 천천히 걸을 때는 키의 37%, 조금 빨리 걸을 때는 키의 45%가 이상적이라고 한다. 170cm의 키를 가진 사람이라면 천천히 걸을 때는 63cm 정도, 빨리 걸을 때는 76cm 정도의 보폭이 적당하다. 보도블럭의 크기가 큰 것은 30cm, 작은 것은 20cm 정도이므로 보도블럭 3개 이상의 보폭이 좋은 보폭인 셈이다.

보폭이 중요한 이유는 다리 및 허리주변 근육의 사용 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보폭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하체의 근육은 평소와 다른 운동효과를 얻게 된다. 걸음의 폭을 자기 어깨의 1.5배 이상으로 넓게 걷는 것이 필요하다.

걷는 속도야말로 걷기를 운동과 노역 사이에서 구분 짓는 최우선 요소이다. 느릿느릿 걸어봐야 피로만 쌓일 뿐 생각만큼의 운동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보통 사람들의 보행속도는 시속 4㎞정도인데, 운동으로서 걷기 속도는 이보다 25~50%정도로, 빠른 시속 5~6㎞가 적당하다. 이 정도 속도이면 숨이 조금 가쁘고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이다. 이 속도로 30분 쯤 걸으면 혈액순환과 심폐기능 강화효과를 충분히 얻게 된다. 허리춤에 차는 만보계로 보면 1만보는 대략 30분 전후가 소요되는 거리다.

그러나 나이와 체력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의 최대 심장 박동수(220—나이×0.7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속도와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 나가야 한다. 적당한 운동 횟수는 매회 30분 이상 주 3회 이상이 좋다.

걷는 모습을 보면 노화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허리를 펴고 팔다리에 가볍게 힘을 주면서 발앞꿈치로 걷는다는 기분으로 걸어야 한다. 좋은 자세는 쾌적한 보행의 기본 요건인 동시에 운동효과를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다.

올바른 식이요법은 운동능력을 최대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빵, 국수, 감자, 과일, 밥 등에 많은 탄수화물은 격한 운동을 하는 에너지의 중요한 원천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음식을 자주 먹어야 한다. 운동시작 1~2시간 전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인 우유, 바나나, 빵 등을 먹으면 운동 중 에너지의 방출이 용이해 진다.

운동 중에는 땀을 흘리면서 수분과 아울러 많은 전해질이 소실되므로 물과 함께 이런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감자, 고구마, 바나나, 오렌지주스, 자몽, 멜론 등이 좋다. 세계적인 테니스 시합 도중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모양은 우습지만 운동생리학에 밝은 훌륭한 코치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다.

빈속에 많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흔히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는 하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빈속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다음 식사에 필요 이상의 많은 음식을 본능적으로 먹게 된다. 운동도 제대로 안되고 오히려 체중만 늘게 된다. 빈속에 무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운동 직전에는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운동 시에는 소화기에서 근육으로 혈액이 이동해야 하므로 운동 직전의 과식은 소화과정에 장애를 유발한다.

아침식사는 항상 해야 한다.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 운동을 한다면 운동 시작하기 10~20분 전에 소량의 음식, 주스나 빵 한조각 등을 먹으면 운동 시 피로를 덜 수 있다.

저녁식사 전이나 저녁 늦게 운동을 하려면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주된 식사로 하고 에너지 수준을 올리기 위해 오후 늦게 간식을 먹는 것이 좋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35 태권도 역사의 진실2

가라테의 잔재 극복이 과제

전호에 이어 태권도 국기원 이종우 부원장님이 언급한 태권도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역사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통무예에서 태권도의 원류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신종 무예로 보는 관점입니다.

한국 태권도계는 오랫동안 전자를 대변해왔지만 여기에는 전통무예와 태권도를 연결시킬 만한 구체적인 물증이 빠져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최근 소장파 학자들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제기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들은 "가라테 유입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위에서 가라테의 잔재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기화된 태권도는 가라테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품새 등에 아직까지 가라테의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많은 태권도 교본들이 태권도의 뿌리를 삼국시대 이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이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이종우 부원장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책을 썼다고 합니다. 태권도를 해외에 보급하는 초창기에는 태권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고 하면 명분이 서고 보급이 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사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역사적 원류로 본다면 중국 것이 일본으로 들어가고, 다시 일본 것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8 · 15광복(1945)이후 도장을 연 사람들은 모두 가라테를 했습니다. 기본기를 놓고 볼 때에도 당시 태권도는 가라테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무예와 유사성은 없다는 얘기인걸까? 언뜻 보기에는 있는 것 같지만, 기본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사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광복 이후 태권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 무술은 가라테 뿐인가? 다른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우 부원장 역시 "나도 별의별 것을 다 끌어들여서 책을 쓴 사람이지만, 이제는 밝힐 때가 됐습니다. 가라테를 가르치는 관장들이 모여서 태권도의 형틀을 만들었고, 그 실무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계 정상에 있으니까 밝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택견은 한국 전통무예를 논할 때 1순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택견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국 택견의 마지막 명인으로 꼽히는 故 송덕기 옹에게 직접 사사한 사람들은 당시 "태권도에 한국적 정서가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가라테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불자정보
806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시내
• 법당1, 방1
• 부엌 옥상 사용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400만원
010-8512-6368

사찰(급)안내
• 경북 성주군 금수면 소재
• 경관이 수려하고 정동남향
• 관리지역 800평
• 현재 컨테이너 10평 삼존불(기도할 수 있음)
• 가액: 8천 5백만원
• 전기, 화장실, 우물 있음
• 주차시설완비
010-5248-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땅 80평, 요사채 20평
• 법당 15평
• 포교하기 적당한 곳
• 가액: 1억 6천만원(절충불가)
• 주인직접
011-792-8969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
• 대지 105평(텃밭 포함)
• 건평 200평(3층)
• 2층 법당, 주방, 거실, 방2 화장실 3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 서울에서 1시간 소유
• 요사채 50평, 방 5, 산신각(목조단청) 15평 농장 2천평, 폭포수 용궁 100평
• 백년송 소나무밭 경치 좋음
• 와불산 산기슭에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 원합니다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5천만원
011-1703-2770

한옥 건물 및 부지 안내
• 위치: 부여군 장안면 지토리
• 사찰 건물로 최고위치
• 대지 650평, 건평 90평
• 별도 건물 약 20평 정도 존재
• 상태 양호
• 가액: 4억
010-2006-1899

사찰 또는 팬션 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자락
• 주변경관이 수려함
• 대지 : 372평
• ㅁ자 한옥 70평
• 사용할 수 있는 하천부지 350평(주차장부지로 적합))
010-9226-6060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순환 전철 .부평 시장 옆, 도보로 5분거리
• 부평시장 가구단지길 입구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4층건물 중 3층, 전체 100평
• 법당 大, 접결실 1, 방2, 주방大, 실내화장실 2, 창고, 기타
• 보증금 1천만원, 월 120만원
• 꼭 하실분 오후 2시 이후에 전화주세요
032)519-1108

사찰대출안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대출이자는 1억원 대출시 월62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2. 대출상환은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개인명의 뿐아니라 단체명의 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상무 이강욱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 수록된 마크 일체 특허출원 상표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KOREA – MYANMAR
FRIENDSHIP INTERCHANGE ASSOCIATION
외교 법인

LEADER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종교 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세계촌 곳곳에서 땀 흘려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땀 흘려 봉사해 온 30년의 세월들...

극빈지역 초등학교 설립, 빈약한 사찰 보수지원, 우물파기 운동, 승려 교육자료 지원, 극빈지역 출가의식 지원,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국제붓다사리 박물관 및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문화원 개원(공식승인), 수해지역 복구지원, 학교건립 자선바자회, 이외에도 예술인 상호교류 공연, 교육자재지원, 아웅산묘**지 폭파** 순국선열 천도재, 비구니 스님 수행처 건립 제공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나눔의 행사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극빈지역 초등학교 설립 (수카까미 초등학교)


미얀마 연방승가회 종정


문화원 예방 외무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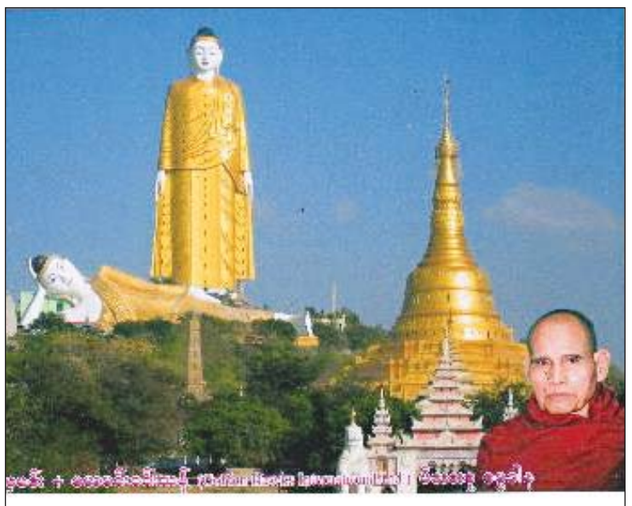

비구니 수행처


국제 붓다사리 박물관


빈글라동 띵간주지역 외 우물파기 운동


신뿌식


우물파기 운동 전개



6층 한국 법당에 대형 후불탱화와
대불 4분을 한국에서 조성하여

12월 9일 봉안 및
점안식을 봉행 합니다.

코리아 대법당 (140m 대불 6층 코리아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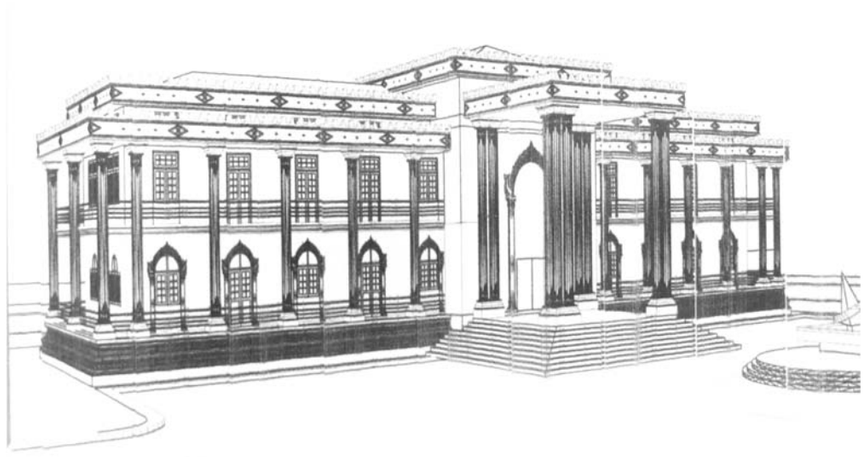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명예대사 직무실 **대표전화 02)733-5665**

힘들고 고통스런 길고 긴 산고 끝에 드디어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와 불교홍법의
사명 앞에서 부처님을 감동시킬 회향의 야단법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지구촌
구석구석 고통받는 가족들의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조건없고 이유없는 보살의 마음 (慈悲喜捨)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자애로운 미소를 바라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같이 동참하여 기쁨의 땀 흘립시다.
극락이 여기 있습니다.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조감도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오직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걸 매달리십시오

한 가정을 잘 이끌어 가려면…

문) 저는 얼마 전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고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한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답) 우리 모두가 인연의 법칙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발전도 될 수 있고 물리가 터질 수도 있고 모든 면에 지혜로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도 고정됨이 없습니다. 못나도 못난 걸로다가 내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났어도 아주 잘난 걸로 내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열두 번뿐이 아니라, 열두 번이다 하면 해우년을 따져서 얘긴데 그건 열두 번이 열두 번이 아닙니다.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지혜가 딱 막혀서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악한 일도 할 수 있고, 모두가 몰라서 죄가 있는 거지 누가 알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업보니 죄업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모르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말입니다, 남편이다 부인이다 부모다 자식이다, 이 애로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애로점을 어떻게 해야만이 슬기롭게 방지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단에 가야만 부처님 법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고 절대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한 분 한 분 계시니까 부처님도 있고, 한 분 한 분 계시니까 부처님 법도 있는 거고, 한 분 한 분 계시니까 바로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식구가, 생명의 근본은 한식구가 똑같습니다, 이 전력이 똑같듯이. 안 그렇습니까? 팔만대장경에 그 어려운 한문으로 된 거를 지금 푹 내려 가지고 지금 가정에다가 적용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부처님 법이니까.

지금 모든 생명은 똑같은데 모습은, 이 전구는 전부 다르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전력은 같습니다. 크면 큰 걸로 전력이 조금 더 들어올 뿐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전력이 덜 들어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다섯 식구다 하면 주인공이 다섯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고 보려야 볼 수도 없고 만지려야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지 못하듯이. 그러나 틀림없이 전력은 있지요. 틀림없이 우리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여러분이 '아유, 쟤는 쟤고 나는 나고.' 요렇게 각각 본단 말입니다, 전력이 다 똑같은데도 '저건 저 거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력이 어떻게 하난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든가 부인이든가 또는 부모든가 자식이 어떻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돼서 나가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부모 속을 상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들어오기만 해 봐라. 요놈의 새끼 가만 놔두나.' 그럽니다. 또 남편이 잘못하고 들어온다면 '들어오기만 해 봐라, 그냥 두나. 작살을 내고 말지.'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섯 식구든 여섯 식구든 그렇게 살아나가는 데에 어느 누구가 잘못돼 가지고 속을 썩이면 '죽일 놈' 소리가 그냥 허영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고 나갔다가 도로 들어오고 이러면 좀 따뜻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폭력이 나갑니다. 그럭하면 안 되죠.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아이고, 추워. 따뜻한가 하고 들어왔더니 또 추워.' 그러니깐 또 나가죠.

그러나 이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어이, 저 마음도, 저 전력도 내 전력도 똑같으니까, 저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똑같으니까 다 당신만이 저 애를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을 때, 진정코 맡겨 놓을 때, 진정코 믿고 맡겨 놓을 때, 속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맡겨 놓고 입으로는 "어휴, 너 배 안 고프냐. 나갔다 들어와서 피곤하지 않으냐. 어디서 그렇게 지냈니?" 하고 따뜻하게 말해 주고 따뜻한 행동으로써 따뜻하게 해 주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때는 귀에 띄고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불이 거기까지, 전력이 둘이 아니니까, 전력을 거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으니까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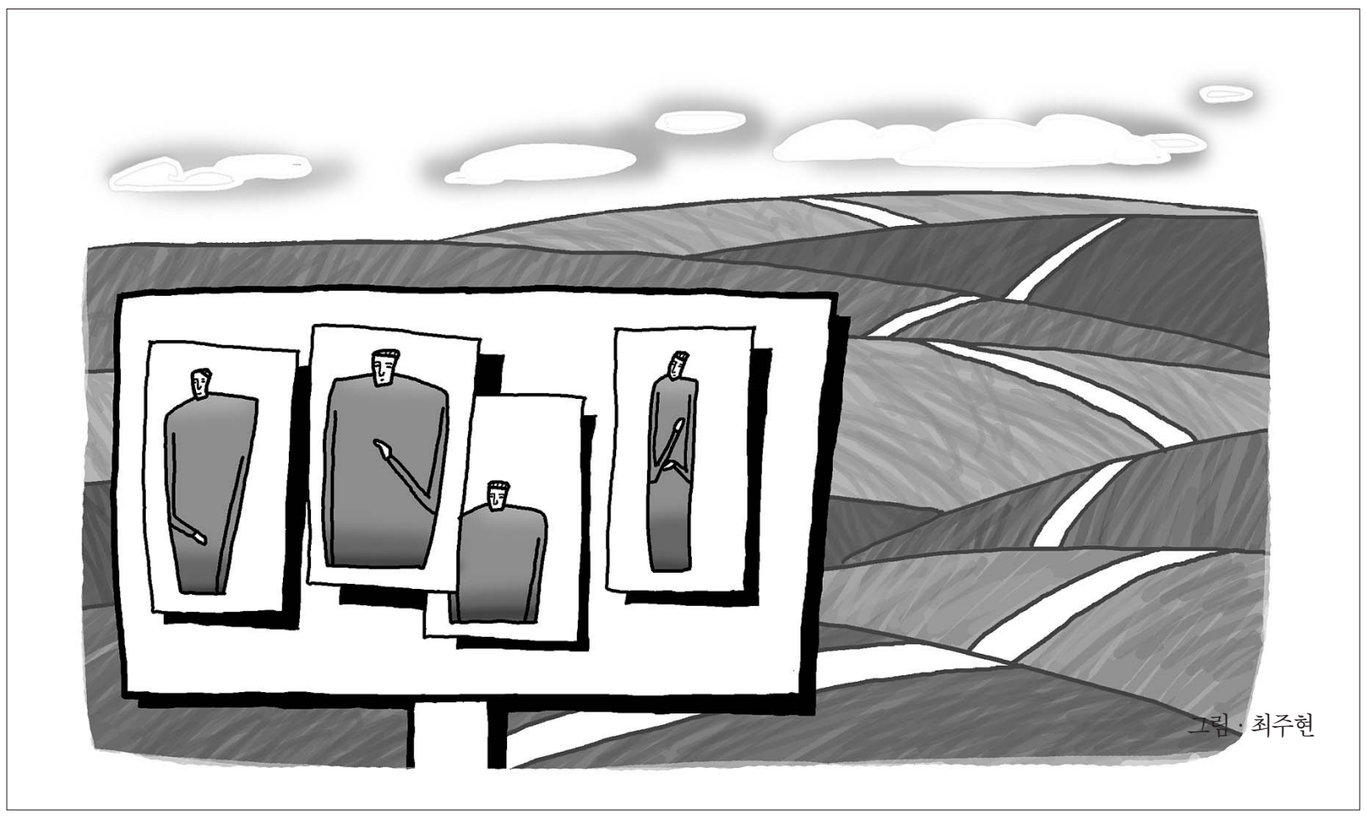
그래서 그렇게 맡기고 남편이든 자기든 자식이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천차만별로 돼 있는 거를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맡겨 놓고 그렇게 아리땁게 잘 다독거리고 사랑해 준다면 그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식구가 어떻게 조건이 있이 사랑을 합니까? 식구라면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지.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그렇게 사랑하듯. 이익을 취해서 자식을 기릅니까? 그렇진 않으시겠죠? 자식이 잘돼서 잘 살기만 바라고 부모는 자식을 기릅니다. 그러니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어떠한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어떠한 강도질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색을 하질 말고 모든 거를 부드럽게 말을 해 나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에다 맡겨 주면 걔 마음 전구에도 내 마음 전구에도 불이 들어와서 걔까지 심지가 올라가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그것이 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해 나가면 벌써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 이렇게 자꾸자꾸 해 나가니까 판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벌써 달라져요. 사람도 달라지거니와 사람이 달라지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니까 화목이 오죠. 화목이 오니깐 돈도 들어와요. 돈도 아주 잘 압니다. 그 집안이 살벌하고 아주 악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돈이 들어오다가도 '에이그, 난 너희 집에 안 가!'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받을 게 있어도 내일 준다 모레 준다 그러고는 안 들어와요, 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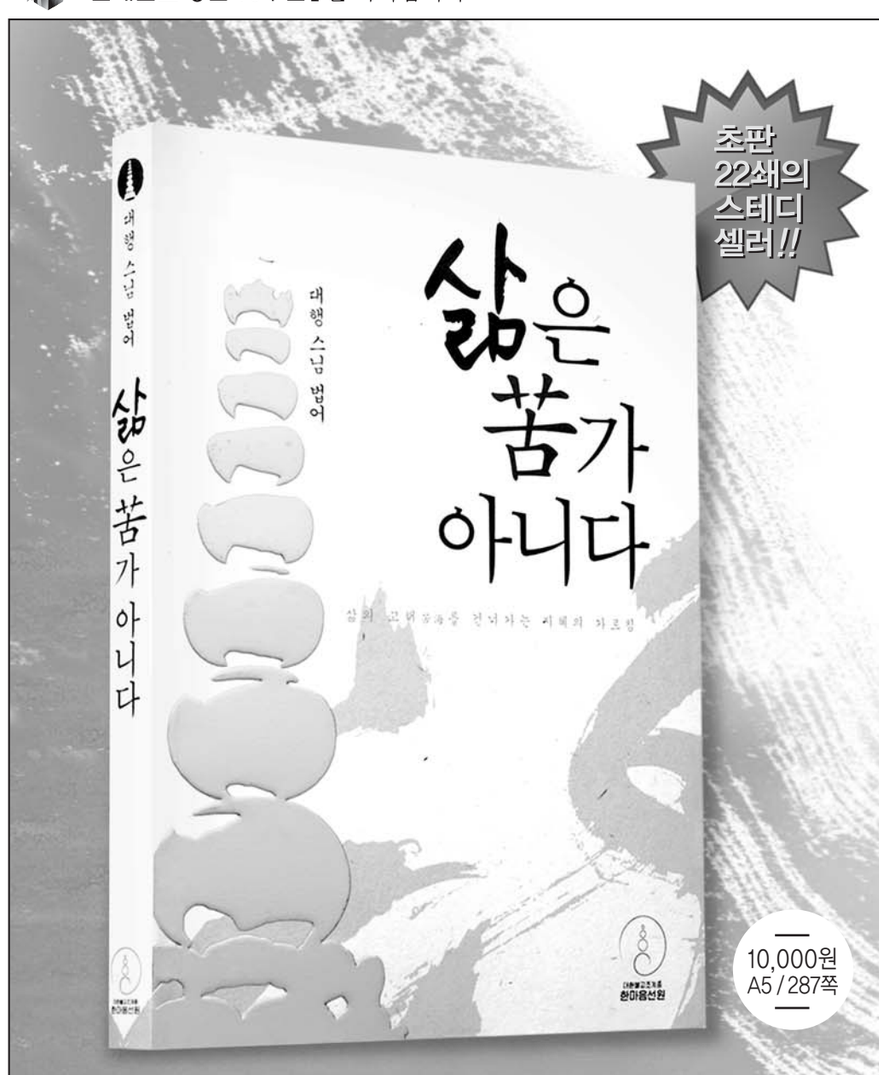
그 모두가 그런 업보에서 즉, 유전성에서 인과성에서 세균성에서, 영계성까지 첨부해서 내 집의 주인이 없다면 그렇게 살벌하게 들고 나면서 내 집은 망가지고 내 집은 악해질 수밖엔 없고 내 집은 그렇게 선후가 없이 천차만별로 변질이 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악한 마음을 지워 버리지 못한 채 육신은 썩어 가고 말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루는가 하면 나쁜 업보도 다 제거하고 애고도 제거하고 병고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안에서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쓴다면, 안에 그 수십억의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몸뚱이 안에 말입니다.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

☞29면에서 계속

그것이 악업 선업이 바로 의식들이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그렇게 착하게 쓰고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마음을 하고 착한 행을 하고 그러면 모든 식구들을, 바깥의 식구들을 착하게 만들고 안의 마음도, 그러니까 안의 식구들도 그 마음을 따라서 수십억의 그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 준다 이겁니다. 한마음으로 따라 주니까 '아! 이렇게 된 사실이구나.' 하고선 속에서 알고는 전부 화해서,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의 화신이 돼 줘요. 보신이 돼 주고 화신이 돼 주고 법신이 돼 주고 부처가 돼 주고. 이렇게 하니깐 모든 게 이 한 의식이 전부 이렇게 한데 모아져서 기둥이 돼서 하늘을 받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공양물 올릴 때의 마음가짐

문) 우리가 보통 정성을 들인다고 하면서 부처님 전에 공양미나 초 또는 꽃 등 가지가지 공양물을 올리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올려야 하는지요.

답) 이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사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생이면서 공심이고, 공심이면서 공체고, 공체면서 공용이고, 공용이면서 공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심으로서 해야 공덕을 받죠. 공심이 아니라면 공덕이 안됩니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없다고 말한 원인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시의 물 한 그릇 가지고도 영령들의 큰 목욕탕이 될 수 있고 꽃 한 송이 가지고도 영령들의 집합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양이에요, 꽃공양. 향공양, 모두가 공양. 그래서 이 공양을 정말 알고 내려 먹는 사람은 그건 제 밥 제가 내려 먹는 거고, 알지 못하고 그냥 부처님 밥 먹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밥을 자기가 내려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에서 공양 올린다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도의 길입니다. 그 뜻이 뭔지 모르니 걱정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해서 공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이게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 공덕이 되지 공심이 아니고 그냥 갖다가 내 아들 내 남편 잘되게 뭐, 그러니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공덕으로 적용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 마음도 그래요, 쌀을 갖다 놓고 초를 켜고 그럴 때 벌써 이 촛불을 켜는 게, 내 마음의 불을 켜고 나면 내 이 몸이 타서 깎아지는 듯한 그 애처로운 그 마음으로, 그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지, 부처님께서 공심인데 내가 공심이 아니면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이 발우공양도 공양이라고 그러죠. 왜 공양이라고 그랬느냐. 스님네들만 앉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네들은 곤충의 바가지예요. 중생들의, 즉 말하자면 주머니들이란 말입니다. 그 주머니 구멍 뚫린 데로 그거를 넣어요. 주머니 구멍 뚫린 데로 넣는다고요. 거기서들 죄 제가끔들 모두 먹는 겁니다. 그러고 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자라느냐? 이 사람 하는 행동 따라서 그 의식도 다 거기에 따라서 가거든요. 먹기 싫어도 주는 대로 먹는단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았으니깐 살기 위해서 우리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머니라는 걸 몰라요, 모두. 곤충의 주머니라는 걸 하나도 납득을 못해요. 그런데 그 구멍 뚫린 데다가 넣어 주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 속의 곤충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의 독이 있는 곤충의 주머니냐, 독이 없는 곤충의 주머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저 독이 있는 주머니에서는 독성이 생산이 되는 거고 독이 없는 주머니에서는 독성 있는 데 잡혀 먹히고 이러더라도 선의가 발생되는 거고 그런 거죠.

> **부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 **바로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시니**
> **바깥으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정신계에서 정신을 뺏어 먹고 사는 거니깐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신계의 내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요. 정신을 뺏어먹고 정신을 뺏기고 이렇게, 육이 있는 거는 육을 뺏어먹고 죽이고 살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을 뺏기고 그때서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스러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의 곤충의 주머니를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거를 나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그대로 놓고 가야 한다. 그대로 남을 섭섭지 않게 해야 한다. 말을 항상 조심해서 그냥 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성을 내고 하면 저쪽도 감촉이 좋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곤충이 빨리 이게 진화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빨리 되려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을 이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 곤충의 주머니로 치시고 항상 그 곤충 주머니나 곤충이나 둘이 아니고,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에 바로 믿어지는 게 있어야만이, 그 믿어지는 거 그 방망이 하나면 이 온 우주를 때려잡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방망이, 주인공이라는 자기 뿌리인 불성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 마음공부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문) 요즘 저는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관하라고 하지만 너무 아플 때는 관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어떡하면 좋을 까요, 스님?

답)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병을 고쳐 주러 나셨지 육신의 병을 고쳐 주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건 왜냐. 마음의 병을 고치면 육신의 병은 스스로서 자기가 약사가 되고 관세음이 되고 전부 하는데 무슨 그렇게 이것저것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병이 아니라 공부하라는 재료지요, 그게. 그것도 말입니다, 생각을 '아이구, 내가 이 어지러움 병이 생겼으니깐 그저 가서 보약이라도 지어 먹고 이럭해야겠다.' 그러고 바깥으로 떠도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으로도 이 공장이 많은 세계, 이것도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세계라고 그러지만 이 몸 안에서도 이 몸 안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그게 세계래요. 아, 나라가 좀 많습니까. 위나라, 대장나라, 소장나라, 식도나라, 간장나라, 방광나라, 콩팥나라,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데 합쳐서 지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전부 내면이나 외부 모든 것을 바로 그렇게 한마음으로서 해 놓아야죠. 그 한마음으로 된 것이 헤아릴 순 없습니다. 유생, 무생, 무의 법, 유의 법 모두 사생이 다니까 말입니다. 천차만별이니까요.

주인공이라는 게 한마음으로 된 하나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개별적인 주인공으로만 알지 마세요. 포괄적인 주인공입니다. 그 생각을 넓게 하세요. 그 한마음의 주인공만이 이 안의 모든 공장들을, 나라들을 지배합니다. 내가 생각이 그렇다면 거기 그 생각하기 이전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법신들이 그냥 거기서 전부 통신을 합니다. 이것을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되지만 불가에서는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진으로다가 탁와 가지고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요소, 판단력과 들이고 내는 작업과 통신력, 이것을 누진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누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 3미터 안으로 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보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든 것을 '아하, 내가 병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어떡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거로구나. 아이고,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로구나.' 하고 딱 생각을 하는 동안에 바로 그 어지러움증은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왜. 속지 않으니까. 그냥 바둥바둥하고 그렇게 속아서 애쓰면 재미있거든, 또. 무서워서 벌벌벌벌 기는 놈은 더 무섭죠, 왜. 그러니 그거를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자체가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한문으로다가 그냥 역설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세상 법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바깥으로 찾지 마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백억화신도 계시고 중생들도 그렇게 많으니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신다면 이 속에 든 그 중생들이 전부 바로 보살로 화한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이 몸속의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아, 첫째 마음 편안하니 좋지, 중생들 제도해서 보살로 화하게 만드니 좋지, 내 가정이 화목하니 좋지, 우환 안 끓으니 좋지, 병고 없으니 좋지. 병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겁이 나질 않죠. 이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요, 바로 자유스러운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새 자식이 입시생이 되었습니다

문) 어느 새 자식이 입시생이 되었습니다. 애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식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말이죠. 근데 다른 것보다 자식 문제는 잘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몰락 놓을 수 있을까요?

답)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마음도 그것이 댁의 진짜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기 모습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진짜로 믿는다면 잘못하는 게 보이면 잘못하는 걸 한데 모아서 그냥 공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모든 거를 주인공에 딱 맡기면, '당신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곤 그냥 딱 맡기면 그렇게 편안한 거를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자기 일들은 누가 합니까? 제삼자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깐 오직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걸 매달리십시오. '너만이 해결 할 수 있다. 이 모습 가진 모습하고 정신계와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요. 그거는 댁이 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꼭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도 꼭 그 대가를 치르고야 그 물건을 사 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다소 돈이 많든 적든 넣어서 모자라는 그릇을 채워라 하고 정성을 들여 주고 그렇게 자꾸 관해 주고, 그렇게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잘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맛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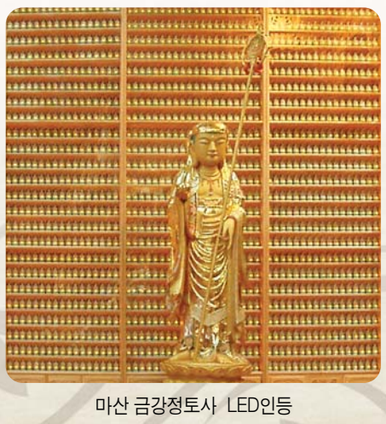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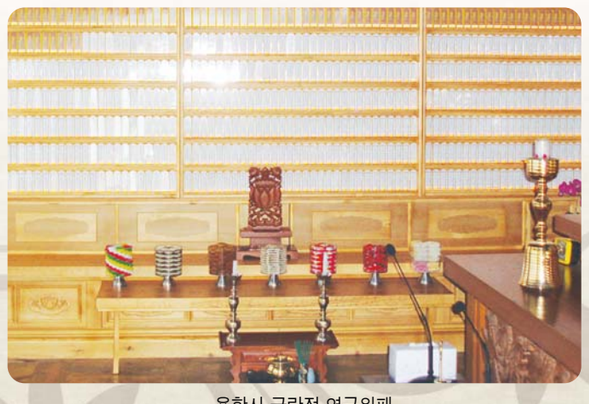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노벨상과 국격 〈國格〉

한국에 사상 첫 노벨문학상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고은 시인이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도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노벨문학상의 기대는 헛된 희망으로 그쳤다.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하는 여론도 있다. 국내 독서계가 과연 세계 수준의 문인을 길러낼 만한 토양을 갖추고 있느냐는 반성이다.

이미 두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내놓은 이웃 일본과의 차이는 서점에서 쉽게 드러난다. 올해도 수상 후보로 오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IQ84>는 일본에서 무려 400만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도 100만부이상 팔렸다고 한다. 시대를 반영하고 깊은 사회적 성찰을 하며, 대중적 기호가 담긴 작품을 왜 쓰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한글 번역의 어려움이 문학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벨 문학상은 시대적 정신 또한 중요시 한다.

한편으로 일본은 네기시 에이이치(75) 미국 퍼듀대학 특별교수와 스즈키 아키라(80)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 등 일본 국적의 과학자 2명이 올해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되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이 새 촉매제를 활용한 탄소결합법 개발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되면서, 자연과학 분야 수상자는 1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일본인 17명 가운데, 문학상의 가와바타 야스나리(1968년)와 오에 겐자부로(1994년), 평화상의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1974년) 3명 외엔 모두가 자연과학 분야 수상자였다.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매달리는 국민성과 기초과학에 집중해도 보상되는 사회적 합의와도 관련이 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분야만을 선호하는 우리와는 대비된다.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기초과학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 연구에 매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과학기술의 저변이 튼튼해진다.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기초과학분야 인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 되고 있다. 일본이 장기 불황 속에서도 세계 3위를 지켜내고 있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의 탄탄한 기반 때문이 아닐까.

뒤늦게나마 우리도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기초과학 진흥은 과학기술 정책의 화두(話頭)였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중요성만 강조했지 충분한 지원은 부족했다. 학문이 기초적 성격을 띠면 띨수록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기초과학의 진흥이 미흡한 것은 노벨상에서도 알 수 있다. 노벨과학상은 수상자 개인의 영광이자 한 국가의 기초과학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노벨문학상은 어느덧 국가의 국격(國格)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는 28개국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여기에 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스포츠 분야도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참 뒤진다.

그러나 뭣보다도 올해 노벨상의 최대 이슈는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명 작가이자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54)인 것 같다. 축하해야 될 중국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류는 2008년 12월 공산당 일당 독재 해체 등 민주화 요구를 담은 소위 '08헌장'을 주도한 혐의로 11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류의 수상을 계기로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평화상은 노벨위원회와 자유세계가 중국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13억 중국인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와 인권을 향유할 수만 있다면 평화가 크게 신장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 언론들은 지금껏 수상 자체를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상은, 유사한 경험을 거친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와 지식인들에게 일대 사건이며, 분명 평화적 변화를 위한 희망과 메시지를 안겨 줄 것이다.

사 설

명실상부한 직능대표 선출해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선원수좌회(이하 수좌회)가 성명서를 통해 수좌회가 추천한 2인을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좌회는 성명서에서 현 중앙종회에 선원 · 율원 · 강원의 직능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한 직능대표가 선출되길 바란다"는 수좌회의 촉구는 타당하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는 선원 · 율원 · 강원 · 교육 · 포교 · 사회 · 복지 · 문화 · 법제 · 행정 등 10개 분야의 직능대표를 2인씩 두도록 하고 있다. 종단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조항은 4년 전 구성된 14대 중앙종회의 직능대표 의원 선출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껴갈 것 같으니 수좌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중앙종회는 종도들의 대의기구이면서도 종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많은 종도들의 관심사인 종법 제?개정을 차기회로 미루는 일이 잦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직능대표제를 둔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계파 안배를 우선하는 풍토가 고착되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의 중앙종회를 보는 종도들은 깊은 자괴감을 느낄 뿐이다. 오죽했으면 중앙종회를 당장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겠는가. 며칠 전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한탄이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각 계파의 대표단은 종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으니 이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하며, 직능대표를 둔 취지를 적극 살리고, 차제에 종단의 미래 대계를 제시하는 종회 운영안도 내놓아야 한다.

봉원사 중흥불사 원만회향을 기대한다

봉원사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새절로 불리기도 했던 봉원사는 889년에 도선국사가 도량을 열고 반야사라 이름한데서 비롯되었으니 천년이 넘도록 법등을 밝혀왔다. 구한말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는 개화승 이동인과 김옥균 박영효 등이 봉원사에 모여 국제정세를 살피고 구국 방안을 모색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범패와 제48호인 단청을 전승 · 보존하고 있다.

이런 봉원사가 조계종-태고종의 오랜 분규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토지 소유권 분쟁을 겪은 것이다. 소유 조계종, 점유는 태고종이 하고 있었으니 도량을 일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올해 초 두 종단은 봉원사 토지를 분할해 소유하는 것으로써 지리한 분규를 끝냈다.

봉원사는 9월 28일자로 봉원사 토지를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명의로 등기 완료했다. 이에 따라 봉원사는 최근 중흥불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불사를 다시 일으키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 중심도량으로 가꾸어간다는 계획이다. 안산을 배경으로 삼고 멀리 서울도심을 바라보며 뭇삶을 위한 멋진 귀의처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알찬 계획이 세워지고, 원만히 진행되어 중생에게 회향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으니 불사를 하면서 애초부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종도들의 고견을 받들어야 한다. 특히 재정면에서는 외부의 공익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를 권한다.



사부대중 칼럼

오심 스님
월봉사 주지 · 울산광역시립 노인요양원장

가을볕이 좋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흘러 보내는지요? 단국화의 고운 자태로 낮은 세상의 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춰 보는 여유는 가져 보셨는지요?

지난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는 적지 않은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덥다 덥다" 했는데 어느 덧 여름은 지났습니다. 가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나서부터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껴 바로 긴소매를 꺼내 입는 모습이 간사하게 느껴집니다.

벌써 10월도 반이 지났습니다. '아! 벌써 가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올 가을에는 직지사 초입의 은행잎도 구경하고 싶었고, 설악산 권금성의 아름드리 단풍도 가슴에 담아두려 했는데 야속한 일정을 보고 있자니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내심 걱정부터 앞섭니다. 무작정 떠나면 될 것 같다가도 주어진 소임과 씨름하다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아이고 내년에 가야지' 하고 마음 붙들어 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을산을 바라봅니다. 산은 우리네 사람들에게 희노애락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함월산 자락은 속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도 영락없는 산사의 멋을 풍기는 멋쟁이 입니다. 산사에는 잠시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여유를 세상과 함께 나누고픈 것이 우리네 절집 사람입니다. 여유를 나눌 수 있어 산사람들에게 세상은 한편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가을 볕이 좋은 날 마당에서 베란다를 힐끗 올려다봅니다.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반가운 손동작과 환한 미소가 들어옵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언제나 반겨 주시는 어르신을 뵙고나면 하루가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 엔돌핀이 절로 생깁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일, 자비를 실천하는 일, 내 손길이 필요한 이를 위해 나서는 일은 결코 쉽게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는 꿈과 희망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내딛던 한발이 못내 서툴러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였고, 웅덩이에 빠져 신발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가시덤불 같은 길도 있었습니다. 때론 멈추고 싶은 강한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슴처럼 깊고 순한 눈망울들이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들의 눈을 보면 부끄러워졌습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마음을 다잡아 왔습니다. 그렇게 온 길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기 시작한 작은 오솔길이 이렇게 큰 길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직은 짧고 좁고 모양새도 썩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훗날 희망의 큰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길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희망과 열정을 모두 쏟아 부어 든든한 꿈길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과 자비의 꽃씨를 심을 때 희망의 길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사람이 사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 속의 짐승들은 마을로 내려오는 작은 길을 조붓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 냄새가 그리울 때면 알게 모르게 마을로 내려옵니다. 하물며 우리네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산의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달래며 연민합니다. 들꽃도 고난과 좌절이 다가올 때면 서로를 연민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참 서툽니다. 산길의 작은 들꽃처럼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좋습니다. 멀리보고 하루 하루를 예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보면 세상은 맑고 깨끗하여 눈부시기 까지 합니다. 금방 쪄 놓은 백설기에 김 서린 모습처럼 말이죠.

맑고 순수한 사람은 물처럼 바람처럼 낮은 곳을 선택하여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계곡물은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끝내는 다시 우리 곁에 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저마다 맡은 소임에 충실히 해야 하나 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애민섭수 하셨듯 서로를 아껴주는 거룩한 마음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가을 볕에 감사하며 희망을 꽃피워 봅니다. 오늘도 곁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눈망울 선한 이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문득 미래의 저인 것 같습니다. 가을을 잘 맞이 해 겨울의 양식으로 삼고 싶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않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 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성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현오스님"이나 "성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성 봉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안타는 제품입니다.

옻가네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헐은 위, 지친 간

혈액순환 장애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절대! 옻이 타지않는 (오르지 않는) 토종참옻으로 건강을 지키자!

'흰쌀밥에 쇠고깃국'을 최고의 밥상으로 생각했던 보릿고개 시절, 그때는 지금처럼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병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부족, 공해 등으로 혈액순환의 장애를 가져와 여러가지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꾸준히 순환하며 몸에 필요한 물질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몸밖으로 배출하는 대사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혈액이 나빠지면 대사기능이 떨어져 세포조직에 영양공급이 잘 안되고, 몸안에 나쁜 독성물질이 쌓여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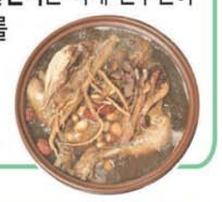
대한민국신지식인대상
산림청 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참옻 국내 최초개발자 池 龍 禹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 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혈액순환장애가 일어난다. 혈액순환의 원활하게 잘 되면 우리 몸은 암이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옻닭" 무더위로 지친 여름이면 즐겨 찾는 우리들의 전통보양식품

옻닭요리는 우리의 전통요리로서 중년이상이 즐겨 애용하는 식품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옻요리가 몸에 좋은 것은 알고 있으나 옻 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은 국내 연구진이 3년동안 연구개발하여 **식약청**에서 안정성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증명되었고,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정 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옻닭요리**입니다.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단발효특허 제 10-0484853 호
옻안타는 참옻제조방법 10-2008-0040013
참옻을 이용한 숙취해소음료 10-2008-0040014
무독화 옻나무 추출발효물 10-2009-0133912

KFDA 식품의약품 안전청

FDA 미국식품의약청 FCE/SID 제조업체 등록, 공정과정 등록

대한기능식품학회

산림청신지식인 선정

대한민국신지식인 대상수상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출품작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순자 1949년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5월 경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우치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멸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그이틀날 아침에 숙변이 엄청나게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또한 좋아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이틀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정상화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먹던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멸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피로도 확 풀려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여우 좋은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만성피로 십이지장궤양

자영업을 하는 53세 남성입니다.
장사가 안되는 날은 술과 담배를 자주 하다보니 몸도 망가지고 그로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소화도 안되고 피로하였습니다.
가슴이 꽉막힌듯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위염 및 십이지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병원에 1년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였지만 잘 낫지않아 스트레스만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는사람으로부터 참옻이 좋다는 말에 옻가네 참옻을 구입하여 1달정도 복용하게 되었으며 서서히 소화도 잘되고 속도 편안하여 아픈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약을 먹지 않고서 참옻을 몇개월 복용하니 이제는 예전처럼 술도 가끔 마실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위장약을 장복하면 남성의 정력이 약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위장약을 완전히 끊게 되어 다행입니다. 참옻을 만드신 옻가네에 감사드립니다.

간경화 (경기도 분당 60대 / 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은 진정이 없어 퇴원한 후 2주마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진정이 없었습니다. 8월경 TV 방송을 보고 제품에 신뢰를 하였지만 형편상 자주 구입하지 못하고 설물채 주문 봄의 생의로 복용하기 시작한지 10일정도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조차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2주마다 가던 병원을 3개월에 1번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혈색이 간 수치는 85/55로 돌아왔으며 황달도 4에서 3.5로 줄었음. 다음에나 상기한 것은 10년동안 치료 불가능 했던 바톤우종이 완치 되었으며 면역력이 약한관계로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 사라졌다.

언론보도자료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 6. 19
2) "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 4. 20
KBS 싱싱 일요일 – "계절의 보석" 2006. 8. 20
KBS 무한지대 큐 –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 10. 31
KBS 환경 스페셜 – "약이 되는 독" 2006. 11. 22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 8. 6
한국경제 –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동아일보 –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 10. 27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을 고침.

어혈제거, 혈액순환
-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 함.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골연화 예방치료.

피부 질환, 아토피
-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가 저리고 쑤시는데 쓰임.

동의보감(허준)

옻은 성질이 따뜻하고 어혈(瘀血)을 없애며 여인의 생리불순. 생리통과 산가(疝瘕)를 낫게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회충을 죽이고, 몸속의 오래 묵은 병 덩어리(적)을 없애고 여성의 하혈을 그치게 하고 , 삼충을 없애고, 폐결핵을 치료한다. 옻은 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뼈로 간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골수를 채워 줄 수 있는** 명약으로 뼛속, 머리 골을 채워 주며 골다공증, 골연화, 예방치료와 골수염, 관절염에 좋고, 심장병, 결핵, 신경통, 간경화, 늑막염, 담낭, 신장, 허리통증과 중풍, 방광결석을 치료하고, 남성의 정력을 보하는데 좋아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 할수 없는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옻은 독성이 약성이므로 독성을 제거하면 약성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옻의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성은 제거하면서 약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은 독성을 제거되면서도 약성은 그대로 보존됨이 입증된 국내 유일한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무과당, 100%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3~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드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x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x 60포)
2개월분 260,000원
사은품 토종참옻환 300명 한정

옻 お金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